

제 10 호

2001.

驪州文化



여주문화원

여

백

2001.

제 10 호

驪州文化

驪州文化院

여

백

문예중흥선언문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전환기에 처하여 새로운 문화창조의 사명을 절감한다.

한겨레의 운명을 결정짓는 근원적 힘은 그 민족의 예술적 문화적 창의력이다. 예술이 창조력을 잃었을 때 겨레는 침체되고 문화가 자주성을 찾았을 때 나라는 흥한다. 신라 통일의 위대한 업적과 세종시대의 문화창조는 이를 증명한다.

우리는 길이 남을 유산을 개발하고 민족적 전통성을 이어받아 오늘의 새문화를 창조한다. 맹목적인 복고경향을 경계하고 분별없는 모방행위를 배척하며 천박한 퇴폐풍조를 일소하여 우리 예술을 확고한 전통속에 꽃 피우고 우리문화를 튼튼한 주체성에 뿌리박게 한다.

우리는 조국의 현실을 직시하고 영광된 겨레의 내일을 위하여 가치의식과 사관을 바로잡고 표현의 자유와 문화의 자주성을 함께 누리며, 곳곳마다 문화의 전당을 세워 온겨레가 함께 예술을 즐기도록 한다.

우리는 자신의 자세를 새롭게 가다듬어 우리의 업적이 세계에 부각되도록 힘쓰며, 문화의 활발한 국제교류를 통하여 인류문화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한다.

이에 모든 예술가 모든 문화인들은 온 국민과 동참하는 대열에 서서 예술과 문화를 아끼고 사랑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정성을 다해 문예중흥을 이룩할 것을 선언한다.

1973年 10月 20日

여주의 노래

유 달 영 작사

김 동 진 작곡



봉 마 다 푸 른 솔 에 싱 싱 히 어 ~ 린
 북 별 의 칼 을 갈 던 우 람 한 뜻 ~ 과
 정 음 을 지 어 펴 신 어 - 진 슬 기 가
 봄 하 늘 태 양 으 로 우 - 린 기 른 다
 굽 이 쳐 흘 러 가 는 무 궁 한 강 - 물
 강 물 처 럼 무 궁 한 여 주 의 마 ... 음

2. 명화에 그림같은 여주 팔경에
 포은도 찾아와서 시를 읊었네
 역사에 피고 진 허다한 인걸
 유서깊은 고적마다 신운이돈다

3. 맑은강 넓은 들에 검은 멧부리
 흥겨운 농부가는 메아리 친다
 천마대 살아 나갈 우리 복지를
 자유의 깃발아래 이룩해 가자

여주문화원 연혁

▶ 설립배경

우리나라에서 문화원이 처음 생긴 것은 1950년대 초기로 복지관, 국민문화원, 공보원등의 명칭으로 사용하였는데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유지들의 지원과 원장의 사재로 운영되어 왔으며 1962년 한국문화원 연합회가 설립되던 해에 76개소의 문화원이 설립되어 증가추세에 있었음.

▶ 설립계기

1967년초에 [여음회]란 모임에서 설립 논의가 있었고 동년 12년 여주복지관에서 문화원 설립을 위한 종합예술제를 개최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 연혁 및 주요일자

1967. 5.	여주읍 홍문리 15 여광기술학원내 비법인 세종문화원 사무실을 개설함. 박운한 학원장 무상임대)
1968. 1.	여주문화원으로 명칭을 개정
1969. 2. 25	발기인 총회(발기인 : 김윤선, 박운한, 정춘식, 안금식, 임창선, 감사 : 최지복, 이영규)
1969. 4. 11	창립총회 정관개정
1969. 5. 14	이사회회 개최(원장 : 안금식, 이사장 : 김윤선)
1970. 2. 26	사단법인 여주문화원 설립허가(문화공보부장관)
1970. 4. 27	법인설립등기
1974. 6. 14	2대원장 감효정 선출 (이사장 : 안금식)
1981. 6. 23	3대원장 김덕배 선출 (이사장 : 안금식)
1981. 6. 23	정관개정
1981. 6. 23	사무실이전(중앙감리교회 별관)
1982. 2. 26	4대원장 안금식 선출 (이사장 : 이춘우, 박광식)

1982. 10. 9	경기도주최 세종문화큰잔치를 여주문화원 주최행사로 인수 (강변봉화, 해촌낙화, 불꽃띄우기, 민속가두행렬등)
1982. 12.	황여문화 창간 제9호까지 발간(90. 12)
1984. 1	가남본두리 낙화놀이 발굴(정월 대보름 낙화놀이 체계적 시연 유도 매 년 음력 1월16일 시연)
1984. 5. 15	세종대왕 탄신 승모제전 주관 (시조백일장, 국악인 초청공연등)
1985. 11.	원부리 열 답교놀이 시연지도(매년 정월대보름 시연)
1986. 1. 31	사무실 이전 (여주읍 홍문리 74-2 군민회관 내)
1986. 2. 7	정관개정(문화공보부장관 승인)
1986. 5. 15	세종벽담 문화상 제정
1986. 7.	마래리 거북놀이 발굴 시연
1986. 12. 20	여강문화 창간호 발간(72페이지) 계속 6호까지 발간 (90. 12. 20)
1987. 10.	제28회 전국민속경연대회에서 혼암리 쌍용거줄다리기 대통령상 수상
1988. 2. 29	여주문화예술코너 개관(여주읍 하리 15블럭 9롯트)
1991. 8. 17	5대 원장 직무대리 황웅구 선출
1991. 12. 30	사례집략 발간
1992. 4. 6	6대 원장 직무대리 박근출 선출
1992. 5. 6	시범문화원 지정(문화부장관)
1992. 11. 28	7대 원장 원중재 선출
1992. 11. 28	정관개정 (이사장 규정 삭제) 1992. 12. 22 문화체육부장관 허가
1993. 3. 5	여주문화사랑방 개설 (여주읍 홍문리 74-2 군민회관 내)
1993. 4. 9	문화원 처무규정 제정 (직제, 복무, 인사, 보수, 여비, 문화사랑방 및 문화코너 관리규정)

1993. 12. 30	황여춘추(제1호) 창간
1994. 7. 29	지방문화원진흥법 (94.1.7. 법률 4718호) 공포 지방문화원 설립인가, 정관 변경
1994. 12. 31	황여춘추 (제2호) 발간
1994. 12. 31	여흥문화재대관 발간
1995. 8. 27	8대 원장 조무호 선출 (95. 10. 5 승인. 95. 10. 23 등기)
1995. 11. 28	정관개정(대의원제 신설) 96. 2.29 문체부장관 허가
1996. 1. 12	사무실 이전 (북내면 천송2리 545-1 청소년수련실)
1996. 2. 16	문화사랑방 및 문화코너 관리규정 개정 (사용료 변경)
1996. 2. 28	운영규정 제정(규정 제8호), 회비규정 제정(규정 제9호)
1996. 5. 15	세종대왕 탄신 제599돌 승모제전을 제7회 도자기축제와 병합 추진하여 문화행사를 크게 확대 26개 문화행사 거행 (전시회 4건, 민속놀이 5건, 가무극 8건등 기타 9건)
1996. 10. 9	세종문화큰잔치 및 학생백일장
1996. 12. 31	여주문화(3호) 발간
1996. 12. 31	지명유래집 발간
1997. 5. 15	세종대왕탄신 제600돌 기념행사
1997. 10. 9	제29회 세종문화큰잔치 세종대왕탄신 600돌 기념 경기도 학생백일장
1997. 12. 31	여주문화(4호) 발간
1998. 10. 9	제30회 세종문화큰잔치 및 제2회 경기도 학생 백일장 대회
1998. 10. 9	‘왜, 다시 세종대왕인가’ 발간
1998. 12. 24	세종대왕 달력 발행
1998. 12. 31	금사면지 발간
1998. 12. 31	여주문화(5호) 발간
1999. 3. 18	9대 원장 한만규 선출 (부원장 박광태, 차재운)

1999. 5. 14	문화원 운영위원회 구성 (한만규, 박광태, 차재윤, 원무길, 정병성, 이필현, 강태희, 김영준, 박용희)
1999. 6. 8	문화원사무실 군민회관으로 이전
1999. 10. 9	제31회 세종문화큰잔치 및 학생 백일장
1999. 12. 31	여주문화(6호) 발간
2000. 4. 18	여주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 제정(10억원)
2000. 5. 25	여주문화 편집위원회 구성 (한만규, 차재윤, 강태희, 이일섭, 김태수)
2000. 6. 21	문화원창립 기념일 제정 (4월27일 법인설립등기일)
2000. 6. 30	여주문화(7호) 발간
2000. 6. 30	조선왕조실록에서 모은 여주사료집(Ⅰ) 발간
2000. 7. 12	명성황후 탄신일을 천문역학기관에 조회하여 음력 9월25일 탄신일을 양력 11월17일로 환산 확정함.
2000. 10. 9	제32회 세종문화 큰잔치 및 학생백일장
2000. 11. 17	명성황후 탄신 제149주년 송모제전
2000. 12. 30	문화유적 자료집 발간
2000. 12. 30	여주문화 (8호) 발간
2001. 4. 27	여주문화원 창립 31주년 기념 및 문화예술인의 밤 행사
2001. 6. 30	여주문화(9호) 발간
2001. 6. 30	여주사료집(Ⅱ) 발간
2001. 6. 30	세종대왕의 얼 발간
2001. 9. 25	한글반포 제555돌 기념 학술대회
2001. 10. 8	제33회 세종문화 큰잔치 및 학생백일장
2001. 10. 10	쌍용거줄다리기 시연
2001. 11. 17	명성황후 탄신 제150주년 기념 송모제전(遙賀禮)
2001. 12. 30	여주문화(10호) 발간

문화원 행사 이모 저모



세종대왕 숭모제전 (5월 1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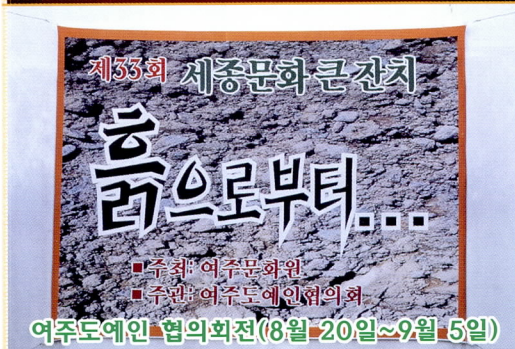
전국 별자리 관측 대회 (8월 25일~26일)



김 덕 기 초대전 (8월 10~19일)



여주문인협회 사화전 (9월 6일~13일)



제53회 세종문화큰잔치
음성으로부터...
■주최: 여주문화원
■주관: 여주도에인협의회
여주도에인 협의회전 (8월 20일~9월 5일)



수석인 연합회전 (9월 14일~19일)



야간옥의 레이저쇼



은모래 사진전 (9월 20일~26일)



한글 반포 제555돌 기념 학술대회(9월 25일)



한국미술협회 여주지부전(10월 5일~15일)



경기도 학생 백일장대회(10월 8일)



명성황후 승모제전(11월 17일)



쌍용거줄타리기 시연(10월 10일)





목 차

◆ 문예증흥선언	1
◆ 여주의 노래	2
◆ 여주문화원 연혁	3
◆ 문화원 행사 이모저모	7
◆ 발간사 / 여주문화원장 한만규	13
◆ 축간사 / 여주교육청 교육장 이용식	15

논 壇

◇ 역사적으로 본 우리나라의 敎育 / 편집부	18
◇ 鄕校奉安東國十八賢記略 편집부	29
◇ 명성황후와 국제정치 / 이민원	39

향토조명

◇ 沂川書院 / 편집부	58
◇ 대왕표 여주쌀 / 여주군	62
◇ 여주 밤 고구마 / 여주군	65
◇ 여주대학 발전 전략 / 여주대	68
◇ 여주양잠소사 / 박재명	73
◇ 임은 이민군의 생애 / 이종립	83

유적지 탐방

◇ 영릉과 세종대왕 / 편집부	98
------------------------	----

고장을 뒀던 인물

◇ 원두표 선생	104
◇ 최시형 선생	105

내고장 전설

◇ 단종어 수정	108
◇ 고달사지에 얹힌 전설	108

전통민속놀이

◇ 여주농악에 관한 고찰	112
---------------------	-----

향토문예

◀ 시 ▶

◇ 야경 / 원용문	124
◇ 산다는것 / 김흥렬	125
◇ 내고향 여주 / 양암 조현	126
◇ 우리의 자랑 도자기 / 강태희	127
◇ 가을사랑 / 이일섭	128
◇ 강물따라 / 정기명	129
◇ 빗방울 / 이문현	130
◇ 허수아비 / 박찬수	131
◇ 인생은 나그네 / 박광태	132

◇人生 / 구흥서	133
◇삶 / 김정인	134
◇복사꽃 꽃무리에 취해 / 이신재	135
◇고향 / 이경섭	136
◇자화상 / 주동훈	137
◇산장에 는 / 최병숙	138
◇비행기 안에서 / 홍은숙	139
◇雨期의 아침 / 함은수	140

◀ 수 필 ▶

◇장미 한송이 / 이장호	142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 이상국	144

◀ 창작동화 ▶

◇달밤 대운동회 / 강태희	148
----------------------	-----

◎ 2001년도 문화원 주요사업계획	151
◎ 2002년도 문화원 주요사업계획	152

발 간 사



여주문화원장 한 만 규

희망과 도전의 21세기가 우리 앞에 전개 되어가고 있습니다.

21세기는 세계화와 지방화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지역문화의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그러한 시대가 될 것입니다.

이에 부응하여 우리 여주에서도 금년에 『2001 세계도자기엑스포』 행사를 세계사상 최대의 경제적, 문화적으로 성공한 엑스포 잔치로 치뤄냈습니다. 이는 참으로 대견하고 자부심과 긍지를 갖는 행사였기에 우리 모두 함께 축하해야 하겠습니다.

이번 『여주문화 제10호』를 세상에 내놓으면서도 지난 한해 우리가 이룩한 모든 일들을 되돌아보면 우리 여주문화원이 해낸 많은 일들이 우리 모두를 흡족하게 할만큼 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마음을 합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도와주며, 함께 땀흘려 거둔 결실이기에 매우 자랑스럽고 값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가오는 새해 임오년에도 지금까지 기우려 온 것보다도 몇배 많은 노력을 기우려야 하며 한 걸음 더 앞서가기 위한 대단한 노력과 창의력을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금년 한해 아낌없이 성원해주신 문화원 가족여러분과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여주문화원 육성발전에 애써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여주문화 10호의 산파역을 맡아 주신 편집위원 여러분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리고 임오년 새해에도 여러분 가정마다 행운과 만복이 깃드시길 바랍니다.

발 간 사

「여주문화」 제10호 발간을 축하하면서



경기도여주교육청 교육장
이 용 식

어느덧 다사다난했던 신사년 한 해가 기울어 가고 있는 세모에 우리 여주의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는 동시에 새롭게 맞이할 임오년의 힘찬 출발을 알리는 「여주문화 제10호」가 발간됨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더욱이 우리 여주와 같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여주문화」가 10년이 넘도록 속간되었다는 점은 우리 여주군의 문화적 저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볼 때, 우리에게 가장 뚜렷이 기억될만한 것이 바로 세계도자기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가 아닌가 합니다. 세계도자기 엑스포는 주민소득 증대와 지역발전의 많은 기여를 한 것은 물론 국내외에 많은 홍보를 하여 이제 우리 여주는 역사와 문화의 고장으로 모든 국민의 머릿속에 각인되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 데 있어 경제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바로 문화라 생각합니다. 문화적 자존심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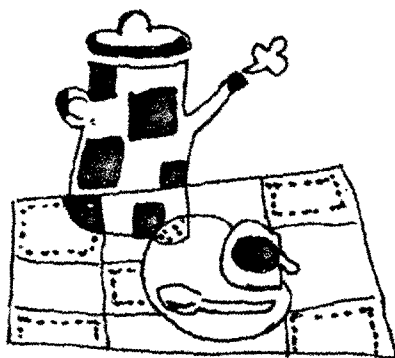
우리 여주를 살찌우게 하는 원동력이라 생각하며, 이러한 문화를 계승·발전시키는 역할에 우리 교육자들도 일익을 담당하여야 한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우리 여주교육청에서는 지금까지 교원미술전람회와 학생미술대회, 각종 백일장, 학생종합 예능발표대회 등 많은 문화행사를 주관하거나 후원해 왔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여주군 문화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앞으로 '여주문화'가 고장에 대한 자긍심을 청소년에게도 심어줄 수 있도록 꾸며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우리 후세들이 자기 고장에 대한 애향심을 갖도록 하는 것은 우리 고장의 미래를 위해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여주에 고향을 둔 청소년들에게 친숙한 「여주문화」가 되었으면 하는 욕심을 가져봅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우리고장의 문화를 널리 알리고 미풍양속을 계승해 나가는데 매우 중요한 길잡이를 하는 「여주문화」가 더욱 발전하여 우리 여주군민은 물론 문화를 사랑하고 연구하는 많은 예술인들이 보고 싶어하는 「여주문화」로 발전하기를 기원하면서 축간사에 가름합니다.

논 단

(편 집 부)



▶ 高句麗의 敎育制度

우리나라에서 문자를 언제 사용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적어도 고조선 후기에 사용한 것은 사실인 것 같다. 高句麗의 學校敎育의 始初는 소수림왕 2년(372)에 太學을 세워 子弟를 敎育했다고(三國史記卷18 高句麗本紀第6) 기록되어 있다. 이 시기는 秦王 符堅이 僧順道를 파견하여 佛敎의 經文을 傳했고(晉書53卷庾記符堅) 律令을 公布하였으며 이 무렵 前秦은 太學을 重修하고 학자를 우대하여 유학을 장려하고 있었다. 太學의 敎育內容을 北史, 周書에 보면 五經三史, 三國誌, 晉春秋의 한 학을 敎材로 하고 있었다.

고구려의 私學은 舊唐書에 依하면 「風俗이 書籍을 사랑하고 大屋을 짓고 局堂이라 하여 未婚子弟로 하여금 글을 읽고 활쏘는 법을 익혔다.」 또 新唐書에서도 같은 기록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고구려는 平壤遷都를 마치고 평민과 궁중에 이르기까지 미혼자에게 經史書와 武芸을 가르쳤다. 局堂의 학습내용은 五經, 史記, 漢書, 范曄의 後漢書, 三國誌, 孫盛의 晉春秋玉篇, 字統, 字林등이고 文選도 애독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처럼 고구려는 庶民까지의 敎育場인 局唐을 利用하여 文武一致敎育을 장려하여 文武官의 養成은 물론 국민의 지식을 향상시켜 정치와 국방력을 키워 隨唐의 내침을 극복해

가며 국력을 신장시킨 것이다.

▶ 百濟의 敎育

百濟는 위치가 서남부에 있었기 때문에 일찍부터 중국문화를 수용해서 자체문화를 형성하게 되었다. 그러나 初期에 학교건립에 대한 기록은 없다. 「古記」의 기록에 의하면 「백제는 개국 이래 문자로서의 기록이 없다. 博士 高興에 이르러 비로서 글로서 기록이 있다.」 「百濟開國以來未有以文字記事 至是博士高興有書記」고 기록되고 있는데 이것은 백제가 개국 이래에 문자를 가지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記事가 없다는 뜻이고 高興에 의하여 近古王30(375)년에 비로서 事記의 편수가 있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즉 글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때까지는 기록이 없었기 때문이다. 백제문화의 영향이란 北朝鮮지방의 流移民으로 형성된 辰韓社會에 扶餘一族이 건국하였기 때문에 문자는 이미 그 전부터 지식층들은 사용해온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백제의 한문敎育이 일본에 전파된 것이 이미 서기 284년도임이 日本書記에 밝혀지기 때문이다. 日本書記 應神王十五年(284)條에 「백제왕이 阿直岐를 시켜서 良馬二匹을 보내왔다. 아직기는 經典을 잘 이해하므로 太子의 스승으로 삼았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阿直岐와 王仁이 백제로부터 日本으로 학문을

전파시켰음이 日本학교 교육의 기원이 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다만 百濟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교육을 시켰다는 구체적인 교육기관에 대한 기록이 전래되지 않는다.

▶ 新羅의 教育制度

1. 花郎道 教育

화랑도의 칭호는 원화(源花, 原花), 국선(國仙), 선랑(仙郎), 풍월주(風月主), 풍류도(風流道) 등의 同名異稱이 있다. 그 起源은 정확하지 않으나 신라 진흥왕 37(575)년 봄에 비로써 화원(花源)을 받들었다는 기록이 나와있으나 실질적으로 이에 앞서 진흥왕 시대를 중심으로 하여 표면화된 청년애국운동으로 일어난 것이니 창설년대를 지정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진흥왕 23(562)년에 고령가야 싸움에서 용맹을 떨친 「斯多舍傳」에서 「당시 사람들이 화랑이 되기를 청하여 화랑이 되었는데 그 무리가 무려千명이나 되었고 모두들 환심을 사게 했다.」고 기록된 것으로 보아도 著述한 진흥왕 37년보다 앞선 것이 입증되기 때문이다. 결론적이라고 하자면 기원은 그 이전부터고 국가적으로 교육기관을 만들은 것은 진흥왕 37년부터인 것이 타당성이 있다 하겠다. 삼국사기(신라본기)에서는 「어진 재상과 충성된 신하가 여기서 나오고 어진 장수와 용감한 군사가 이로 인해서 생겨났다」고 하였으니 화랑교육 목적이 바로 賢佐, 忠臣, 良將, 勇卒을 배출하여 治人과 國防人才의 양성에 있었던 것이다.

國仙이나 花郎은 郎徒들의 사범적이었고 郎徒들은 계급이나 신분에 차등이 없었다. 반면에 郎徒들은 貴族과 平民間에 橋梁役割을 한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郎徒들은 국가적인 관심 밑에서 指導를 받아오면서도 민간청소년들의 가장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조직이었다. 미혼 미남을 선택하여 모범적이고 지도적인 인재를 만드는 교육을 시켰고 전란시에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전사단(戰士團)으로 충성하는 신라사회의 국민교육이었다.

眞平王때 이르러 貴山과 추항이 원광법사에게 화랑도 교육의 지침을 청하니 법사는 오제(五戒)를 내렸다. 즉 첫째 충성으로써 임금을 섬기고(事君以忠) 둘째 효도으로써 아버지를 섬기고(事親以孝) 셋째 믿음으로써 벗을 사귀고(交友以信) 넷째 싸움에 임하여 물러섬이 없고(臨戰無退) 다섯째 죽이고 살리는 것은 가려야 한다(殺生有擇)하였으니 이것이 世俗五戒다. 이것은 儒, 佛, 道가 부합한 五戒다.

신라의 국학(國學二學校 教育)

신라는 三國을 統一하면서 神文王(六八二)년 六월에 국학을 설립하고 예부에서 관장했다. 또 그전 善德女王九(六四〇)년에 이미 唐나라에 유학을 보냈던 사실도 있다.

국학에 입학하는 연령은 一五세부터 三十세까지로 하고 재학기간은 九년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비록 국학에 입학하였다 하더라도 학문을 이룰 가능성이 없을 때는 퇴학(黜學)을 시키고 비록 학문의 진취가 더딘 사람

은 유급(陟學)시켜 가르키는 제도가 있었다. 국학을 창립한지 三十年이 지나서 聖德王一六년에 당나라에 들어가 숙위(宿衛)했던 金守忠이 귀국하면서 文宣王 十哲 七十二賢의 화상을 가져와 국왕에게 헌납하자 왕이 명하여 태학에 안치하도록 하였다. (三國史記卷五 新羅本記第五聖德王一六年條) 이것이 孔子和 그 제자들의 像을 모시게 된 시초다.

점차로 국학이 정립되어 가면서 儒學系統의 學問이외에 實業教育을 병행해 나갔다. 경덕왕 六년에 국학내에 제업박사(諸業博士)를 교수로 하고 助教도 두었다. 유학제의 교재로는 주역(周易) 상서(尚書) 모시(毛詩) 예시(禮詩)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문선(文選)을 가르치고 논언(論語)와 효경(孝經)은 필수과목이었으며 실업계에는 갑을경(甲乙經) 소문경(素問經) 針經 脈經 明堂經 難經 本草經 등이었다. 따라서 聖德王 一七년에 天文學 景德王 八년에 律(法)學이 추가되었다.

당나라에 유학을 실시한 것은 신라뿐이 아니라 고구려는 榮留王 二十三(六四〇)년부터, 백제는 무왕 四十一년부터 당나라 국학에 입학시키고 신라는 선덕여왕 九(六四〇)년에 시작되어 유학기간을 十年으로 하고 매년 백명전후의 수를 교체해 왔으며 학비는 본국에서 銀三百냥을 부담하고 숙식은 당나라에서 부담하였다. 특히 당나라의 유학을 마치고 거기에서 과거에 급제한 사람으로 崔致遠, 朴仁範, 金渥, 元傑 王巨人 金重訓 等 많은 有名人이 배출되었다.

고려시대(高麗時代)의 教育

태조가 고려를 개국하고 나서 一三(九三〇)년에 서경(西京)에 학교를 창립하고 서학박사(書學博士)를 임명하여 가르치게 하였으며 별도로 학원을 창립하여 六部の 생도를 모집하여 가르쳐 六部관리에 충원하도록 하고 또 겸해서 醫, 卜 二料를 두도록 하였고 국학은 그대로 존속시켜 가며 인재를 양성하게 하였다. 점차 지방으로 확산하여 권학관(勸學官)을 파견시키는 방법도 있었으나 모 든 것이 체제를 갖추지 못하고 임시 교육기관을 설치하는데 불과하게 되었다. 성종 一一(九九二)년에 임금이 교서를 내려 유사로 하여금 승지를 가려 학교를 세우게 하고 토지를 하사하여 학자금에 충당하게 하였다가 이것이 국자감(國子監)이 이루어졌다. 이것은 먼저 신라의 제도를 계승하여 국학이라고 불려 오다가 成宗二(九八三)년에 宋나라의 임노성(任老成)이 대묘당도(大廟堂圖) 사직도(社稷圖) 문선왕도(文宣王圖) 제기도(祭器圖) 七十二賢讚記를 가지고 오면서 그해 十二月에 국자감(國子監)으로 개편하게 되었고 이것이 고려시대 교육의 최고 기관이 되었다. 그러나 지방에서 서울로 유학해야 하는 불편이 있고 신분의 제한이 있어 모든 국민의 자제를 교육시키기는 어렵게 되므로 기타의 교육기관이 각기 시대에 따라 증설되거나 또 한때 武人執權時代를 맞아 퇴색하기도 하는 우애곡절이 많았다. 교육기관을 분류하자면 대략 아래와 같았다.

一. 국자감(國子監)

고려 성종이 모든 국정제도를 정비하면서 九九二년에 경학으로 내려오던 제도를 국자감으로 개편, 설립된 것이다. 국자감 안에 국자학(國子學: 三品 이상의 자제를 입학 교육시킴) 대학(大學: 五品 이상의 자제) 사문학(四門學: 七品 이상의 자제) 율학(律學) 서학(書學) 산학(算學) 등의 전문학과를 두었으며 교수로는 국자사업박사(國子司業) 대학박사(大學) 사문학박사(司文學) 등이 있고 또 조교를 두었다.

수학(修學)기간은 효경, 논어는 필수과목으로 一년, 상서(尚書) 공양전(公羊傳) 곡량전(穀梁傳) 각 二년, 주역(周易) 모시(毛詩) 주례(周禮) 의례(儀禮) 각 二년, 예기(禮記) 좌전(左傳) 각 三년을 전부 이수하여야 하였고 인원은 三百명에서 六百명까지로 하였다. 德宗때부터 국자감시(國子監試)를 두어 학생의 학업열과 사기를 돌아주었고 승종六(一一〇一)년에 서적포(書籍舖)라 하여 국립도서관을 설치하게 하였다. 훗날 이것이 성균관(成均館)으로 변형되어 조선시대로 계승된 것이다.

또 예종四(一一〇九)년에 국자학 안에 七齋를 두었는데 우수학생을 선발하여 七처에 분류하여 전문강좌를 하던 것으로 여택재(麗澤齋 = 周易專講處) 시빙재(侍聘齋 = 尚書, 書經專講處) 경덕재(經德齋 = 詩經專講處) 구인재(求仁齋 = 周禮) 복응재(服膺齋 = 載禮) 양정재(養正齋 = 春秋) 강예재(講藝齋 = 武學) 등이 있었으나 이것은 지금 대학이나 대학원내의 전문분과와 일치한다 할 것이다.

二. 東西學堂과 五部學堂

원종二(一二六一)년 三월에 東西學堂을 두고 별감을 보내 교학을 지도하게 하였으니 즉 國都의 東西에 학교를 두고 이것은 국자감에 입학하려면 신분의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서민교육기관으로 초창기 지방의 향교와 동격이었던 것 같다. 점차 증설이 필요함에 따라서 東, 西, 南, 北과 中央에 各各 五部에 學堂을 두게 된 것이며 요약해서 국도의 五部에 학교를 설립하여 국가가 경영하였던 것으로 즉 지방의 향교와 동격이라고 보겠다.

三. 十二公徒

고려시대 사설 교육기관중에 가장 유명했던 一二개 학교를 말하는 것으로 처음에 당시 해동공자로 불리던 崔沖이 문무재능을 겸비한 대학자로 七十二세에 고령으로 致仕한 후에 가산을 털어 여생을 후생교육에 전력할때 그의 명망을 듣고 학도들이 운집하여 교육이 성황을 이루게 되고 또 이 사학을 수료한 학도들이 사회의 칭찬을 받게 되어 교육성과가 크게 이룩되자 당시 유명한 학자 鄭倍傑, 盧杲, 金無帶, 殷鼎, 金義珍, 黃瑩, 柳監文正, 徐碩, 그리고 未詳者二人等이 학교를 세웠으니 崔沖이 세운 것과 합하여 十二公徒라 칭하는 것이다. 교육내용은 국자감 교육내용과 같았다. 그러나 사학기관이라 하더라도 학생 자의로 전학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되어 국가가 감독하게 되고 仁宗시대(一一一一~一一四六)에 들어서면서 강화 통제하게 되었다.

이 公徒는 고려 중기에 접어들어 국자감이 부진하게 되고 향교와 학당이 수립되기 전에 유학교육에 크게 공헌한 것도 사실이다. 고려 말기에 와서는 향교와 학당의 생도들에게 시험을 보며 十二徒에 입학시키고 十二徒에 시험을 보며 成均館으로 보낼 정도이고 보면 十二公徒가 지방의 향교나 학당보다는 우월했음도 알 수 있다.

四. 書堂

三國時代 고구려 局堂이란 부락단위의 학교가 있었던 것으로 신라통일기를 거쳐 고려 초기로 연결, 존속해온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史記上(一一二四年)으로는 뚜렷한 것이 보이지 않고 중국 宋나라 사신 徐兢 고려를 다녀가면서 지은 책 高麗圖經에서 仁宗朝의 學風에 대한 기록이 있다. 「村落의 거리에는 經銀과 書社가 두세개씩 서로 마주보고 있어 미혼자제들이 모여 선생에게 經書를 배우고 성장함에 따라 무리대로 벗을 지어 寺觀에 나가 講論하고 아래로는 어린이들에 이르기까지 역시 스승에게 배운다」하였다. 따라서 고려의 서당제도는 조선조로 이어져 서민교육기관으로서 가일층 발전을 이룩하여졌으며 교육비가 과중하지 않아 편의를 제공하게 되었고 일정한 규제가 없어 학자라면 누구나 제자를 양성할 수도 있었다. 또 이 서당이라고 하는 것은 향리주민의 중의에 따라서 설립하기도 하였으며 뜻이 같은 사람끼리 자녀교육에 관한 계(契)를 조직하여 설립하기도 하였으니 모두 훈도를 초청하거나 자체내에

서 학력을 갖춘 사람이 훈장을 하기도 하였다. 훈장은 입학의 순위와 학력재질을 가려 접장을 두고 처음 입학하는 자는 강습시키기도 하였다. 반면에 이 서당을 졸업했다고 해서 일정한 자격을 취득하게 되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학문을 배우고 행실을 익히는데 불과하였지만 일정한 국가교육기관의 과정을 밟기에 앞서 기초교육의 과정은 틀림없게 되었다. 보통 입학시키는 七~八세를 기준하되 가정형편에 따라 빠질 수도 늦을 수도 있었으며 늦게는 成婚後까지도 서당에서 배우기도 하였으며 순수한 우리말로는 글방이라 부르기도 했고 글 읽는 곳을 일명 초당이라 부르기도 했다.

조선시대(朝鮮時代)의 敎育

一. 成均館

조선시대 나라에서 설립한 최고교육기관으로 대학교육을 실시하고 학문의 강론과 연구기관이었다. 과거의 국학, 국자감등 모든 교육기관이 통일, 일원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조선 왕조는 治國支配思想을 유학(儒學)에 起礎해서 社會體制化하였다. 국초에 農桑, 興學의 두 가지를 治國二大政策으로 始作되었으나 세월이 가면서 학문은 귀하게 여기고 실학은 천하게 생각하는 그릇된 사상의 싹이 트기 시작하여 학문에 관해서는 계속 연구기관이 존재 발전하였으나 실학에 관해서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이 존속하지 못하

였던 것도 사실이다. 이때문에 조선조에 들어와서 성균관을 비롯한 학문교육기관은 점차 성행하게 되고 이곳에서는 유학사상의 보급과 관리양성의 본거지로 국가가 유일의 관심을 갖게 되었다.

가. 성균관의 교육

성균관이 조선조의 최고교육기관으로 제일 먼저 정치적 이념을 유학에 두게 된 때문에 삼국시대로부터 고려에 이르기까지千年간에 걸쳐 統治와 더불어 민중의 정치적 지주가 되어왔던 불교사상을 배척하고 유학으로 전환하는 큰 변화가 이룩되었다. 때문에 전조에서 말한바와 같이 성균관 교육목적을 크게 두가지로 大別하여 하나는 統治理念인 유학의 보급이요 또 하나는 고급관리의 양성이다.

성균관 안에는 대규모의 문묘(文廟)를 설치하고 춘추 두 차례 석존제(釋尊祭)를 지내고 유생들을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 참배하게 하고 주자예법에 따라 신규석권의를 제정하여 제향에 임하게 하여 유학의 성현을 제사함에 聖賢崇尚心を 기르게 하고 그 사상을 배우게 한것이다. 그리고 교과내용은 유학의 경전(經典)과 제술(製述)이 기본 科目이다. 때문에 과목중에 중요한 것은 四書五經(大學, 論語, 孟子, 中庸, 詩傳, 書傳, 周易, 禮記, 春秋)이다. 또 製述로는 四書疑, 五經儀, 詩, 賦, 頌策등인데 疑와 儀는 本文에 나타난 論說을 전개하는 것이며, 賦, 頌, 詩는 文章을 짓는 것이고 策이란 것은 時務를 論하는 것이다. 따라서 조선시대의 모든 과거의 문

제가 이 중에서 발췌되었다.

나. 유생(儒生)

우선 관리를 양성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지배층에 있는 양반들의 자제만이 입학할 수 있되 그중에서도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자에 한하였다.

이 자격은 첫째 성균관 입학시험에 합격한 생원(生員) 진사(進士 = 上齋生), 둘째 四學門蔭의 升補生, 셋째 문과향시(鄉試) 한성시 일도(漢城試一度)의 합격자와 현직관리중에 參上, 參外官등은 시험없이 입학할 수 있다. 또 大科라고 하는 문과에 합격하려면 성균관에 입학하여 공부하는 것이 가장 지름길이다.

다. 향교(鄉校)

한마디로 지방교육기관이다. 즉 중앙의 성균관이 축소된 것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 즉 지방교육기관으로 사학기관이 아니고 官學이다. 반드시 孔子를 配祀하는 文廟와 明倫堂 및 東西兩齋가 있어야 한다.

이 향교가 우리나라 어느시기부터 생겼는지 향교가 창설된 년도는 정확치 않다. 문헌비고에는 고려 충렬왕때 강능 안찰사 金承印이 花浮山 硯滴巖에 창립하여 各地에서 향교가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고려사에는 그 以前인 仁宗五년에 諸州에 학교를 세우라는 기록이 있으며 또 仁宗二十二月에 地方의 생도들이 界首官鄉校에 모여 글을 지었다는 등의 기록으로 보아서는 忠烈王때는 처

음으로 향교를 세운것이 아니고 기히 있던 향교를 증수한 기록이거나 혹이며 그때까지 향교를 세우지 못했던 고을에 대한 기록으로 보이고 仁宗五(一一二七)년경에 향교의 규모를 제대로 갖추었것이 아닌가 추정이 된다.

이 제도는 高麗가 宋나라에서 직접 도입한 것인데 중국에 있어서의 향교제도의 성립은 明나라 이전 宋, 唐, 隨代로 소급되는데 隨나라시대의 향교는 제도적으로 보아 지방교육기관이며 周公과 孔子를 이상적 인간상으로 배향하고 유학이념에 입각하여 지방의 인재를 양성하였던 교육기관이다.

西歐의 교육이념상은 미래에 예상되는 철학적 관념의 인간상을 설정하였으며 중국 隨나라시대(五八一~六一八)부터 과거에 실재하였던 역사상의 위대한 인물들 이상적 인간상으로 하여 교육에 근본을 삼는 것이 東西教育理念의 차이라고 할 것이다. 고려는 정치와 교육의 일원화 이론과 실천의 일원화 학문과 생활의 일원화를 지향하는 중국의 학교제도를 그대로 도입한 것이다. 중국의 향교제도는 唐나라에 들어와서 正統儒學의 北學派와 道敎의 색채가 짙은 南學派의 學理를 조정하여 「五經正義」를 하여 儒學經書의 統一을 보았으며 宋나라에 이르러서 性理學이 크게 발전하게 되었으니 고려에서는 性理學을 社會改革의 이념으로 하였다. 先聖先師를 배향하고 지방의 인재를 유학의 이념에서 양성하게 된 것이다. 고려가 말기에 접어들면서 더더욱 政治와 社會를 개혁하려는 의지가 여실히 매우 즉 개혁의 이념을 제시한 것중에 두드러진 것이 유학의 새로운 국면을 보이는 성리학이었다. 이 시대는 비단 문인들만이 아닌 武人들

간에도 성리학에 의한 개혁의 적극성을 보이게 되었다.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이 건국하면서 가일층 향교교육이 확충된 것도 여기에 원인이 되어 정책적 방향의 한가지였다.

조선창업의 주역들은 고려가 말기에 사양길로 접어들게 된 이유중에 하나가 불교제의 타락이 원인하여 民風禮俗이 붕괴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고 조선조는 모든 예제와 백성의 풍습을 유학적 측면에서 정립하기 시작하게 되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더욱이 중앙에 성균관과 四學 그리고 전국 각지에 향교의 기강을 재정립하여 崇儒主義에 입각한 교화를 통하여 국왕의 기반을 확고히 하려한 것이다.

조선 太祖는 건국원년에 大小臣僚와 수령 방백에게 보낸 敎旨를 통하여 관혼상제는 반드시 유학경전(儒學經典)을 참작토록 하고 忠臣, 孝子, 義夫, 節婦를 장려하여 族表하도록 지시했으며 사찰의 폐단을 탄핵하였고 太宗年代에 와서 대규모 寺院汰斥을 통하여 田地와 奴婢 및 佛寺를 몰수하여 향교에 割給하는등 抑佛崇政政策을 쓰기도 했다. 한편 이러한 억불승유정신을 익히게 하며 유학의 이념에 맞는 民風을 순화토록 하고 사회문화의 심층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유학의 이념에 심화하고자 한것이 바로 향교다.

향교의 성격

향교는 학교제도의 단계적 측면으로 본다면 중고등교육기관에 속한다 하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최고학부에 속하는 성균관 교제를 향교에서 수학하지 않는것은 아니다. 향교에 처음 입학할 때를 제외하고 어느 시기에 들어

가면 성균관과 교재가 다른 것은 별로 없지만 성균관과 차이는 심층연구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다르다 할 것이다. 즉 성균관에서 배우는 교재보다 정도가 낮은 것은 아니고 성균관에 입학하여 공부하려면 반드시 小科(生員, 進士科)에 합격해야 하며 小科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향교에서 수학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성균관에 비해서 한단계 낮은 교육기관이라고 하는 것이다. 향교에 입학하는 연령은 一六세로 하여 양반이나 양인의 자제들은 향교에 입학하기 전에 이미 私塾이나 書堂을 通하여 기초학문을 익히게 하였다. 사숙이나 서당이 반드시 향교에 예속된다거나 그 하급교육의 필수적인 官立教育機關은 아니다. 그러나 향교에 입학하려면 일정한 기초교육은 이수한 자로 선정하기 때문에 향교가 이들 서당이나 사숙보다는 한단계 위에 있는 교육기관인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교육내용은 앞서 말한대로 정부는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유학이념에 입각하여 수련된 사람을 채용하였고 그러기 위해서 향교에서는 그 인재를 양성하는 한편 해당 지방민을 유학으로 교화시키기 위하여 유학과 관련없는 교육은 일체 시키지 아니하였다.

또 운영적인면을 살펴보면 성균관을 국립으로 본다면 향교는 공립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때문에 정부의 지시와 감독을 받도록 법제화되어 있어 교육행정은 禮曹의 소관이고 교관의 임명은 史曹의 권한이었으며 일차적인 일선책임은 수령이 지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財源은 地方官府의 재원에서 충당하게 되어 있었다.

다음으로 향교를 기능명으로 보면 단순한

학생교육만이 목적이 아니고 민간교화에도 증추역할을 했다. 고려시대에는 불교에 뿌리깊이 박힌 목민을 유학이념적으로 사회질서를 정립하는데 좋은 기관이 되었고 조선 중엽이후는 특히 국난과 병난에 혼란해진 사회를 교화하고 회복하는데 이용되었고 문화의 중심기관도 되었다. 그리하여 지방수령의 기본업무가 되는 守令七事中에 修明學敎가 가장 중요한 업무로 되어 있었다.

라. 교관(敎官)과 교생(校生)

교관은 조선건국 후부터 경국대전이 완성된(世朝~成宗) 시기까지는 고려 말기의 제도를 그대로 계승하면서 뚜렷한 직제가 확립되지 못하고 체제, 자격, 명칭등이 형편에 따라 변동이 있었다.

조선래조때는 향교의 교관으로 六품이상의 교수(敎授)와 七품이하의 훈도(訓導)가 있었다가 태종때 와서는 敎導官이 있었다. 要는 국초에 財政과 人才의 不足이 원인이라 하겠다. 지방행정단위가 되는 州, 府, 郡, 縣에 각각 一개의 향교를 두게 되었는데 전국에 파견할 만큼 교수나 훈도가 양성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大科(文科)에 합격하지 못하고 小科(生員, 進士)에 머물러 있는 사람을 敎導라고 불렀다. 이와 같이 小科에 머물러 있는 사람까지 選定하여 敎導를 파견한다해도 부족한 사태가 있어 學長을 選任하기까지 되었는데 學長이란 그 지방에서 「通經老成之士」 중에서 관찰사가 선임하는 관료가 아닌 민간으로서의 교관이 있었다. 즉 직책은 공직이나 신분은 민간인이고 따라서 봉급이 없

고 학도의 면학을 지도하는 뜻으로 부역을 면제받는 정도에 그쳤다. 요약해 말하면 군, 현까지 파견할 관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郡), 목(牧)에는 중앙에서 파견하고 군(郡), 현(縣)에는 학장으로 대체하여 생도를 지도하게 하였다. 그러다가 경국대전이 완성되고 국가의 모든 기강이 확립된 후에는 교관의 명칭이 교수관(敎授官) 훈도관(訓導官)으로 고정된 것이다. 또 訓導官도 이후부터는 교수 교관에 못지않은 활약을 했다.

그러나 다시 중기에 접어들면서 병난을 겪은 후부터 다시 학장으로 하여금 향교교육을 지도하게 하고 학장들의 감독에는 향교제도관(鄕校提督官 = 一名敎養官)을 두게 된 경우가 생겼는데 이것이 바로 선조대왕때 임진왜란 직후부터의 일이다. 관원의 연령은四十세부터七十세로 한정하였다. 이것은敎生이 향교에 머물 수 있는 상한연령이四十세이기 때문에 교생보다는 연장해야함과 직결된 것이다.

경국대전에 교관의 정원을 보면 교수는七十二명 훈도二五七명 도합三二九인데 비해 전국 牧府郡縣의 수는 교관정수에 훨씬 초과하기 때문에 역시 지방출신중에 학장一名을 선임 채용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다가 英祖二十년에 완성된 續大典에는敎官에 대한 규정이 消滅되기도 하였다. 敎官의 임기는 九百일(三〇개월)로 되었고 제독관의 임기도十개월간이었다. 다만 學長을 관료가 아니기 때문에 임기나 전근이 없었다.

교생(校生)의 제도는 자격, 정원, 특전등으로 분류해서 알아보면 첫째 자격에 대하여 연령, 학력, 신분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연령은 조선 태종때는十세 이상이면 향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하였다가 성종이후 모든 법전에는一七세로 규정하였기 때문에 이후 조선말기까지一七세 미만의 자는 향교에 와서 공부할 수 없었되 定員數에 算入되지 않고 일종의 청강생 대우로 공부할 수 있었으며 상한연령四十세는 법전의 규정은 없지만 조선 세조七년에 예조에서 규정한四十세가 지속되어 왔다.

다음 입학할 학력규정은 조선 초기에는 학력제한에 대한 조치가 보이지 않으나 宣祖때 栗谷 李珥가 作成한 「學校模範」에 「글을 아는 사람」이라고 규정하였고 仁祖때 趙翼이 撰進한 「學校節目」에 小學을 시험하여 粗以上(等級이 純, 通, 略, 粗不通 등 五급으로 나뉨)이면 입학시킨다고 되어 있다.

다음 사회적 신분 자격을 보면 법제상 명시는 없으나 과거에 응시할 수 있는 신분적 자격을 소지한 자는 당연하다. 쉽게 말하면 조선조의 武科응시는 신분상 규제가 그리 엄격하지 않았으나 文科에 응시할 수 있는 신분은 양반이나 良人의 자제에 한정되어 있다고 하겠다.

다음 학생의 정원은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와 변동이 있었다. 향교가 소재한 官府의 大小에 따라 책정하였는데 太宗六년에 留守官 향교에는五〇명, 牧과 大都護府 및 도호부에는四〇명, 郡에는三〇명, 縣에는一五명이었다. 成宗때 와서 대폭 증원하였는데 牧, 대도호부에는九〇명, 도호부에는七〇명, 府에는五〇명, 縣에는三〇명으로 변동되어 조선말기까지 내려왔는데 향교에 입학하려는 희망자 수가 증폭된 시기도 있었는

데 이때 정원이외의 입학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정원의 수효는 액외생(額外生)이라고 하였고 정원안에 들어간 수효는 額内生이라고 하였다.

또 향교에 입학된 학생에게 주어지는 특전으로는 무상교육 응거(應舉)의 자격, 生員進士시험때 初試의 면제, 군역(軍役)의 면제 등이었다. 그리고 향교마다 학전(學田)을 두고 거기에서 소득된 수입으로 향교교육에 필요한 시설비, 숙박시설, 교관의 봉급등을 국가가 부담하고 學奴婢를 통하여 마련하고 야간의 독서등유 서책의 구입등도 학전에서 충당되었다.

과거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향교에 입학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 준비를 향교밖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향교명부(학적부에 해당함)에는 등재되어 있어야 하고 또 매년 六월에 도회(都會)에서 성적이 생원진사 초시의 면제를 받았다.

군역의 면제란 조선시대에 문반(文班)을 중요시 여겼고 또 향교생중에서 문과출신자를 기대하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향교에서 수학하는 기간에는 군역의 면제를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조선말기에 와서는 이 특전을 악용하여 학업에 진취도 없고 뜻도 없으면서도 군역의 면제를 받기 위하여 향교에 적을 두고 있는 사례가 많아지자 정부는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하여 낙강충군제(落講充軍制)라고 하여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시험에 낙방하는 자는 군역에 충원시키게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 한층 더한 것은 정기시험에 낙방되지 않으려고 수령이나 교관

에게 금품을 상납하고 考講을 회피하는 부조리가 생기게 되었다. 정부는 이것을 완전히 합법화해서 인조 연간에 들어와서는 納粟免講制라 하여 일정액의 상납을 받고 묵인하여 정부의 궁핍한 재정에 보충하기 시작한 것이 거의 말기까지 존속되어 향교교육의 파행을 초래하게 되었다.

교과교육

향교교육의 목적이 관료의 양성과 유학이념에 따른 민중교화이었기 때문에 교육과목 역시 목적달성에 필수적인 과목을 교육시키게 된 것이다. 그 때문에 거의가 유학경전이 주과목이고 도덕규범을 아꼈다. 소학, 사서, 오경, 성리대전, 삼강행실, 이륜행실, 효경, 심경, 군사록, 통감, 諸史, 諸說, 향약, 가례 등이었다.

교육일정에 대하여는 구체적 규정없이 연중무휴인데 다만 국가고시의 행사기간과 그 외 천재지변이 있거나 가장 바쁜 농번기와 흉년으로 인해 기근이 심할때 수령이나 관찰사가 상주하여 허가를 받아서 필요기간에 한해서 방학을 실시했다.

향교의 운영과 교육비의 재원

조선시대의 향교의 재정은 鄕校田과 鄕校奴婢에 의한 收入에 의존해 왔다. 즉 향교전에는 제향에 쓰이는 位田 또는 祭田과 교육에 쓰이는 學田(一名 學位田, 校田, 鄕校廩田)이 있었는데 이상의 土地와 노비는 원래부터 있

기는 하였지만 일정한 규정에 의하여 책정되기는 태종때 부터였다. 태종六年 七月에 제정한 位田과 學田의 내용은 제전의 경우 留守官, 牧, 大都護府는 六結 도호부와 군은 교수가 있으면 一五結, 교수가 결원이면 十結로 책정시행하여 오다가 세종二十七年에 제전을 加給하게 되었는데 유수관으로 一五結, 목과 대도호부는 十結로 정하였다. 반면에 학전은 세월이 경과함에 따라 줄어들었는데 成宗때 이르러 도호부 이상의 향교에는 十結, 군에는 七結, 현에는 五結로 하였으며 그후 다시 英祖때 이르러 도호부 이상에는 七結, 군 이하의 향교에는 모두 五結로 각각 줄었다.

다음 향교노비에 관하여는 역시 이전에는 일정한 戶員이 없다가 태종 一三년에 정식으로 책정하였는데 그 내용은 留守官에 二〇戶, 大都護府와 牧에는 一五戶, 都護府에 十戶 郡에 七戶, 縣에 五戶로 하였다가 태종一七년에 증가하여 유수관에 三〇호, 목과 대도호부에 二五호, 도호부에 二〇호, 군에 一五호, 현에 十호로 하였다가 경국대전제정 당시 군향교 한해서만 五명을 감소하고 그외는 별다른 변동없이 지속되어 내려왔으나 실제상으로는 다소 감원된 것이 사실인데 이것은 학전(學田)의 감소에 따른 것이었다.

(1) 東 廡

① 薛聰 : [신라] 경덕왕 때의 학자. 자는 聰智, 호는 永月堂, 慶州薛氏 시조, 元曉大師의 아들, 어머니는 搖石宮公主, 신라 十賢의 한 사람으로 벼슬은 翰林을 지냈고 주로 왕의 정치에 자문 역할을 했다.

儒學과 문학을 깊이 연구한 학자로서 일찍이 國學에 들어가 학생들을 가르쳐 유학의 발전에 기여했으며, 그가 창제한 중국 문자에 토를 다는 방법은 당시 중국학문의 섭취에 커다란 도움이 되었다. 吏讀을 창제했다고 하나 그가 생존하기 전인 眞平王(五七九~六三一)때의 童謠 善德女王(六三二~六四七)때의 風謠 등이 이두로 기록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그가 창제한 것이 아니라 집대성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花王戒>로써 신문왕을 충고한 일화가 전한다. 一〇二二년(현종十三) 弘儒侯에 추봉되고 文廟에 配享, 경주의 西嶽書院에 祭享

② 安珣 : 一二四三(고종三十)~一三〇六(충렬왕 三十二) [고려] 명신·학자·초명은 裕, 자는 土蘊, 호는 晦軒 본관은 順興, 密直副使 孚의 아들 一二六〇년(원종十一) 三別抄의 난때 江華에 억류되었다가 탈출, 監察御史가 되었다. 一二七五년(충렬왕十一) 尚州判官으로 나갔을때 민증을 현혹시키는 무당을 엄중히 다스려 미신을 타파했고, 版圖佐郎·殿中侍御史를 거쳐 國子司僕에 올랐다. 一二八八년(충렬왕十四) 右司議左

承旨·征東行省員外郎을 거쳐 高麗儒學提舉가 되어 왕과 공주를 호종, 원나라에 들어가 朱子全書를 배껴 쓰고 돌아와 朱子學을 연구했다. 一二三四년 同知密直으로서 東南道兵馬使가 되어 合浦鎮에 부임했고, 이어 密直司使를 거쳐 一二九六년 三司左使 僉議參理 世子貳保를 역임했다. 一二九八년 충선왕이 즉위하여 관제를 개혁하자 參機務行東京留守 集賢殿大學士 難林府尹, 僉議參理 修文殿大學士 監修國史가 되고 그해 太上王이 된 충렬왕을 따라 원나라에 다녀왔다. 이어 충렬왕이 복위한 이듬해 修國史, 一三〇四년 僉議侍郎贊成事判版圖司事가 되었다. 한편 文教의 진흥을 위해 瞻學錢이라는 育英財團을 설치했으며, 國學大成殿을 낙성하여 공자의 초상화를 비치하고 祭器·樂器와, 六經·諸子·史 등의 서적을 사들였다. 密直副使致仕 李愔과 典法判書 李璘을 천거하여 經史教授都監使로 임명케 했다. 이로써 유학이 크게 떨치게 되어 우리나라 최초의 朱子學者로 지칭된다. 都僉議中贊으로 致仕했다. 文廟 및 長瑞의 臨江書院, 谷城의 晦軒影堂, 順興의 紹修書院에 祭享, 시호는 文成

③ 金宏弼 : 一四五二(단종二)~一五〇四(연산군一〇) 조선 학자.

자는 大猷 호는 寒暄堂·襄翁, 본관은 서흥(瑞興), 司勇 紐의 아들, 漢陽 출신, 金宗直의 문하에서 小學을 읽고 스스로 小學童子라 일컬었다. 一四八〇년(성종十一) 司馬試

에 합격, 斥佛을 상소했고, 一四九四년(성종二十五) 行誼로 추천을 받아 南部參奉이 되고, 이어 典牲署參奉·軍資監主簿·監察 등을 거쳐 一四九七年(연산군三) 刑曹佐郎이 되었다. 一四九八年 戊午史禍 때 김종직 일파로 몰려 熙川에 유배, 후에 順川으로 移配되었으며, 一五〇四年 甲子士禍 때 賜死되었다. 평소 大經연구에 전심, 性理學에 통달했으며, 문하에서 趙光祖·李長坤·金安國 등 학자들이 나왔으며, 그림에도 능했다.

증종 때 우의정에 追贈, 광해군 때 전국 儒生의 상소에 의해 鄭汝昌·조광조·李彦迪, 李滉과 함께 文廟에 配享, 牙山의 仁山書院, 서흥의 花谷書院 등에 祭享, 시호는 文敬, 著書:〈寒喧堂集〉,〈家範〉,〈景賢錄〉.

④ 趙光祖: 一四八二(성종十三)~一五一九(증종十四) [조선] 학자

문신. 자는 孝直靜庵, 본관은 漢陽, 監察元綱의 아들, 十四세 때 魚川道察訪으로 부임하는 아버지를 따라서 熙川에 유배중인 金宏弼에게 修學, 이때부터 性理學 연구에 힘써 金宗直의 學統을 이은 士林派의 領袖가 되었다. 一五一〇년(증종五) 進士가 되고, 一五一五年 造紙署司紙로 謁聖文科에 乙科로 급제, 典籍 監察을 역임하며 왕의 신임을 얻고, 入侍할 때마다 儒敎로써 정치와 敎化의 근본을 삼아 王道政治를 실천해야 한다는 治主義를 역설했다. 그해 正言으로서, 章敬王后가 죽고 증종의 제비 책봉문제가 논의될 때 朴祥·金淨 등이 앞서 폐위된 愼氏의 복위를 상소하다 대사간 李荇의 탄핵으로 유배되자 상소자를 벌함은 言路를 막는 결과가 되어 국가의 존망에 관계된다고 주장, 오히려 이

행을 파직케 함으로써 그에 대한 왕의 신임을 입증 받았다. 그후 修撰에 이어, 호조·예조의 正郎을 거쳐 一五一七年 校理로 經筵侍讀官·春秋館記注官을 겸임, 鄉村의 상호 및 부조를 위해 呂氏鄉約을 八도에 실시케 하였다.

이듬해 副提學이 되어 미신타파를 내세워 昭格署의 폐지를 강력히 주창,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이를 없애게 했다. 一五一九년 대사헌에 승진 世子副賓客을 겸했으며, 賢良科를 실시하여 자기 일파의 新進士類, 특히 三十대의 소장학자를 요직에 안배하는 한편, 勳舊派를 외직에 몰아냈고, 특히 靖國功臣이 너무 많다하여 削勳을 주장, 전공신의 四분의 三을 삭제하는 등 급진적인 개혁을 단행하여 마침내 肅宗과의 결정적인 반발을 야기했다. 肅宗과의 洪景舟·南哀·沈貞 등은 敬嬪朴氏등 후궁을 움직여 왕에게 신진사류를 무고하게 하고, 대궐 나뭇잎에 과일즙으로 「走肖爲王」이란 글자를 써 벌레가 갉아 먹게 한 다음에 궁녀로 하여금 이를 따다 왕에게 바쳐 의심을 조장시키는 한편, 밤에 神武門을 통해 비밀리에 왕을 만나서 위협에 가까운 論調로 조광조 일파가 당파를 조직, 조정을 문란케 한다고 무고했다. 이에 조광조의 道學的인 언행에 염증을 느껴 오던 왕은 그를 투옥, 영의정 鄭光弼의 변호로 일단 사형이 면제되었으나 綾州에 유배, 肅宗과의 끈덕진 공격으로 마침내 賜死되었다. 선조초 伸寃되어 영의정에 追贈, 文廟에 配享되고, 능주의 竹樹書院, 楊州의 道峯書院, 회천의 兩賢祠등에 祭享, 시호는 文正

著書:〈靜庵集〉

⑤ 李滉 : 一五〇一(연산군七)~一五七〇(선조三) [조선] 학자

문신, 초명은 瑞鴻, 자는 景浩, 초자는 季浩, 호는 退溪·陶翁·退陶·靑涼山人, 본관은 眞寶, 進士 埴의 아들, 禮安 출신 十二세 때 숙부 李堦에게서 학문을 배웠고, 一五二三年(중종十八) 成均館에 입학, 一五二八(중종二十三) 進士가 되었다. 一五三四(成化十) 文科에 乙科로 급제, 副正字, 博士, 典籍, 戶曹佐郎 등을 거쳐 一五三九(明宗十四) 修撰으로 知製敎, 檢討官을 겸직했다. 이어 正言을 거쳐 형조좌랑으로 承文院校理를 겸직, 一五四二(明宗十七) 檢詳이 되고 忠淸道 暗行御史를 거쳐 舍人으로서 文學·校勘 등을 겸직, 掌令을 지낸 뒤 이듬해 司藝, 弼善, 이어 大司成이 되었다.

一五四五(明宗 즉위) 乙巳士禍에 李崐에 의해 削職당했으나 이어 司僕寺正이 되고 一四五七(明宗 十二年) 應敎를 거쳐 이듬해 丹陽과 豊基의 군수, 一五五二(明宗 二十七年) 대사성에 재임, 一五五四(明宗 二十九年) 형조·명조의 參議에 이어 僉知中樞府事, 一五五六(明宗 三十一年) 副提學, 二年後 工曹參判, 一五六六(明宗 四十一年) 공조판서, 이어 예조판서, 一五六八(明宗 四十三年) 右贊成을 거쳐 兩館, 大提學을 지내고 다음해 고향에 은퇴했다. 주자학을 집대성한 대유학자로 李珣와 함께 유학계의 쌍벽을 이루었으며, 誠을 기본으로 일생 동안 敬을 실천하고 면밀 침착히 조목을 따져 깊이 연구 통찰함을 학문의 기본 자세로 했으며 朱子의 理氣二元論을 발전시키고, 理氣互發說을 사상의 핵심으로 하여 理가 발하여 氣가 이에 따르는 것이 四端이며, 기가 발하여 이가 이것을 타는 [乘] 것이

七情이라고 주장, 四端七情을 주제로 한 奇大升과의 八년에 걸친 유명한 논쟁은 四七分理氣與否論의 발단이 되었고 그의 학풍은 뒤에 그의 이원론을 반박하고 나선 李宜의 畿湖學派에 대하여 嶺南學派를 이루어 뒤의 동성 당쟁의 두 학파의 대립과도 관련이 깊었다. 豐基郡守로 있을 때 교육사업에 관심을 두어 周世鵬이 세운 白雲洞書院에 紹修書院이라는 사액을 내리게 하여 최초의 賜額書院으로 했고, 또한 陶山書院을 창설하여 후진양성과 학문의 연구에 전심하여, 朋黨의 폐해를 상소하는 등 업적을 남겼으나 현실생활과 학문의 세계를 엄격히 구분하여 끝까지 학자의 태도에만 철저했다. 詩文은 물론 글씨에도 뛰어났다. 겸허한 성격의 대학자로서 중종·명종·선조의 지극한 존경을 받았으며, 특히 명종은 누차의 소명에도 사양하는 그를 그리워 하여 그의 居所인 陶山의 경치를 화공에게 模寫시켜 병풍을 만들어 두르고 바라보았다. 영의정에 追贈, 文廟 및 선조의 묘정에 配享, 단양의 丹巖書院, 괴산의 華巖書院, 예안의 도산서원을 비롯, 전국의 수십개 서원에 제향, 시호는 文純, 著書 : <退溪全書> <修正天命圖說> <聖學十圖> <自省錄> <朱書記疑> <心經釋疑> <宋季之明理學通錄> <古鏡重磨方> <朱子書節要> <理學通錄> <啓蒙傳疑> <經書釋義> <喪禮問答> <戊辰封事> <退書節要> <四七續編>

⑥ 李珣 : 一五三六(중종三十一)~一五八四(선조十七) [조선] 학자

문신. 아명은 見龍, 자는 叔獻, 호는 栗谷·憂齊, 본관은 德水, 察訪 元秀의 아들, 어머니는 師任堂 申氏, 江陵 출신. 어려서 어

머니에게 학문을 배우고 一五四八년(영종三)三十세로 進士初試에 합격, 十六세에 어머니를 여의고 十九세에 금강산에 입산 佛書를 연구하다가 다시 儒學에 진심하여 二十三세 때 李滉을 찾아가 만났다. 一五六四년(명종十九)生員試 式年文科에 모두 장원, 九度壯元公이라 일컬어졌다. 賜暇讀書한 후 戶曹佐郎에 초임, 예조좌랑·正言·이조좌랑·持平등을 역임했다.

一五六八년(선조一)千秋使의 書狀官으로 명나라에 다녀왔고, 副校理로 春秋館記事官을 겸하여 <明宗實錄> 편찬에 참여했다가 이듬해 사직했다. 一五七一年 청주목사로 복직, 다음해 다시 사직하고 해주에 낙향, 一五七三년 直提學이 되고, 이어 同副承旨로서 參贊官을 겸직, 다음해 右副承旨·兵曹參知·대사간을 지낸 후 병으로 사퇴했다. 그후 황해도 관찰사에 임명되었으나 다시 사직, 울곡과 석담에서 학문연구에 전심하다가 一五八一年 다시 불러 대사헌·藝文館提學을 겸임, 同知中樞府事를 거쳐 兩館大提學을 지냈다. 이듬해 이조·형조·병조의 판서, 右參贊을 역임, 一五八三年 당쟁을 조장한다는 東人들의 탄핵을 받고 사직했다가 같은해 判敦寧府事에 등용, 이조판서에 이르러 東西分黨의 조정을 위해 힘쓰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죽었다.

조선유학계의 이황과 쌍벽을 이루는 학자로 畿湖學派를 형성했고, 章句의 분석적 해설보다 근본원리를 자유롭게 종합적으로 통찰함을 학문으로 연구하는 태도로 했으며, 이황의 理氣二元論에 대하여 氣發理乘一途說을 근본사상으로 理通氣局을 주장, 이 사

상의 차이가 당쟁과 관련되어 오랫동안 논쟁의 중심이 되었다. 학문을 민생문제와 직결시켰고, 당쟁의 조정, 十만군대의 養成 및 大同法과 社會의 실시에 노력하는 등 많은 활약을 하였다. 글씨에도 능하여 趙子昂의 체를 습득했으며, 그림에 뛰어났다. 문묘에 從祀, 선조의 묘정에 배향, 坡州의 紫雲書院, 江陵의 松潭書院, 豐德의 龜巖書院, 瑞興의 花谷書院, 咸興의 雲田書院, 黃州의 白洞書院 등 전국 二十여개 서원에 배향, 시호는 文成.

著書 : <栗谷全書> <聖學輯要> <擎蒙要訣> <小學集注改本> <中庸吐釋> <經筵日記> 등

⑦ 金長生 : 一五四八(명종三)~一六三一(인조九) 조선 학자. 자는 希元, 호는 沙溪, 본관은 光山, 대사헌 繼輝의 아들. 宋翼弼·李珥의 문인. 一五七八년(선조十一)學行으로 천거되어 六品직에 오르고 昌陵參奉·順陵參奉 등을 거쳐 童蒙教官·定山縣監을 지냈다.

一五九二年 임진왜란 때 戶曹正郎으로 명나라 군사의 구량 조달에 공을 세웠고, 軍資監僉正, 一五九七年 南陽府使 등을 역임, 이듬해 안성군수로 있다가 柳成龍의 천거로 宗親府典簿가 되었다. 一六〇二年(선조三十五)清白史에 錄選, 三年 후 益山군수를 지내고 一六〇九年(광해군一) 淮陽·鐵原의 府使를 역임. 一六一三年 癸丑獄事에 심문 받았으나 무혐의로 누명을 벗은뒤 관직을 사퇴 連山에 은퇴하여 학문연구에 전심했다. 一六二三年 仁祖反正으로 掌令에 보직, 司僕 尚衣院正 등을 거쳐 이듬해 執義·工曹參議·

副護軍을 지냈다. 그 후 다시 사퇴, 낙향했다가 특명으로 一六二五년 同知中樞府事가 되고 다음해 行護軍에 보직, 一六二七년 정묘호란 때에는 兩湖號召使로 군량미 조달에 힘쓰며 청나라와의 화의에 반대했다. 이듬해 刑曹參判에 임명되었으나 사퇴, 향리에서 교육에 전심했다. 송익필의 문하에서 禮學을 傳受받고, 후에 이이의 문하에서 性理學을 배웠으며, 禮論을 깊이 연구, 아들 集에게 제승시켜 朝鮮 禮學의 대두로 예학파의 주류를 형성했다. 문하에 송시열(宋時烈)·宋浚吉 등의 유학자를 배출, 西人을 중심으로 한 畿湖學派를 이룩하여 조선 유학계에 嶺南學派와 쌍벽을 이루었다. 一六八八년(숙종十四) 문묘에 배향되고 안성의 道基書院, 連山の 適巖書院 등 십개 서원에 제향, 시호는 文元. 著書: 〈經書辨疑〉〈近思錄釋疑〉〈疑禮問解〉〈書疏雜錄〉〈家禮輯覽〉〈喪禮備考〉〈改葬儀〉〈祭儀正本〉〈禮記記疑〉〈松江行錄〉〈沙溪筵席問對〉〈沙溪疏割〉〈沙溪語錄〉.

⑧ 金集 : 一五七四(선조七)~一六五六(효종七) [조선] 문신. 자는 士剛, 호는 慎獨齋, 본관은 光山, 장생의 아들. 十八세에 進士가 되고 一六一〇년 參奉이 되었다가 광해군의 문란한 정치로 은퇴했다. 인조반정(一六二三)후 扶餘縣監으로 등용되고, 이어 臨陂縣令·持平·執義·工曹參議 등을 역임, 인조중기 이후 功西가 집권하자 퇴직했다. 효종이 즉위하여 공서의 영의정 金自點 등이 파직되자 清西의 金尚憲 등과 함께 등용, 禮曹參判·대사헌을 거쳐 이조판서가 되어 효종과 함께 北伐을 계획했다. 이때 실각

한 김자점이 청나라에 이 특별제책을 밀고함으로써 야기된 청나라의 문책으로 정국이 어수선해지자 사임, 그 후 대사헌·左贊成을 지내고 判中樞府事로 죽었다. 그는 아버지의 학문을 계승, 이를 더욱 깊이 연구하여 禮學의 체계를 세웠다. 文廟 및 효종의 묘정에 배향되었다. 시호는 文敬.

「著書」: 〈慎獨齋遺稿〉

⑨ 宋浚吉 : 一六〇六(선조三十九)~一六七二(현종十三) [조선] 문신 학자. 자는 明甫, 호는 同春堂, 본관은 思津, 爾昌의 아들. 어려서 李珥문하에서 공부하고 二十세때 金長生의 문하생이 되었다. 一六四二년(인조二) 진사가 된 뒤 학행으로 천거 받아 洗馬로 임명되었으나 사퇴하고 계속 학업을 닦았다. 西人중 清西派였던 그는 一六四九년 효종이 즉위하자 執義로 기용되어 인조말부터 권세를 잡고 있던 功西波 金自點을 탄핵, 파면케 하여 청서파의 집권을 가져오게 했다.

한편 효종과 함께 北伐계획을 적극 추진했으나 김자점이 청나라에 밀고함으로써 좌절, 벼슬에서 물러났다. 그 후 史曹參議겸 贊善 등으로 여러번 임관되었으나 계속 사퇴, 一六五七년(효종八) 찬선직에 머무르다가 이듬해 사퇴, 낙향했다. 대사헌을 거쳐 一六五九년 병조판서가 되어 宋時烈과 함께 국정에 참여하던 중 효종이 죽고 현종이 즉위, 慈懿大妃의 服喪問題로 禮訟이 일어나자 송시열과 함께 南人 尹善·尹善道 등의 三년(만二년) 제를 반대하여 基年制(만一년)를 주장, 논란을 거듭하던 끝에 승리하여 右參贊을 거쳐 이조판서가 되었으나 곧 사퇴했다. 一六六五년 元子輔養에 대한 건의를 하여 첫번째

보양관이 되었으나 기년제의 잘못을 규탄하는 남인들의 거듬되는 상소로 사퇴했다. 뒤에 左參贊兼 祭酒贊善에 이르렀다. 송시열과 학문적 경향이 같은 性理學者로서 특히 禮學에 밝았고 李珣의 학설을 지지했다. 문장과 글씨에도 능했다. 文廟를 비롯하여 公州의 忠顯書院, 沂川의 表忠祠, 懷德의 崇顯書院 등에 祭享, 영의정에 追贈, 시호는 文正.

「著書」: 〈同春堂集〉〈語錄解〉

(二) 西 廬

① 崔致遠: 八五七(현안왕一)~?[신라] 학자. 慶州崔氏의 시조. 자는 孤雲·海雲, 八六九년(경문왕九) 당나라에 유학하여 八七四年 과거에 급제하고, 宣州溧水縣尉가 되고 承務郎 侍御史 內供奉에 올라 紫金魚袋를 하사받았다.

八七九년(현강왕五) 黃巢의 난에 諸道行營兵馬都統 高駘의 從事官으로 書記의 책임을 맡았다. 당시의 表狀·書啓·적문은 모두 그의 손으로 지어졌으며 특히 〈討黃巢檄文〉은 名文으로 알려졌다. 八八五年에 귀국하여 侍讀 兼 翰林學士守兵部侍郎知瑞書監이 되었으나 국정의 문란함을 통탄, 외직을 청원하여 大山·天嶺·富城등의 太守를 지냈다.

八九三年(진성여왕七) 遣唐使에 임명되었으나 도둑이 횡행하여 가지 못하고 이듬해 時務十여條를 상소하여 시행케 하고 아찬이 되었다. 그후 亂世를 비판하여 각지를 유랑하다가 가야산 海印寺에 들어가 여생을 마쳤다고 하는데 특히 글씨를 잘 썼다.

그의 〈覽郎碑序文〉은 신라시대의 화

랑도를 해설해 주는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고려 현종 때 內史令에 추증, 문묘에 배향, 文昌侯에 追封되었다. 조선시대에 泰仁의 武成書院, 慶州의 西嶽書院, 咸陽의 栢淵書院, 永平의 孤雲影堂 등에 제향.

「著書」: 〈桂苑筆耕〉〈中山覆篋集〉〈釋順應傳〉

② 鄭夢周: 一三三七(충숙왕 복위六)~一三九二(공양왕四) [고려] 문신 학자. 초명은 夢蘭·夢龍, 자는 達可, 호는 圃隱, 본관은 延日 樞密院知奏事 襲明의 후손 云瓘의 아들. 永川 출신으로서 一三五七(공민왕六) 監試에 합격한 뒤 一三六〇년 文科에 장원, 藝文檢閱 修撰 등을 거쳐 一三六三년 郎將 兼 閣門紙候 衛尉寺丞을 역임한 후 이해 東北面 都指揮使 韓邦信의 從事官으로 여진족의 토벌에 참가하고, 一三六四年 典寶都監判官이 되었다. 이어 典農寺丞·禮曹正郎 兼 成均博士·成均司藝 등을 역임하고, 一三七一年 太常少卿 寶文閣應敎 兼 成均直講 등을 거쳐 成均司成에 올랐으며, 이듬해에 正使 洪師範의 書狀官으로 명나라에 다녀오던 중 풍랑으로十三일 동안 사선을 헤매다가 명나라 구조선에 구출되어 귀국했다. 一三七六年(우왕二) 成均大司成으로 李仁任등이 주장하는 排明親元の 외교방침을 반대하다 彦陽에 유배, 이듬해 풀려나와 사신으로 兪우슈우(九州)의 지방장관 이마가와 「今川了後」에게 가서 왜구의 단속을 청하여 응낙을 얻고 왜구에게 잡혀간 고려 백성 수백명을 귀국시켰다. 우산기장시·보문각제학·지제교를 거쳐 一三七九년 전공판서·진현관제학, 예의판서·예문관제학, 전법 판서·판도판서를 역임.

이듬해 助戰元師가 되어 李成桂 휘하에서 왜구토벌에 참전하고 이어 밀직제학·상의회의도삼사·보문각제학·상호군이 되었다. 一三八一년 誠勤翊贊功臣에 봉해지고 이듬해 명나라에 사신으로 가다 입국거부로 遼東에서 돌아왔고, 一三八一년 東北面 助戰元師로서 함경도에 쳐들어온 왜구를 토벌, 다음해 政堂文學에 올라 聖節使로 명나라에 가서 歲貢의 삭감과 五년간 이남한 세공을 면제받고 긴장상태에 있던 對明 국교를 회복하는 데 큰 공을 세웠다. 一三八六년 三司左使, 門下贊成事·知書筵事, 이듬해 예문관대제학, 문하찬성사가 되어 이성계와 함께 공양왕을 迎立하고, 一三九〇년 벽상삼한 삼중대광·수문하시중·판도평의사사병조상서시사·영경령전사·우문관대제학·익양군 충의백이 되었다.

당시 이성계의 威望이 날로 커가서 趙浚·南閔·鄭道傳 등이 그를 추대하려는 음모가 있음을 알고 이들을 숙청할 기회를 노리던 중, 一三九二年 명나라에서 돌아오는 세자를 마중나갔던 이성계가 사냥하다가 낙마하여 황주에 드러눕게 되자 그 기회에 이성계 일파를 제거하려 했으나 이를 눈치챈 芳遠(太宗)이 이성계를 그날 밤으로 개성에 돌아오게 함으로써 실패, 이어 정세를 엿보러 이성계를 찾아보고 귀가도중 善竹橋에서 방원의 門客 趙英珪 등에게 擊殺되었다. 지방관의 비행을 근절시키고 義倉을 세워 빈민을 구제, 불교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 유학을 보급했고 性理學에 뛰어나 東方理學의 시조로 추앙되었으며, 朱子家禮를 따라 사회윤리와 도덕의 합리화를 기하며 개성에 五부 學堂과 지방에 鄉

校를 세워 교육 진흥을 꾀하는 한편 大明律을 참작, <新律>을 간행하여 법질서의 확립을 기하고, 외교정책과 군서정책에도 관여하여 기울어지는 국운을 바로 잡고자 노력했으나 이성계의 신흥세력에 적었다. 詩文에 능하여 시조 丹心歌이외에 많은 漢詩가 전하며, 書畵에도 뛰어났다. 고려 三隱의 한 사람으로, 一四〇一年(태종一) 영의정에 추증, 益陽府院君에 追封되고, 중종때 문묘에 配享, 개성의 崧陽書院 등 十一개 서원에 제향, 시호는 文忠. 著書: 圖隱集

③ 鄭汝昌: 一四五〇(세종三十二)~一五〇四(연산군十)[조선] 문신·학자. 자는 伯弼, 호는 一蠹, 본관은 河東, 함길도 명마우후 六乙의 아들. 함양출신, 김평필과 함께 金宗直의 문인이 되고, 한동안 지리산에 들어가 三年 동안 五經과 性理學을 연구했다. 一四八三년(성종十四) 進士試에 합격, 成均館 儒生이 되고 一四九〇년에 舉行으로 천거되어 昭格署參奉이 되었다. 그해 別試文科에 丙科로 급제, 檢閱을 거쳐 世子侍講院說書·安陰縣監을 지내고, 一四九八년(연산군四) 戊午史禍로 鍾城에 유배, 죽은 뒤 一五〇四년 甲子士禍가 일어나자 剖棺斬屍가 되었다. 당시 性理學의 대가로서 經史에 통일하고 方行實踐을 위한 독서를 주로 했다. 庸學註疏·主客問答說·進修雜著 등의 저서가 있었으나 무오사화때 부인이 모두 소각, 지금은 鄭述가 엮은 文獻公實記 속에 그 遺集이 전할 뿐이다. 中宗때 우의정에 추증, 광해군 때에 문묘에 배향, 나주의 景賢書院, 尙州의 道南書院, 咸陽의 藍溪書院, 陝川의 伊淵書院, 居昌의 道山書院, 鍾城의 鍾山書院 등에 제

향, 시호는 문원. 「著書」: 〈一蠡遺集〉.

④ 李彦迪: 一四九一(성종二十二)~一五五三(명종八) [조선] 문신·학자. 자는復古, 호는晦齋·紫溪翁, 본관은驪州, 생원蕃의 아들. 초명은迪이었으나 중종의 명으로彦자를 더했다. 一五一四년(중종九) 생원으로서別試文科에乙科로 급제, 校書館正字가 되고, 說書·吏曹正郎·掌令·密陽府使를 거쳐 一五三〇년 司諫이 되었다. 이때 金安老를 등용하려는 논의를 반대하다가 그들 일당에 의해 숙청된 뒤 경주의紫玉山에 들어가서性理學의 연구에 전심했다.

一五三七년 金安老 일파가 거세되자 宗簿寺僉正으로 侍講官에 겸직 발령되고, 校理·應教 등을 거쳐 一五三九년 전주부윤이 되어善政으로 승덕비가 세워졌고 당시의災變에 대해 올린 대책문이 뛰어나서 병조참판·동지경연사에 올랐다.

副提學, 이조·예조·형조의 판서를 거쳐 경상도 관찰사·漢城府判尹이 되고 一五四五年(인종一) 인종이 즉자 左贊成으로 院相이 되어 國事를 관장했고, 명종이 즉위하자 衛士功臣 三등에 올랐다. 그해 모친의 병이 위독하여 사직했으나 원상으로 있을 당시 大尹이尹任일파의 처벌에 미온적이었다는 탄핵으로削職, 一五四七年(영종二) 등尹元衡 등小尹 일당이 조작한 良才驛壁書事件에 연루되어 江界에 유배, 配所에서 죽었다.

조선 전기의 성리학자로서 이황의 사상에 많은 영향을 주었고 유배생활 六년동안 大學章句補遺 〈續或問〉 〈求人錄〉을 저술했으며 글씨를 잘 썼다. 선조때 영의정에 추증, 광해군때 문묘에從祀, 시호는文元. 著書:

〈晦齋集〉

⑤ 金麟厚: 一五一〇(중종五)~一五六〇(명종十五) [조선] 문신·유학자. 자는厚之, 호는河西·澹齋, 본관은蔚山, 金安國의 제자로 성균관에 들어가 이황과 함께 학문을 닦고, 一五四〇년(중종三十五) 別試文科에 급제, 承文院正字에 등용되었다가 賜暇讀書했다. 후에 正字·博士·說書·剖修撰을 거쳐 부모의 부양을 위해 玉果縣令으로 나갔다. 명종이 즉위하고 一五四五年 乙巳士禍가 일어난 후에는 병을 이유로 고향 장성에 돌아가 성리학의 연구에 정진, 누차 校理에 임명되었으나 취임하지 않았다.

誠敬의 실천을 학문의 목표로 하고 李滉의理氣一物說을 반대하여理氣는 혼합해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천문·지리·의약·산수·律曆에도 정통했다. 文廟를 비롯하여 長城의 筆巖書院, 남원의 露峯書院, 玉果의 詠歸書院 등에 祭享, 시호는文正. 著書: 〈河西集〉 〈周易觀象篇〉 〈西銘事天圖〉 〈百聯抄解〉

⑥ 成渾: 一五三五(중종三十)~一五九八(선조三十一) [조선] 학자. 자는浩原, 호는牛溪·默庵, 본관은昌寧, 守璫의 아들 十七세때 監試 初試에 합격했으나 신병으로 覆試를 못치르자 과거를 단념, 白仁傑 문하에서經學연구에 정진했다. 선조 초에 학행으로 參奉·縣監·持平 등에 계속 임명되었으나 취임하지 않았고, 一五八〇년에는 掌令직을 굳이 거절하자 馬輶를 타고 상경하라는 優禮까지 받았다. 一五九二年(선조二十五)년 임진왜란 중에는 세자의 부름으로 右參贊에 오르고, 一五九四年 左參贊에 이르러 영의정

柳成龍과 함께 일본과의 화의를 주장하다가 선조의 노여움을 사게 되어 고향 파주로 돌아갔다. 일찍부터 이이와 교분이 두터웠으나 학설에 있어서는 이황의 理氣瓦發說을 지지, 氣發理乘一途說을 주장하는 이이와 一五七二년(선조五)부터 六년간에 걸쳐 四端七情에 대한 논쟁을 벌여 이이의 학설을 반박, 유학계의 큰 화제가 되었다. 이 때문에 이이의 문인인 趙憲·韓嶠·黃慎·李貴·鄭晔 등이 그의 문인이 되었으며, 글씨를 잘 썼다. 죽은 후 반대파들에 의해 한때 官爵을 추탈당했다가 인조 초에 復官, 좌의정에 추증, 문묘에 배향되고, 礪山の 竹林書院, 창녕의 勿溪書院, 海州의 紹顯書院, 咸興의 雲田書院, 坡州의 坡山書院에 祭享, 시호는 文簡. 著書: 〈牛溪集〉〈朱門旨訣〉〈爲學之方圖〉

⑦ 趙憲: 一五四四(중종三十九)~一五九二(선조二十五) [조선] 문신·의병장. 자는 汝式, 호는 重峯·陶原·後栗, 본관은 白川, 應社의 아들, 이이·成渾의 문인. 一五六七년(영종二十二) 式年文科에 丙科로 급제, 定州教授를 거쳐 一五七二년(선조五) 校書館正字로 왕이 질에 참을 하사하는 것을 반대하다 削職, 곧 著作에 등용되고, 一五七四년 質正官으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그후 호조와 예조의 佐郎, 監察을 역임하고, 通津縣監이 되어 죄인을 엄중히 다스려 藍刑한다는 탄핵을 받고 富平에 유배되었다. 一五八一년 工曹佐郎으로 기용, 全羅道都事·宗廟署令을 지내고, 一五八二年 부모 봉양을 위해 외직을 자청하여 報恩縣監으로 나갔다. 一五八六년 學制改編으로 전국에 提督官을 들때 공주 제독관에 임명되어, 당시 정권을 잡은 東人

이 이이·성혼 등을 追罪하려고 하자 이를 반대하는 상소를 하고 고향에 돌아간 사실로 인해 職場을 이탈했다는 죄로 파직당했다. 一五九一年 일본 사신이 오자 沃川에서 상경, 대궐 앞에서 일본 사신의 처단을 상소하고 일본의 침략에 대비, 국방력의 강화를 주장했으나 용납되지 않았다. 이듬해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옥천에서 의병을 일으켜 一천七백여 명을 규합, 이해 八月 靈主等 僧兵과 합세하여 淸州를 수복했다. 이어 전라도로 향하는 고바야카와(小早川隆景)의 왜군을 막기 위해 금산으로 향했으나 戰功을 시기하는 官軍의 방해로 대부분의 의병이 해산당하고 불과 七백여명의 의병으로 금산전투에 참가, 끝까지 용전하다 七백 의병과 함께 모두 전사했다.

이이의 문인 중 가장 뛰어난 학자의 한 사람으로 氣發理乘一途說을 지지하여 이이의 학문을 계승 발전시켰다. 영의정에 추증, 문묘에 배향되고, 옥천의 表忠祠, 배천의 文會書院, 금산의 星谷書院, 보은의 象賢書院 등에 祭享, 시호는 文烈. 著書: 〈重峯集〉〈重峯東還封事〉

⑧ 宋時烈: 강한사(대로사) 참조

⑨ 朴世采: 一六三一(인조九)~一六九五(숙종二十一) [조선] 문신·유학자. 자는 和叔, 호는 玄石·南溪, 본관은 潘南, 校理 獠의 아들, 漢城 출신. 十八세에 성균관에 들어갔으나 이이·成渾의 문묘종사에 대하여 반대하는 자들을 공격하다가 효종의 꾸지람을 받고는 科擧공부를 포기, 金尚憲 문하에서 주로 性理學을 연구하고 宋時烈과도 학문 교류를 했다. 二十八세에 천거로써 翊衛司洗

馬가 되고, 一六五九년 효종이 별세하여 慈懿大妃의 服喪問題가 일어나자 南人의 반대를 물리치고 西人으로 송시열과 함께 이를 養年 : (만 一년)으로 정하게 했다. 一六七四年(숙종즉위) 南人들이 집권하고 서인들이 제거됨에 따라 削官되었으나 一六八〇년 경 신대출척으로 서인이 다시 정권을 잡자 司僕에 기용, 이어 執義·同副承旨 등을 지냈으며 一六八三年 서인이 老論·少論으로 분열되자 소론의 영수가 되었다. 그후 정권은 또 남인의 손에 들어갔으나 一六九四年(숙종二四) 甲戌獄事로 少論이 집권하자 좌의정에 올랐다. 또한 당쟁에는 가담했으나 皇極蕩平說을 주장, 당쟁의 근절에 노력했고, 당대의 儒宗으로서 특히 禮學에 밝았다. 많은 저술 외에 七十여권의 文集, 논어·맹자의 纂要, 詩에 관한 要義, 신라·고려·조선에 이르는 儒賢들의 師友淵源을 수록한 책 등, 모두 후진들에게 귀중한 문헌을 남겼으며 글씨를 잘 썼다. 문묘와 숙종의 효종에 배향, 시호는 文純. 著書 : 〈範學全編〉〈南溪集〉〈六禮疑輯〉〈南溪隨筆錄〉〈南溪禮說〉〈三禮儀〉〈讀書記〉〈時務萬言封事〉〈崇孝錄〉.

이민원(국사편찬위원회 연구위원)

I. 머리말

명성황후는 어떤 인물일까? 그 동안의 일반적 인식은 대부분 부정적이었다. 사실 그럴만한 이유가 없지도 않다. 특히 임오군란이나 갑신정변을 거치면서 그러한 인식은 당시에 적지 않게 확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종래의 일본인들 서술에서 혹은 일부 국내 연구자들의 글에서 보듯이 명성황후의 일생 전체가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되어 온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가령 ‘집안을 망친 암탉’이라든가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싸움으로 점철된 한국근대사’ 같은 표현 등은 대단히 불합리하며, 사실과도 다르다. 그것은 비록 국력은 미약했으나 제국주의가 팽배해가던 냉혹한 시대에 국가의 활로를 찾기 위해 처절하게 몸부림치던 한 나라의 군주와 왕비의 존재를, 나아가 한 나라의 역사를, 일개 집안싸움으로 격하시킨 것과 다름없다.

정치적 입장에서 논한다면 명성황후는 고종의 제1의 참모격으로서 외세(특히 일본)의 침략 앞에서 쓰러져 가는 국가의 운명과 함께 파란만장한 생애를 마감하였다. 말하자면 명성황후는 군주인 고종을 대신하여 일본의 침략에 대항하다가 일본측에 의해 비극적 운명을 맞은 것이었다. 종래의 인식처럼 명성황후를 비난하자면 명성황후를 지지해 준 고종은 물론, 국모시해사건에 분개하여 봉기한 항일의병을 비난해야 할 것이고, 역시 그에 분개하여 일본 밀정(쓰치다)을 살해한 열혈 청년 김창수(후일의 김구)를, 나아가 이토요 히로부미(伊藤博文)를 사살한 안중근을 비난해야 할 것이다. 적어도 당시의 한국인들은 명성황후를 국모의 존재로 보았지, 일본인들의 서술에서처럼 ‘암탉’이나 ‘여우’로 보지는 않았다는 얘기

이다.

그렇다면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는가? 일본인들의 역사 기술에 문제가 있었고, 그것은 또한 주로 명성황후시해사건에서 비롯되었다. 필자는 명성황후와 국제 정치라는 주제를 제시받았으나, 사실 그 주제에 부합하게 논한다는 것은 필자의 능력 범위 밖이다. 실제로도 명성황후는 넓은 세계의 무대에서 외교활동이나 정치를 논했다기 보다는 주로 서울의 궁정에서 자신이 접하는 동서양의 외교관들과 궁정의 대신들을 통해 제한된 범위에서 내외의 정세를 읽고 고종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런 활동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은 역시 청일전쟁 직후, 특히 삼국간섭 직후였다. 이하 명성황후시해사건 전후의 조선정황에 초점을 두고, ① 삼국간섭 직후 조선을 둘러싼 러·일의 갈등과 명성황후의 관계, ② 그동안 고통받던 명성황후와 대원군의 관계에 대해서도 일별하고자 한다.

II. 조선왕조를 붕괴시킨 청일전쟁

1894년 6월21일(7.23) 새벽, 대원군의 가마를 앞세운 일본군 병력이 조선의 정궁(正宮)인 경복궁을 쳐들어갔다. 대원군의 쿠데타를 가장한 사실상의 전쟁 도발이었다. 왕궁을 지키던 조선의 군대가 순식간에 무너졌고, 국왕과 대신들은 당일로 연금상태에 들어갔다. 조선군도 즉시 무장해제가 되었다. 조·일간의 '전쟁'이 한 나절도 안되어 간단히 끝난 것이다. 전봉준과 농민군이 '탐관오리의 숙청'을 외치며 백산(高阜)에서 봉기한 지 불과 3개월 뒤의 사태였다. 그야말로 조선 조정으로서는 참담함 그 자체였다.

이틀 후(6월23일/7.25) 일본 해군은 아산만에 정박중인 청국 군함(濟遠號, 廣乙號, 高陞號)을 기습하여 괴멸적 타격을 입혔다. 2천의 청국병사가 그날밤 황해의 수중고혼(水中孤魂)이 되었다. 8일 뒤(7월 1/8.1) 일본은 청국에 전쟁을 선포하였다. 러일전쟁 때도, 진주만 기습 때도 '명예로운 대일본제국군'이 쓴 방식이다. 덕분에 황해의 해전은 일본군의 일방적 승리였다. 전투는 성환역(成歡驛)을 거쳐 평양, 요동반도로 확산되었다. 이홍장의 북양함대가 10년동안 막대

한 비용을 들여 구축한 여순의 요새가 속속 일본군에게 점령되었다. 전쟁을 피하려는 쪽과 달려드는 쪽의 차이였다.

한편 전라도 순창에 은신하여 재기를 다짐하던 전봉준은 피로리에서 체포되었다. (12.2/12.30) 서울로 압송된 전봉준을 일본공사가 먼저 심문하였고, 전봉준은 이듬해 처형되었다. (1895.3.29/4.23) 전봉준이 남긴 말은 이랬다.

우리가 군사를 일으킨 일은 생각하지 않게 그 매개가 되어 금일 청국과 일본의 전쟁을 유발하게 되었으니, 우리는 이를 천추의 유감으로 여긴다.

한국사상 최대 규모였던 농민봉기는 그렇게 안팎으로 파문을 불러일으키며 막을 내렸다.

농민봉기를 틈타서 일본이 조선조정을 짓밟고 청일전쟁을 도발한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또 그것이 가능했던 국제적 환경은 무엇인가? 19세기에 접어들면서 해외에 시장이 필요했던 유럽 여러 나라는 아시아, 아프리카 각국의 문호를 두드렸다. 이때 유행한 말이 '상품이 자유롭게 국경을 넘지 못하면, 군대가 국경을 넘어간다.'였다. 다시 말해 '문호를 열지 않으면 대포가 날아간다'는 의미였다. 서구 각국이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공업국가로 발돋움한 결과 나타난 범세계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산업화가 성취된 것은 유럽의 몇몇 강대국들 뿐. 자급자족의 경제생활을 유지던 아시아,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은 산업화가 무엇인지 몰랐다. 생전 보지도 못한 '이상한 모양의 배'(이양선)가 와서 통상을 요구할 때 겁먹은 아시아,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는 문을 꼭꼭 닫아걸고 응하지 않았다. 이때 유럽 열강이 취한 방법은 '포함외교'(Gunboat Diplomacy). 군함에서 대포가 날아가고 물에 오른 해병은 일제사격을 가했다. 백병전도 벌어졌다. 이들의 무력 앞에 동아시아 각국도 차례로 무너져 갔다.

이후 서양의 외교관과 상인들이 앞다투어 몰려 왔다. 선교사들의 희생 위에 외교관들은 만국공법(국제법)을 고창하였고, 상인들은 진기한 상품을 쏟아 부었다. 그리고 군대는 이들의 가는 길목을 터 주었다. 산업혁명의 결과전 세계에 비

상이 걸린 것이다.

일본의 침략은 바로 그런 흐름을 탄 것이다. 기민했다. 서세동점의 파고를 넘자는 구호하에 안으로 힘을 모으고 밖으로 세력을 펴자 했다. 명치유신(1868)이 그렇고 정한론(1873)도 그렇다. 초라하던 '천황'이 '신비한 권위'를 뒤집어 쓰고, 막부정권을 엮은 하급사무라이들이 실권을 분배했다. 이들이 정치, 경제, 군사, 외교, 교육 등 각 분야를 이끌어 갔다. 모델은 유럽, 유럽을 배우기에 열중하였다. 식민지를 만들어 내는 방식까지 배웠다. 대만을 침략하고, 유구를 병탄했으며, 대륙침략의 총사령부로서 육군참모본부를 설치하였다. 1880년대 초부터는 정탐활동을 위해 밀정들을 중국대륙과 한반도와 흠뻑려 놓았다. (1883년 광개토왕비문 탁본을 일본육군참모 본부에 가져간 자도 그런 밀정중 하나이다.)

따지고 보면 청일전쟁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다. 일본은 오랜동안의 치밀한 준비 끝에 기회를 포착하여 도발한 것이다. 그리고 그의 주요한 목표는 불행하게도 조선이었다. 하관조약 제1조에서 '청국은 조선의 자주독립국임을 확인한다'하였다. 제2조에서 '청국은 일본에 2억냥(약 3억엔)의 배상금을 지불하고 요동반도와 대만, 평호도를 일본에 할양한다'하였다. 대강만 환산해도 1894년 조선정부 예산의 근 70배에 가까운 금액이다. 청국은 재정이 바닥을 치고, 결단난 재정을 메꾸기 위해 차관을 들여놓아야 했다. 그런데 차관을 제공한 나라는 뒷손을 내밀었다. 철도부설권을 달라, 땅을 빌려달라 했다. 청국은 '하이에나들에게 포위된 들소' 같았다.

그렇다면 하관조약과 조선의 관계는 어떠한 것인가? 청국은 조선에서 손을 떼다하니 한편으론 고마운 일이다. 일본이 선전할 만도 했다. 그러나 일본은 요동을 할양한다 했고, 일본군을 거기에 주둔시키고 있으니, 결과적으로 조선은 일본 본토와 요동 사이에 갇힌 셈이 되었다. 게다가 전국의 농민민군은 이미 초토화 되었고, 서울은 일본군이 장악한 가운데 국왕과 대신들은 이미 포로와 같은 상태 아닌가? 결국 조선의 운명은 하관조약의 결과 나락으로 굴러 떨어져 있었다. 그것이 청일전쟁의 결과이다.

Ⅲ. 조선의 반일책과 일본의 왕비제거

청일전쟁이 종결된 지 반년도 안되어 일본군이 경복궁을 습격하는 사건이 또 다시 일어났다. 1895년 10월8일 새벽 5시. 이번에는 일본의 영사관 소속 경찰, 정체불명의 낭인배까지 동원되었다. 잠시 후 경복궁내의 건청궁에서 세계사상 유례가 없는 참혹한 만행이 자행되었다. 일본군 수비대의 엄호하에 일본공사관원, 영사경찰, 낭인배 등이 민황후를(1897년 명성황후 추존)를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워 버린 것이다. (을미사변 : 명성황후시해사건)

당시 주한영국영사 힐리어(Walter C.Hillier)는 사건의 현장을 이렇게 보고하였다.(1895.10.11).

건청궁의 앞뒷문을 통해 일본군의 엄호하에 침입한 민간인 복장의 일본인들은 한 무리의 (조선군복장을 한) 군인들과 함께 일본군 장교와 사병들이 경비를 서주었다. 그들은 곧바로 왕과 왕비의 처소로 돌진하여 몇몇은 왕과 왕태자의 측근들을 붙잡았고, 다른 자들은 왕비의 침실로 향하였다. 이때 궁내에 있던 궁내부 대신 이경직(李耕植)은 서둘러 왕비에게 급보를 전하였고, 왕비와 궁녀들이 잠자리에서 뛰어나와 숨으려던 순간이었다. 그때 흥도들이 달려 들어오자 궁내부대신은 왕비를 보호하고자 자신의 두 팔을 벌려 그들과 왕비의 사이를 가로 막았다. 흥도들 중 하나가 왕비를 수색하기 위해 왕비의 사진을 손에 지니고 있었던 데다 그의 그러한 행동은 오히려 흥도들에게(왕비를 알아보게 하는) 용이한 단서가 되었다. 궁내부대신은 그들이 내려친 칼날에 양팔목을 잘리는 중상을 입고 쓰러져 피를 뿌리며 죽었다. 왕비는 뜰 아래로 뛰어나갔지만, 붙잡혀 넘어 쓰러졌고, 흥도들은 왕비의 가슴을 짓밟으며 일본도를 휘둘러 거듭 내려 쳤다. 실수가 없도록 확실히 해치우기 위해 그들은 왕비와 용모가 비슷한 몇몇 궁녀들까지 함께 살해하였다. 그 때 왕비의 의녀(女侍醫)가 (가까스로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아가 손수건으로 왕비의 얼굴을 가려 주었다. 한 둘의 시신이 숲에서 불태워지고, 나머지는 궁궐밖으로 옮겨가 처리되었다. (『주한영국영사의 보고문』)

이 사건은 러시아와 조선의 반일정책에 대한 일본의 보복이었다. 그 반일정책은 삼국간섭 직후 조선궁정에서 표출된 왕비의 인아거일책(引俄拒日策)과 연관이 있다. 청일전쟁 초기에 러시아는 관망자세를 보였다. 그러나 전쟁이 만주로 확대되자, 일본의 목표가 당시 러시아가 총력을 기울여 추진하던 시베리아 횡단 철도에 향해져 있음을 깨닫고, 러시아는 긴급대책 마련에 부심하였다. 더우기 강화의 조건에 요동반도의 할양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자 러시아는 즉각 일본의 행동을 견제하고 나섰다. 프랑스와 독일의 협조하에 삼국간섭(三國干涉 : 1895. 4. 23)을 단행한 것이 그것이다.

이때 조선에서도 반일적인 움직임이 표면화 되었다. 이른바 왕비의 '인아거일책'(引俄拒日策)이 그것이다. 러시아를 끌어들여 일본을 몰아내자는 구상이었다. 물론 이를 배후에서 지지해 준 것은 러시아공사 웨베르(Karl I. Waeber : 韋貝) 등이었다. 웨베르는 삼국간섭 직후 서구의 외교관들과 함께 이노우에 일본공사를 방문하였다. 조선 조정을 마음대로 좌지우지 말라는 것이었다. 곧 바로 왕비도 이노우에에게 조선조정을 마음대로 움직이지 말라고 경고하였고, 이노우에의 행동은 여기서 제동이 걸리게 된다. 이노우에의 '조선보호국화' 기도가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다.

결국 삼국간섭과 함께 일본내에서는 비상이 걸렸다. 내각회의가 거듭되었고6. 4), 조선현지의 이노우에도 본국에 휴가를 요청하여 귀국하였다.(6. 7. 서울 출발. 6. 20, 요코하마 도착). 당시 조선사태에 대해 일본의 입장은 어떠했을까? 이 토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만일 종래처럼 한국의 개혁을 추진한다면 러시아의 방해를 받을 것이고 그렇다고 중단한다면 청일전쟁은 전혀 그 의의를 상실하는 동시에 도리어 러시아에게 한국을 엿볼 수 있는 기회까지 허용할 우려가 있어 난처하다. (『이등박문전』)

사진기까지 휴대하고 왕비시해의 현장에 '출동'하였던 한성신보사(서울의 일본신문사)의 기자 고바야카와도 후일 이렇게 기록하였다.

청일전쟁을 도발한 의도에 비추어 보거나 거액의 전비를 쓰고 자국의 청년들을 희생시킨 점에 비추어 보거나 또한 동양장래의 평화와 일본제국의 영원한 안위를 생각할 때 러시아세력의 신장을 방임할 수 없으니 …… 오로지 비상한 수단으로 한로의 관계를 차단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 즉 러시아와 왕실이 굳게 악수하며 서로 호응하고 온갖 음모를 다함에는 일도양단! …… 환언하면 왕실의 중심이요, 대표적 인물인 민후를 제거하여 러시아로 하여금 그 결탁할 당사자를 상실케 하는 이외에 다른 양책이 없다는 것이다. 만일에 민후를 궁중에서 제거한다면 웨베르 같은 자가 누구를 통하여 한국의 상하를 조종할 수 있겠는가 …… 한국의 정치 활동가 중에도 그 지략과 수완이 일개 민후의 위에 가는 자가 없었으니 민후는 실로 당대무쌍의 뛰어난 인물이었다. (『민후저락사건』)

일본정부로서 당면 과제는 조선문제의 처리였고, 그것은 러시아와 상대할 문제였다. 그러나 일본은 청일전쟁으로 전력을 소모한 상태에서 러시아를 상대할 준비가 갖춰져 있지 않았다. 결국 러시아를 상대하지 않고 조선문제를 처리하는 손쉬운 방법은 직접 조선쪽을 상대하여 러시아와의 연결고리를 끊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일본이 당면한 내외의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는 조선에서 반일세력의 핵심이자 러시아와의 연결고리인 왕비를 제거하는 것이었다.

이노우에는 내각회의에서 (1) 자신의 후임으로 미우라(三浦梧樓)를 추천하였고, (2) 대조선 500(300)만엔 기증금 제공을 건의하였다. (7.10-7.11). 미우라는 외교에 문외한인 육군중장 출신의 예비역 장성이었다. 일본내각이 미우라를 주한공사로 파견한 과정에 대해서는 관계자들간의 말이 다르다.

이토(『伊藤博文傳』)는 이노우에가 추천하여 이토가 받아들인 것뿐이라 하였고, 이노우에(『世外井上公傳』)는 이토가 결정한 일이라 하였으며, 미우라는 이토와 이노우에가 자신을 한국으로 밀어내듯 쫓아보냈다(『觀樹將軍回顧錄』)고 하였다. 서로 ‘뜨거운 감자’를 떠 넘기는 형국이다.

일본의 내각회의에 참석한 뒤 7월 하순에 서울로 돌아온 이노우에는 종래의 위압적 자세를 전환하였다. 미처 확정되지 않은 300만엔 기증금 제공건을 확인하며 고종과 왕비의 환심을 사려 하였다. 후임자인 미우라가 부임(공심임명 : 8.

17. 서울도착 : 9.1)한 뒤로도 그는 업무인계(?)를 명목으로 17일간을 일본공사관에 머물렀다. 이노우에가 서울을 떠난 것은 9월 17일, 인천에서 4일간 더 머물다가 일본으로 향했으며(9.21) 왕비를 시해하기 불과 17일 전이었다.

그가 서울을 떠난 직후 서울에서는 왕비제거설이 나돌기 시작하였다. 마침내 10월 3일에는 일본공사관 밀실에서 미우라 · 스기무라 후카시(杉村濤 : 공사관 서기) · 오카모토 류노스케(岡本柳之助 : 공사관부무관 겸 조선군부고문) · 구스노세 사치하코(楠瀬幸彦 : 포병중좌) 등이 왕비시해의 구체안을 확정하였다.

이들은 서울 주둔 일본군 수비대를 주력으로 조선정부의 일본인고문, 한성신보사의 사장과 기자, 영사경찰, 낭인배 등을 고루 동원하였다. 만일의 경우 사후 책임전가를 위해 왕비와 정치적 대립관계에 있던 대원군과 조선군 훈련대(교관은 일본인)를 이용하기로 하였다. 마침내 10월 8일 새벽 일단의 일본인패들이 대원군과 그의 아들 이재면을 납치하여 경복궁으로 향했다. 한편 일본인교관은 야간 훈련을 명목으로 조선군 훈련대를 경복궁까지 유인해 왔다.

공격이 개시된 것은 새벽 5시(일본측 자료는 5시 45분으로, 약 한시간 오차). 경복궁담을 넘어간 일본인패들이 일본군의 엄호하에 광화문을 열어제쳤다. 일본인패들이 호위한 대원군의 가마와 훈련대가 밀려 들어갔다. 이를 막아서던 홍계훈(훈련대 연대장)과 궁궐 시위대병사 8-10명이 현장에서 전사하였다. 일본군의 습격은 북문에서도 있었다. 광화문쪽에서 총성이 울리자 이미 북서쪽의 문(추성문), 북동쪽의 문(춘생문)을 통과한 별도의 일본군이 북쪽의 문(신무문)을 공격해 들어갔다.

경복궁에서는 숙위중이던 시위대 교관 다이(William McEntyre Dye, 茶伊)와 연대장 현홍택의 지휘하에 비상 소집된 300-400의 조선군 시위대 병사가 저항하였으나 무기의 열세로 곧 무너졌다. 이후 왕비의 거처에서 만행이 진행되는 동안 일본군은 사방의 출입구를 봉쇄하였다. 사복차림 일본인이 현장을 지휘하였고, 일본군장교(2명)가 이를 보조하였다. 만행이 자행된 시각은 오전 5시에서 5시 45분 사이. 상황이 일단락되자 일본인들은 왕비의 침소까지 약탈하고 유유히 광화문을 빠져 나갔다.

한편 일본공사관에서 초초하게 사태의 결과를 기다리던 미우라는 고종의 부름

에 응한 형식으로 입궐한 뒤(6시경), 즉시 사태의 은폐공작에 들어갔다. 먼저 고종을 꺾박, 당일로 신내각을 조각하게 하였다. 왕비가 궁궐을 탈출한 것처럼 꾸며, 고종이 서명하지 아니한 폐서인(廢庶人) 조칙도 내리게 하였다. 이어 사건을 훈련대와 순검의 충돌에 의한 것으로 날조하였다. 다음날 이 사건의 '범죄자'들인 훈련대를 엄벌할 것과 일본인이 가담하였다는 '소문'의 사실여부 규명을 요청하는 위장된 공문을 외부에 보내, 이를 조선측이 부정하는 내용의 조작된 공문까지 확보해 두었다.

그러나 사건의 진상은 당일부터 서양외교관들에게 폭로되었다. 현장의 만행이 왕태자·다이·사바틴(다이의 보조역)·현홍택·의녀(醫女)·궁녀·궁중하인 등에 의해 각기 다른 위치에서 목격되었고, 열국외교관들도 이를 간접적으로 접하였기 때문이다. 알렌(미국공사관 서기)이 총소리에 놀라 깬 것은 새벽 5시, 곧 이어 이범진으로부터 고종의 화급한 전갈을 받고 러시아공사 웨베르와 입궐하였다.

그들은 궁궐에 도착하면서 산만한 복장의 칼찬 일인들이 광화문에서 나오는 것을 목격하였다(7시). 압궐후 한시간 반 가량을 기다리던 그들이 마침내 방문을 밀고 들어가자 거기에 고종과 미우라가 있었다. 미우라는 “훈련대와 순검의 충돌을 막아달라는 고종의 요청으로 일본군을 보내 현장에 도착해 보니 사태는 일단락된 뒤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알렌 등이 직·간접으로 접한 현장의 상황은 전혀 달랐다. 이들은 일본군·영사경찰·공사관원·낭인배 등이 왕비시해를 자행하였음과 미우라가 이들의 사주자임을 간파하였다. 마침내 알렌·힐리어(Walter C. Hillier : 영국영사)·웨베르 등 주한외교관들의 보고와 뉴욕헤럴드의 특파원 코커릴 등에 의해 이 사건이 각국에 알려졌다.

당초 일본정부는 외교와 언론 등을 통해 일본군민은 이 사건과 하등 관련이 없으며, 대원군과 조선왕비의 '중세적' 정권다툼에서 비롯된 것이라 선전하였다. 그러나 열국 여론의 비난에 처한 일본정부는 마침내 미우라가 이 사건에 연루되었음을 시인하면서 사건의 철저한 조사를 천명하였다. 이어 고무라 쥬타로(小村壽太郎)를 주한 변리공사(辦理公使)로, 이노우에를 왕실문안사라는 명목으로 서울

에 파견하여 사태수습에 나섰다. 아울러 미우라와 스기무라 이하 약 50인에게 퇴한(退韓) 명령(10.18)을 내려 이들을 히로시마(廣島) 감옥에 수감하였다. 잠시 국제여론의 비난을 피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돌발한 한가지 사건이 일본측에 의해 역이용되었다. 춘생문사건(11.28)이 그것으로 고종을 미국공사관으로 피신시키고자 웨베르·알렌 및 이범진·이완용 등 조선의 친미·친로파 인사들이 가담하였다고 하는 사건이다. 일본측은 이 사건을 을미사변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절호의 기회로 이용하였다. 일본정부와 언론은 이 사건에 서울의 열국외교관들이 관계되었다고 선전하면서, 일본이나 여타 열강이나 조선내정에 개입하기는 마찬가지라는 논조를 폈다.

이어 일본정부에서는 감옥에 수감된 범죄자들을 ‘증거불충분’이라 하여 전원 무죄 방면하였다(1896.1.20). 앞서 감옥에 있던 그들에게 고종의 이름으로 위로금까지 주는 촌극을 벌이기도 하였다. 왕비가 정권을 마음대로 휘두르자 이를 보다 못한 고종이 그들을 시켜 왕비를 제거한 것이라고도 선전했다. 너무나 속이 드러나는 일이라서 얼마 후 그 얘기는 쪽 들어갔다. 어쨌든 범죄자들은 감옥에서 조차 일본의 관민으로부터 영웅처럼 치켜올려졌고, 미우라가 석방되어 동경에 도착하자 일본천황은 그의 ‘노고’를 치하하기까지 하였다. 한마디로 일본의 군·관·민 모두가 이 사건의 공범이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한 국외의 비난 여론은 잠시뿐, 각국 정부의 반응은 정반대의 가류를 타고 있었다. 영·미·로 각국 정부는 일본과의 관계를 고려, 자국 외교관들의 행동자세를 지시하였다. 이토오 이하 일본정국의 인물 및 각국주재 일본외교관의 다양한 사태무마책이 적지 않게 작용하였다. 따라서 서울의 서양 외교관들은 이 사건에 마우라가 직접 관계되어 있다는 것까지는 밝혔으나 더 이상의 배후는 추구하지 못하였다. 다만 상해에서 서양의 선교사들이 발간하던 북화첩보(北華捷報 : The North China Herald)에서만 이 조선과 일본주재 통신원의 보고를 토대로 이렇게 보도하였다.

이 사건의 주모자는 이노우에이며, 미우라가 조선공사로 임명될 때 이미 그가 이노우에의 희생양이라는 것이 잘 알려져 있었다 …… 이 사건은 미우라가 일본

을 떠나오기 전에 계획된 것이다 …… 일본정부는 이 음모를 사전에 알지 못한 것처럼 가장하면서도 희색은 만면 …… 이 사건과 일본정부의 관계는 독자가 알아서 판단하기 바람. (The North China Herald)

결국 이 사건의 지휘계통은 ‘이토내각(배후)->이노우에(중개역)->미우라(하수역)’였다는 주장이다.

최근 당시 일본 외상이었던 무쓰(陸奥宗光)가 주범이라는 설도 등장하고 있다. 그 역시 이 사건의 배후 범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물론 아니다. 당시의 정계와 군대의 핵심 거두는 모두가 공범이라고 보아 틀림없다. 다만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건의 배후구도에서 가장 핵심적 역할을 했을 인물을 꼽는다면 이노우에이다. 그러나 누가 어느 정도의 역할을 담당했느냐는 별개의 문제이고 이 사건이 일본의 국가적 범죄였음은 재론할 여지가 없다.

이노우에는 명치유신에 공을 세워 근대 일본을 이끌어 간 원로(元老) 7인중 1인, 그중에서도 핵심 3인의 하나이다. 이노우에 가오루와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가 그들이다. 이들은 근대 일본의 정계, 관계, 군계를 주름잡은 자들로 모두 초슈번(長州藩)의 하급 사무라이 출신이다. (이노우에는 이토보다 연장자로 이토와 함께 영국에 유학을 하고 돌아왔다. 그 후 이토는 수상으로서 일본을 이끌어 간 정계의 원로, 야마가타는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승리로 이끈 군부의 원로, 이노우에는 내상, 외상, 재무상을 지낸 일본 정부의 ‘살림꾼’이 되었다. 또 이노우에는 강화도조약, 임오군란, 갑신정변 당시 거둬 군대를 이끌고 서울에 와서 사후 수습을 한 일본 제1의 조선통이다.)

이노우에는 청일전쟁의 종전 무렵 조선을 보호국화하는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일본의 장관(대신)급 보다 격이 낮은 조선공사를 자천하여 왔다. 1906년 이토가 서울에 통감으로 부임하여 한국의 국권을 박탈해 가던 작업을 10년 앞서서 수행하려 했던 것이다. 방법은 영국이 이집트를 식민지화 할 때 써먹은 차관정책이다. 개혁의 자금을 빌려주고, 돈을 갚지 못하게 상대국의 재정을 파탄에 몰아넣는 방법이다. 한마디로 경제적 예측화 작업이다. 그러나 러시아의 견제와 조선의 왕비로 인해 이 정책이 파탄에 직면하자 경복궁을 기습하여 왕비를 제거한 것이다.

IV. 조선의 위기와 고종의 러시아공사관 피신

왕비가 비극을 당한 직후 조선의 운명은 마치 바람 앞의 등불과 같았다. 일본의 압제가 극을 달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조정은 일본인 고문관들이 장악하여 대신들은 허수아비나 다름없었고, 고종과 대원군은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당하는 가운데 마치 일본군의 포로와 같았다. 왕비시해로 인한 국제여론의 따가운 비판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끄떡없이 '조선정복'의 후속작업을 지속했던 것이다. 그러면서도 밖으로는 대원군이 실권을 장악했다고 선전하였고, 안으로는 단발령을 강행시켜 조선 전국을 뒤엎어 놓듯 하였다.

고종의 러시아공사관 피난(이하 아관파천 : 1896.2.11)은 바로 이 같은 시점에 극적으로 이뤄진 일이다. 을미사변으로부터 근 4개월 뒤에 실현된 사태의 역전이였다. 을미사변이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참극이었다면, 고종의 러시아공사관 피신 역시도 한국사상에 유례없는 특이한 사건이었다. 이 사건을 놓고 일국의 군주가 자신의 안전을 위해 타국공사관으로 피신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도덕적 평가가 있는가 하면, 친미·친로파의 '고종연행사건'이라 하기도 한다.

그러나 모두 적절한 해석은 아니다. 청일전쟁 이후 조선이 로일의 갈등 무대로 전락한 점은 공지의 사실이다. 군주가 러시아공사관으로 피신해 간 일은 결코 찬양할 일은 아니나, 중요한 것은 그 같은 사건이 초래된 원인이 무엇인가이다. 나아가 '친미·친로파의 고종연행설'은 일본의 위압 하에 생명조차 돌보기 어려웠던 고종의 처지를 감안할 때 어불성설이다.

1896년 1월9일 신임러시아공사 스페이어(Alexis de Speyer, 士貝耶)가 서울에 도착하였다. 한편 멕시코주재 공사로 발령받은(1895.9.11) 전임러시아 공사 웨베르는 그해 12월 러시아정부로부터 후임자가 도착할 때까지 서울에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자연히 스페이어의 도착과 함께 서울의 러시아공사관에는 두 공사가 함께 머물게 되었다. 당초 러시아당국으로부터 어떠한 지시를 받았는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조선에 부임한 이후와 부임 과정에 보인 스페이어 공사의 행동은 일정한 목표를 향하고 있었다.

스페이어는 부임하는 도중 동경을 들려 주일러시아공사(Khitrovo)와 일본의

당로자들을 만나 조선에 관한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동경에서 만난 이토(伊藤) 총리나 사이온지(西園寺公望) 외상 등은 조선의 사태는 평온한 가운데 대원군이 정권을 장악하고 있다 하였고, 일본은 조선의 내정에 간여할 생각이 없으며 조선의 독립을 존중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스페이어가 도착한 직후의 조선은 평온하다던 일본측의 주장과는 사정이 전혀 판판이었다. 왕비시해사건과 단발령의 여파로 지방민의 반일 활동이 확대되어 가면서 전국 도처에서 산발적인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다. 조선의 지방민들은 만나는 일인마다 살해하고자 할만큼 일본의 만행에 대해 분노하고 있었다. 이들은 한편으론 일본군을 습격하고, 다른 한편 전신선을 절단하여 일본군 통신망을 차단하는 등 교란작전을 펼쳐 갔다.

서울 현지의 사정도 스페이어가 일본에서 접한 일본정부 요인과 외교관들의 언급과는 판이하였다. 대원군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지도 않았거니와 국왕은 국왕대로 허수아비나 다름없었고, 대신들은 일인 고문관들의 지시하에 움직이고 있었다. 게다가 일본에서 왕비시해사건 관련자들을 무죄방면한 것과 때를 같이하여 내각은 다시 10월 8일 당시의 친일내각의 형국으로 복귀하고 있었고, 2월 초에는 조희연(趙義淵)이 군부대신에 복귀되는 형편이었다. 그는 왕비시해에 가장 깊은 관련이 있던 조선측 인물로 일본공사(小村壽太郎)의 입김이 분명 그의 복귀에 작용한 것으로 감지되고 있었다.

스페이어와 웨베르는 러시아의 희망과 배치되는 조선의 국면을 전환시키고자 대책을 숙의하였다. 러시아정책의 목표는 조선정부에서 친일관료를 제거하는 것이 틀림없는 바 고종에게 관료의 임명권을 회복시켜 준다면 친로성향의 정부성립이 가능하다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종래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친일관리의 제거란 일본과의 타협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다. 결국 이들이 택한 것은 조정내외에 팽배한 반일적 분위기로 보아 러시아가 직접 나서서 대신 반일파를 지원하여 일을 꺾자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계획 자체는 조선측으로부터는 물론 러시아당국으로 부터 어느 정도 내력이 있어야 했다. 그런데 그러한 조건은 스페이어가 서울에 도착한 1월초에 이미 갖추어지고 있었다. 고종이 이범진을 통해 자신의 불안한 처지와 러시아의 지

원을 호소하는 메모를 비밀리에 전해왔음은 물론, 1월 중순에는 신·구 러시아공사가 고종을 알현하고 돌아가는 순간, 고종이 직접 스페이어의 주머니에 쪽지를 넣어주기까지 하였다(1.12). 스페이어는 고종이 러시아의 지원과 개입을 호소하고 있음을 거듭 본국에 타전했다(1.22).

스페이어는 조선의 상하 모두가 일본을 증오한다는 것과 일본이 곧 조선을 삼킬 상황이라는 것, 조선현지의 사정으로 보아 일본과의 협상은 불가능하고, 조선의 독립을 보장하는 유일한 수단은 서울주둔의 일본군 병력 만큼 러시아 군사를 파견하여 해결하는 것이라고 타전하여(1.22), 러시아의 적극적 조치가 필요함을 피력하였다.

러시아당국은 '조선의 현정부를 전복하는 것이 갖는 의미와 이 목적의 수행을 위한 수단이 무엇인가를 유념하라'는 내용의 훈령을 내려 독려하였다(1.23) 그러나 '스페이어의 제안에 원칙적으로는 동의하지만, 군사파견은 거절한다'는 훈령을 보내었다. (2.1). 국제관계를 먼저 고려한 것이었다. 러시아가 군사를 파견할 경우 불필요한 국제적 분규를 몰고 올 소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러시아가 군사를 파견할 경우라면 먼저 일본이 항의해 올 것이지만, 보다 우려되는 것은 영국이었다. 이미 거문도사건(1885-1887) 당시에 영국은 러시아의 한반도 진출에 대해 심각하게 대응하지 않았던가.

그렇다고 마냥 한반도의 사에 수수방관할 수만도 없었다. 당시 일본정부는 왕비시해사건 관련자 전원을 사건 3개월만에 무죄방면한 직후였다(1.20). 조선에서는 이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고, 전국을 떠돌아다니는 일본인 부랑배의 행태는 지방민들에게 기고만장한 모습 그대로 비쳐졌다. 이 상황에서 조만간 일본인들이 고종을 살해하고 이준용(대원군의 손자)을 일본에 유학시키려 한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이준용의 일본유학 운운'은 사실상 인질이므로 대원군 조차도 극력 반대하는 일이었다. 설상가상으로 폭도들의 서울진공설(?)까지 나돌아 불안감이 가중되었다.

러시아공사관으로 탈출하자는 발상은 이 상황에서 고종의 측근으로부터 나왔다. 즉 2월 2일 고종은 이범진을 통해 러시아공사관으로 피신할 의향이 있음을 전하면서 두 공사의 수락여부를 타진해 왔다. 스페이어와 웨베르는 이러한 조치

가 러시아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이 계획에 대한 본국의 승인을 요청하였다. 러시아 당국은 이를 승인하면서 러시아황제가 즉각 군함의 인천입항을 명하였다(2.2). 러시아의 지원 의향을 확인한 고종은 스페이어에게 감사하다는 뜻을 전하였고(2.3), 이로부터 러시아 공사관으로의 피신을 위한 예비작업이 은밀히 진행되었다.

마침내 2월 7일 스페이어는 고종에게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알렸고, 고종은 러시아공사관에 경비병이 배치되었는지의 여부를 물었다. 스페이어는 다시 이런 고종의 뜻을 빌리어 인천에 정박하고 있던 러시아군함의 제독에게 서울에 수병을 파견하도록 조치하였고, 2월 10일에는 의병의 서울진공에 대비한 공사관 보호를 명목으로 러시아 수병 1백 3명이 대포 1문을 이끌고 서울에 들어왔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러시아공사관 경비병력이 보강된 가운데 왕과 왕태자는 다음날 이른 아침 궁녀의 가마를 타고 위장하여 가까스로 탈출에 성공하였다. 이들이 러시아공사관에 도착한 것은 아침 7시경이었다(1896.2.11).

아관파천 직후 러시아 당국은 결코 사전에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것이 공식적 반응이었다. 그러나 내심 이를 환영하였을 뿐 아니라 이후로도 아관파천의 현상을 유지하자는 것이 희망사항이었다. 러시아의 목표는 일본의 독점적인 지배기도를 저지하여 조선을 일본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적어도 시베리아철도의 완성까지는 조선의 영토를 타국이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다. 즉 조선을 보호령화 할 능력이나 의도는 아직 없지만, 적어도 조선이 일본에 이용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었다.

아관파천 직후 조선인들의 러시아에 대한 감정은 일본에 대한 것과는 정반대였다. 러시아장교 까르네프가 의병이 점령한 지역을 방문했을 때 의병들은 그의 국적을 확인한 후 정중히 대우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국왕에게 충성을 맹세하며, 만나는 왜적은 모두 처형하겠습니다!' 한 달여 사이에 전국(원산 제외)에서 의병에게 피살된 일인은 약 40명, 반면 러시아에 대해서는 의병들의 태도가 호의적이었다. 비록 고종의 아관파천 자체에 대한 일반의 반응은 물론 부정적이었고, 일국의 국왕이 남의 나라 공사관에 피신해 있다는 사실 자체는 국체를 손상하는 일로써 즉각 환궁해야 한다는 것이 조야의 주장이었지만, 더 큰 문제는 일본의 침

략행태였던 것이다.

V. 맺음말

명성황후는 한국근대사에서 가장 주목되는 핵심 인물중 하나이다. 그런데 명성황후시해사건 이후 일본정부의 관계자들, 그리고 그 이후 한국에 관해 글을 남긴 많은 일본인들은 한결같이 명성황후에 대한 왜곡을 일삼았다. 명성황후를 집안을 망친 암탉이라 하였으니, 명성황후를 강력한 내조자이자 정치적 동반자로서 여겼던 고종까지도 왜곡된 평가를 받게 하였다. 나아가 대원군을 이 사건의 주범으로 몰아 대원군의 명예까지 짓밟았다. 한국근대사를 명성황후와 대원군의 갈등 구도로 구성하여 한 나라의 역사를 일개 집안의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갈등의 역사로 추락시킨 것이다.

이 모두는 한국근대사의 실패가 내부의 당쟁에 원인이 있다고 강조함으로써, 명치 유신 이래 지속된 일본의 한국에 대한 침략행태와 상상을 초월하는 각종 공작을 은폐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따지고 보면 1945년 광복 때까지 우리측은 19세기말에 한국에서 자행한 일본의 음모에 대해 잘 모르는 부분이 많았고, 설사 알았다 한들 온전한 기록을 남겨둘 상황이 못되었다. 그에 반해 언론출판의 자유를 마음껏 누린 일본측 연구자들은 한국근대사에 대해 한도 끝도 없이 왜곡된 기술을 남겼다. 근래까지도 여타의 사료가 충실히 발굴되어 오지 못했으니, 국내 연구자들도 일본 쪽 자료를 좇아서 함께 잘못된 내용을 기술하는 역사왜곡의 역류현상이 있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제 이런 왜곡의 현상은 타파되어야 하고 그럴만한 시점에 와 있다. 명성황후는 어떠한 인물이며, 19세기말의 국제정치 무대에서 한 역할은 무엇인가. 명성황후가 과연 한국사상에서 어떻게 평가받아야 할 인물인지는 아직 더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야 가능할 것이지만, 현재의 입장에서 평가한다면 이렇다. 명성황후는 국제외교무대에서 서구의 정치가나 외교관들처럼 국력을 뒷받침으로 현란한 외교활동을 할 처지는 아니었지만, 19세기말의 격변기에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궁정외교를 통해 제한된 무대에서나마 국왕을 보필하는 역할에 충실했던 인물 중

하나이다. 무엇보다 일본이 공권력을 총동원하여 명성황후를 기습적으로 제거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사실 그 자체가 이미 그 점을 여실히 입증해 주고도 남는다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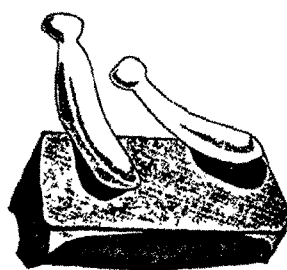
끝으로 명성황후시해사건에 관해 한가지 묻고 싶은 점은 일본정부의 입장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단언하건대 아직까지도 명성황후시해사건과 일본정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이 공식적 입장이다. 히로시마재판소 판결이 그것이다. 그 이후 오늘날까지 그 누구도 일본의 정권담당자로서 이 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한 적도 없고, 범죄의 사실을 인정한 적도 없다. 오히려 고종이 주도했다느니, 대원군이 주도했다느니 하여 국제 외교무대를 통해 이면으로 사태를 호도하려 했을 뿐이다. 나아가 더욱 심각한 것은 언론 등을 통해 이 사건에 관해 왜곡된 보도를 일삼아 서양인들에게까지 한국사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었다는 점이다. 오늘날의 일본 역사 교과서 왜곡문제도 모두 이런 부분과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것이다.

※ 이 자료는 지난 10월8일 여주대학 주최로 열린 명성황후 심포지움에서 발표된 것을 발췌한 것임.

여

백

향토 조명



▶ 沂川書院 ◀

기천서원은 조선 宣祖己卯(一五七九)에 여주목사(朴承任 = 一五六二生 一六二三卒 영의정 밀양부원군)가 지방 유림들과 논의하여 州內 馬生洞에 祠宇와 강당 六칸을 짓고 마암서원이라고 불렀다가 임진왜란에 소실된 것을 복구하지 못하고 있다가 宣祖 四十(戊申 = 一六〇八)년에 本部士林의 疏請에 依해서 復元을 도모, 梨浦의 現 位置로 移建하면서 본래에 慕齋 金安國 만을 奉安하였던 것을 一六一一(光海君辛亥)년에 회재 李彦迪 正齋 洪仁祐를

또는 配享시켰다. 復元役事가 光海君一년(己酉 = 一六〇九)에 크게 시작되어 三년만에 祠宇 三칸과 東西齋 各 五칸이 이룩되고 七년되던(乙卯 = 一六一五)해 강당과 夾室 五칸, 이어서 食庫, 住舍가 各 二칸 그외 祠三門, 講堂門, 齋門 등을 모두 갖춘 방대한 서원의 규모가 갖추어졌다. 또 이 役事와 工費는 본군출신 在京士大夫와 本鄉 儒林이 能力에 따라 獻金하고 私奴와 관청의 烟戶軍이 合力하였으며 長興寺의 僧侶들의 協力이 컸다. 그리고 役事를 마친후에 官奴 五명과 전답 一결반(약五千여평)을 書院位土로 하고 尊需費一切을 관청이 부담했었다. 광해군 癸丑(一六一三)에 서원유생 成汝格 등 五十여명이 서원사액을 청하는 상소를 올렸으나 당시 제척목사가 있던해라 사액을 받지 못하고 仁祖反政후 乙丑(一六二五)년에 유생 成汝格 등이 다시 상소하여 사액을 청하여 이를 받은 당시의 예조판서 金尙容(安東人 = 號 仙源)이 上에게 주청하여 기천서원이라고 사액을 받았다. 그리하여 祠宇는 崇

道, 東齋를 輔仁, 西齋를 勤善, 講堂을 敬義, 祠門을 景行, 院門을 入德이라고 하였다. 그후 梧里(李元翼) 선생을 포함한 五賢을 追配하여 모두 入位의 位牌를 모셨다. 추후 奉安된 다섯 어른들은 一六六一(顯宗辛丑)년에 文肅公 鄭曄, 文忠公 李元翼을 一七〇八(肅宗戊子)년에 忠烈公 洪命耆를, 一八〇二(純祖壬戌)년에 文簡公 洪命夏를 추향했다.

一八七一(高宗辛未)년에 흥선대원군의 정책 에 따라 전국적으로 東國十八賢의 祠宇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서원을 攝廢할 때 이 서원도 또한 철폐되어 서원의 享祀가 중단되어 오던 중에 一九三六년(丙子) 洪水 때 五臺山에서 한강으로 떠내려 오는 木材를 유림해 두었다가 그해 九月에 착공하고 八賢의 後孫들과 협력하여 완공을 보았다. 그러나 位田이 없어 고통중에 當時의 金暎起 郡守가 향교재산 중의 一部를 分割하여 享田으로 쓰도록 하고 慕齋後孫의 享田獻納으로 享田 二三一二坪이 마련되었다. 大韓光復後 六·二五전란에 거의 훼손된 것을 전란후에 儒林의 誠金으로 維持하다가 一九七八年 都有司 閔達鎭氏에 의해 郡費補助를 받고 다시 儒林들의 誠金에 依해 完金改修 復元하고 名稱을 慕賢祀라고 했다.

그후 一九八七년 도비 三천만원 등 六천만원을 들여 祠宇 一〇, 二一평의 三間되로 복원하고, 담장 六四, 八미터, 三間一棟, 계단을 설치 沂川書院으로 復元 옛모습을 되찾게 되었다.

① 李元翼 : 一五四七(명종二)~一六三四(인조十二) [조선] 문신, 자는 公勵, 호는 梧里, 본관은 全州, 益寧君 穆(太宗의 아들)의 손자, 咸川副守 億載의 아들 一五六四년(명종十

九) 生員이 되고, 一五六九(선조二)년 別試文科에 丙科로 급제, 承文院 副正字에 初任, 著作·奉常寺直長 등을 역임, 一五七三年 典籍으로 聖節使의 質正官이 되어 명나라에 다녀온 후 戶曹佐郎을 지내고, 이듬해 예조와 형조의 좌랑, 황해도도사 등을 역임, 一五七五년 正言이 되었다. 다음해 持平·형조좌랑, 一五七七년 예조정랑·軍器寺判官, 헌남 등을 거쳐 司諫에 오르고, 一五八二年 同副承旨·僉知中樞府事·戶曹參議를 역임했다. 이듬해 右副承旨로 都承旨 朴謹元의 죄에 연루되어 파직되었다가 一五八七년(선조二〇) 安州牧使에 기용되어 一五九一年 대사헌, 호조·예조·이조의 판서를 지내면서 都摠管·知義禁府事를 겸했다. 이듬해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平安道 都巡察使가 되어 왕의 피난길을 선도하고 군사를 모아 적군과 싸웠다. 一五九三年 평양 탈환작전에 공을 세우고 평안도 관찰사로서 순찰사를 겸하다가 一五九五년 우의정에 오르고 諸道都體察使·領元帥府使를 겸직하여 작전의 대임을 맡았으며, 辯誣使로 명나라에 다녀와서 一五九八년 영의정이 되었으나 일본과 화의를 주장한 죄로 北人의 탄핵을 받아 削職된 柳成龍을 변호하다 사직, 이듬해 다시 「三도도체찰사」가 되어 전후의 질서회복에 공헌, 一六〇四年 扈聖功臣 二등으로 完平府院君에 봉해졌다. 一六〇八年(광해군 즉위) 영의정에 재임, 수차사의를 표했으나 허락지 않던중 一六一五年 廢母論을 반대하다 홍천(洪川)에 유배, 一六一九年 풀려나왔다. 一六二三年 仁祖反正으로 영의정이 되고 仁穆稱大妃가 광해군의 처형을 명했으나 이에 반대하여 유배에 그치게 했다. 이듬해 李造의 난때 왕을 公州에 호종, 一

六二七년 丁卯胡亂이 일어나자 도체찰사가 되어 새자를 전주에 시종, 이어 訓練都監都提調를 지내고 致仕했다. 앞서 一六〇八年 大同法의 실시를 건의하여 경기·강원도를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실시, 불합리한 租稅제도를 시정하여 국민의 부담을 덜었고, 安州牧使로 있을 때 軍兵防守制度를 개혁, 一年에 三개월 복무를 二개월로 단축, 法制로 채택하게 했다. 清白史에 錄選되었고, 문장에 뛰어났으며, 南人에 속했으나 성품이 원만하여 政敵들에게도 호감을 받았고, 庶民的인 인품으로서 「梧里政초」이란 이름으로 많은 일화가 전한다.

인조의 묘정에 배향. 여주의 沂川書院, 始興의 忠賢書院, 安州의 淸川祠에 祭享 시호는 文忠, 著書 : 〈梧里集〉 〈續梧里集 梧里日記〉 〈作品〉 〈雇工答主人哥〉 〈歌辭〉 文獻 : 〈宣祖實錄〉 〈宣祖修正實錄〉 〈光海君日記〉 〈仁祖實錄〉 〈誌狀輯略〉 〈旅軒續錄〉 〈燃藜室記述〉

② 鄭曄 : 一五六三(명종十八)~一六二五(인조三) [조선] 문신, 자는 時晦, 호는 守夢·雪村, 본관은 草溪, 進士 惟誠의 아들, 영의정 李山甫의 사위, 李珥·成渾·宋翼弼의 문인. 一五八三年(선조十六) 別試文科에 丙科로 급제, 承文院에 등용되고 一五八七년에 監察·刑曹佐郎을 지냈고, 一五九三年 黃州判官으로 왜군을 격퇴, 그 공으로 中和府使가 되었다. 修撰·掌令·서천군수를 역임, 一五九七年 丁酉再亂때 禮曹正郎으로 急告使가 되어 명나라에 다녀온 후 司成이 되고, 水原府使를 거쳐 대사간에 이르렀으나 一六〇二年(선조三十五) 成渾의 문인이라는 혐의를 받도 鍾城府使로 좌천되었다. 一六〇六年 星州·洪州의 牧使를 역임하고, 광해군 즉위 초 禮曹參議·大

司成·承旨·判決事·대사간·충청도 관찰사 등을 지냈다. 一六一二년(광해군四) 都承旨로 왕을 經筵에 자주 나가도록 했고, 一六一四년 工曹參判이 되었다. 一六一七년 廢母論이 일어나자 지원하여 襄陽府使로 나갔다가 一년만에 사퇴했다. 一六二三년 仁祖反正후 大可成 겸 동지경연·원자사부가 되어 學制를 詳定했고, 여러번 타직에 전임되었으나 언제나 대사성을 겸함으로써 이때부터 대사성을 겸직하게 하는 선례를 만들었다. 대사헌을 거쳐 左參贊·左副賓客 등을 지냈다. 시호는 文肅, 著書: 〈守夢集〉〈沂思錄釋疑〉 文獻: 〈宣祖實錄〉〈光海君日記〉〈仁祖實錄〉〈誌狀集略〉

③ 李植: 一五八四(선조十七)~一六四七(인조二十五) [조선] 문신, 자는 汝固, 호는 澤堂, 본관은 德水, 좌의정 符의 玄孫 안성의 아들, 一六一〇년(광해군二) 別試文科에 병과로 급제, 一六一三년 說書를 거쳐 一六一六년 北評사가 되고, 이듬해 宣傳官이 되었으나 一六一八년 廢母論이 일어나자 은퇴, 一六二一年 누차 出仕의 명을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여 왕명을 어겼다 하여 한때 구금되었다.

一六二三년 仁祖反正으로 吏曹佐郎에 등용, 이듬해 副修撰·應教·司諫·執義를 역임, 一六二五년 禮曹參議·同副承旨·右參贊 등을 지냈다. 다음해 대사간에 승진, 右副承旨·大司成·左副承旨 등을 역임, 一六三三년 副題學, 一六三八년 대제학 예조와 이조의 參判을 지내고 一六四二년 김상헌과 함께 斥和를 주장한다 하여 瀋陽에 잡혀갔다가 돌아올때 다시 義州에서 拘置되었으나 탈출해 돌아왔다. 一六四三년 元孫輔養官, 대사헌, 형조·이조·예조의 판서를 역임하고 一六四六년(인조二十

四) 관직이 削奪되었다. 당대의 이름난 학자로서 문하에 많은 제자를 배출했고 특히 沂川書院에 제향, 시호는 文靖(文靖). 著書: 〈澤堂集〉〈初學字訓增輯〉〈杜詩批解「編書」水城志〉〈野史初本〉 문헌: 〈仁祖實錄〉〈畏齋集〉〈宋子大全〉

④ 洪命者: 一五九六(선조二十九)~一六三七(인조十五) 조선시대의 문신, 義士, 자는 元老, 호는 懶齋, 본관은 南陽, 承旨瑞翼의 아들, 一六一九년(광해군十一) 謁聖文科에 장원했으나 大北파의 횡포로 시골에 은거하다가, 一六二三년 仁祖反正후에 등용되어 一六二五년(인조三) 副修撰이 되었다. 一六二七년 直講, 이어 敎理·吏曹佐郎·左副承旨 등을 지내고, 一六三三년 右承旨, 一六三五년(인조十三) 대사간·副提學을 거쳐 이듬해 평안도 관찰사로 나갔다. 그해 丙子胡亂이 일어나자 勤王兵 二천명을 거느리고 남하 金化에 이르러 적을 만나 수백명을 살상하고 전하였다.

여주의 기천서원, 평양의 西山書院 제향, 이조판서에 추증되고, 族門이 세워졌다. 뒤에 좌의정이 더해졌다. 시호는 忠烈 문헌: 〈光海君日記〉

⑤ 洪命夏: 一六〇八(선조四十一)~一六六八(현종九) 조선시대의 문신, 자는 大而, 호는 沂川, 본관은 南陽, 判中樞府事 聖民의 손자, 分兵曹參議 瑞翼의 아들, 一六三〇년(인조八) 생원이 되고 一六四四년 別試文科에 乙科로 급제, 檢閱을 거쳐 一六四六년 文科重試에 丙科로 급제한 뒤 奎章閣待教·正言·校理를 역임했다. 一六四八 副修撰·헌납을 지낸 후 이듬해 吏曹佐郎으로 暗行御史가 되어 부정한 관리를 적발하는 데 당대에 이름을 떨쳤으며, 一六

五〇년(효종一) 吏曹正郎을 거쳐 一六五二년 同副承旨에 승진, 이듬해 漢成副右尹이 되었다. 이어 대사간으로 謝恩副使가 되어 청나라에 다녀온 후 이조와 예조의 參判·副提學·大司憲·형조판서를 지내고 藥房提調로 一六五九년 효종이 즉자 削職되었다. 이어 예조·병조의 판서를 거쳐 一六六三年(현종四) 우의정이 되고, 이듬해 謝恩 兼 陳秦使로 청나라에 다녀와서 一六六五年 좌의정을 거쳐 영의정에 이르렀다.

성리학에 조예가 깊었으며 특히 효종의 신임이 두터워 왕을 도와 北伐計劃을 적극 추진했고, 朴世采·尹拯 등 명신들을 천거했는데 글씨에 뛰어났다. 여주의 기천서원에 제향, 시호는 文簡 著書：〈沂川集〉文獻：〈仁祖·孝宗·顯宗實錄〉

⑥ 金安國：一四七八(성종九)~一五四三(중종三十八) [조선] 문신·학자, 자는 國卿, 호는 慕齋, 본관은 義城, 參判 正國의 형, 김굉필의 문인, 一五〇一年(연산군七) 生員試·進士試에 합격, 一五〇三 別試文科에 乙科로 급제, 承文院에 등용되고, 이어 博士·副校理 등을 역임했다. 一五〇七年(중종二) 文科重試에 丙科로 급제, 持平·掌令·禮曹參議·대사간·공조판서 등을 지내고, 一五一七년 경상도 관찰사가 되어 각 향교에 小學을 권하고, 農書·蠶書의 諺解와 〈辟瘟方〉〈瘡疹方〉 등을 刊印하여 보급하였다. 一五一九년 己卯士禍때는 전라도 관찰사로 나가 있어서 화는 면하고 파직되었으며 一五三七년에 다시 기용되어 예조판서·대사헌·병조판서·좌참찬·대제학·贊成·判中樞府事·世子貳師 등을 역임했다. 一五四一年 병조판서로서 天文·磨法·兵法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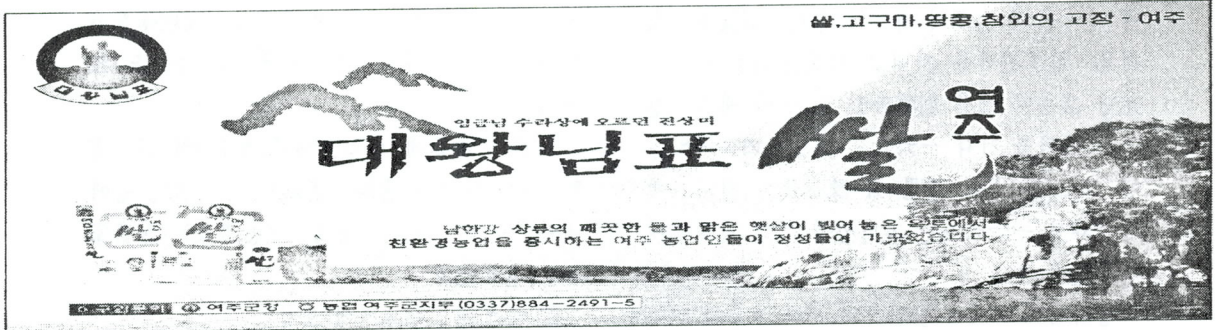
관한 서적의 구입을 상소하고, 水苔와 楮를 화합하여 紙를 만들어서 왕에게 바치고 이를 권장했다. 趙光祖와 함께 至治主義를 주장했으나 급격한 개혁에는 반대했다. 性理學뿐만 아니라 천문·주역·농사·국문학 등에도 조예가 깊었다.

仁宗의 廟筵에 배향, 여주(驪州)의 沂川書院, 利川의 雪奉書院, 義城의 永溪書院 등에 제향, 시호는 文敬, 著書：〈慕齋集〉〈慕齋家訓〉〈童蒙先習〉

⑦ 李彦迪：향교편에 보임

⑧ 洪仁祐：一五一五(중종一〇)~一五五四(명종九) [조선] 학자, 자는 應吉, 호는 恥齋, 본관은 南陽, 僉知中樞府事 德演의 아들, 徐敬德·李滉의 문인, 一五三七년(중종三十二) 부친의 권유로 司馬試에 응시해 합격했으나 벼슬에 뜻이 없어 大科를 단념, 학문에 전심했으며 당시의 巨儒 盧思愼도 그에게 학문을 물었다. 만년에 부친이 병들자 醫書를 연구 마침내 약의 처방을 손수 하기에 이르렀다. 아들 進의 공으로 영의정에 追贈, 著書：〈關東日錄〉〈恥齋遺稿〉

대왕님표 여주쌀



대왕님표 농산물은
여주군수가
품질을 보증합니다

여주지역은 태백산맥, 차령산맥, 그리고 광주산맥줄기로 둘러싸인 황토지대로 가뭄과 홍수에 큰영향을 받지 않는 만년 풍년의 고장이며, 이러한 천혜의 기후환경과 맑고 깨끗한 남한강 상류의 청정지역이 조화를 이루므로써 예로부터 쌀의 고장으로 발달한 지역입니다.

여주쌀은 일명 경기미라고도 불리는 진상미로써 옛날에는 매년 7월 말경부터 생산된 『자채쌀』을 한강수로를 통해 한양에 계신 임금님께 물맛 좋기로도 유명한 여주물과 함께 진상되는등 역사적으로 인정받아 왔습니다.

지금도 여주는 팔당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청정지역으로써 이곳 여주에서 생산되는 대왕님표 여주쌀은 명성에 걸맞는 한국중심, 세계제일의 쌀로 자존심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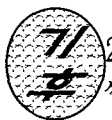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환경친화적 쌀생산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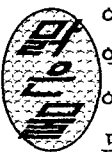
대왕님표 여주쌀이 좋은 세가지 이유



토양중 규산, 유기물 함량비가 높으며 (전국평균 38ppm, 여주41ppm) 사질양토가 평균 30%로 생육기까지 충분한 양분을 공급하여줌.



여주는 한반도 중앙부에 위치하여 한국의 특이기상을 나타냄(4절기와 24절기가 뚜렷함)
쌀의 질은 출수후 벼가 여우는 기간, 즉 등숙기간(약 40일)에 결정되며 이기간 동안 알맞은 일교차는 6℃가 가장 좋는데 여주지역의 30년간 평균 일교차는 6.4℃로 벼농사에 가장 적합.



여주를 관통하는 남한강의 풍부한 수량과 팔당상수원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최고의 수질에서 재배, 친환경 청정쌀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주쌀은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쌀중 환경이 가장 양호한 조건에서 생산되므로 어느지역 쌀 보다도 우수할 수 밖에 없습니다.

대왕님표 여주쌀 구입안내

구 분	설 명		가 격	비 고
상품규격 및 가격	선물세트 6kg	품질인증미	27,000	가격변동
		청 결 미	25,000	
	지대포장 10kg	품질인증지	32,000	가격변동
		청 결 미	30,000	
	지대포장 20kg	품질인증미	61,000	가격변동
		청 결 미	59,000	
품 질 보 증	구입일로 부터 1주일이내 반품 및 교환가능			
구입주문처	농협중앙회 여주군지부 (031) 884-2491			
주문가능시기	연중			
배 달 기 간	주문일로부터 4일 이내			
배달수수료	별도			
반품의 범위	배달과정상 변질 또는 파손품 전량교환 품질불만사항은 언제라도 교환 또는 환불			

여주쌀이 좋은 이유(분석자료)

① 토양이 유기질, 칼슘, 마그네슘 함량이 높아 벼재배에 적합 합니다.

구 분	산 도	인산(ppm)	치환성 양이온(me/100 g)			규산(ppm)
			칼 른	칼 슴	마그네슘	
여 주	4.9	79	0.37	3.3	0.8	79
전 국	5.7	136	0.17	4.0	1.4	86

② 밥맛을 결정하는 등숙기간(출수후 40일간)에 일교차는 6℃가 가장 좋은데 여주쌀의 등숙기간 평균 일교차는 30년간 평균 6.4℃로 기후조건이 알맞은 지역입니다.

월	일(기간)	낮 (℃)	밤 (℃)	차(℃)	비 고
8	11 - 20	31.0	24.1	6.9	등숙기간 (출수후 40일간 적정일교차)
	21 - 31	29.8	23.8	6.0	
9	1 - 10	28.3	22.5	5.8	
	11 - 20	26.1	19.0	7.1	
계		115.2	89.4	25.8	평균 6.4℃

③ 우리나라에서 미질이 가장 좋은 충청벼, 일품벼 재배면적 비율이 높습니다.

④ 미국산(칼로스)과 일품쌀을 비교해 보면 우리 몸의 중요한 에너지원이 되는 지방과 당질, 뼈와 치아를 튼튼하게 유지해주는 칼슘, 인과 소화흡수를 도와 주는 각기병 예방에 효과가 좋은 비타민 B1, 구수한 맛을 더해주는 아밀로스 함량이 낮아 맛과 영양면에서 월등함으로 우리 입맛에 잘 맞습니다.

(100g 당 함유된 영양성분)

구 분	수 분 (%)	아밀로스 (%)	지 방 (g)	탄 수 화 물		칼 슴 (mg)	인 (mg)	비타민B1 (mg)
				당질(g)	섬유(g)			
일품쌀	10.3	19.8	0.82	81.2	0.6	12.3	12.3	0.24
칼로스	13.2	18.8	0.34	6.9	0.2	3.8	11.7	0.14

여주 밤



대왕님표 농산물은
여주군수가
품질을 보증합니다

고구마는 알칼리성 식품이며 각종 비타민과 무기질 및 양질의식이섬유가 다량 함유되어 있어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도 재배가 가능한 저공해 건강식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조선영조 39년(1763년) 일본에 통신정사로 갔던 조엄이 씨고구마를 들여와 우리나라에 보급하였다는 고구마는 여주 대신면 남한강변 충적토와 능서면일대 야산개발지에서 주로 재배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부내륙지방에 위치한 여주군은 고구마를 재배하는데 이상적인 기후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주지역은 수확기에 온도차가 커서 전분축적이 많고 유기물함량이 높을 뿐 아니라 배수가 잘되기 때문에 착색이 좋고 육질이 치밀하여 꼭 꿀밤맛과 같다 하여 “여주 밤 고구마라 불리며 소비자가 즐겨찾는 향토 유기건강식 농산물입니다.

이렇듯 여주산 고구마는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높아 타지역 고구마 보다 가격이 비싸게 형성됩니다. 이에 따라 여주군에서는 고유의 포장디자인을 개발하여 특허청에 의장등록하는등 타지역산 고구마가 여주산으로 둔갑되는 행위를 사전 차단함으로써 여주고구마의 명성을 이어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여주고구마 연구회에서는 오늘도 고품질 고구마 생산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여주 밤 고구마 재배추이

년 도 별	'96	'97	'98	'99	2000	비 고
재배면적 (ha)	356	550	973	1,628	1,434	'99대비 12%감
생산량(톤)	5,231	9,004	15,898	28,045	25,559	

📖 고구마 이야기

고구마의 원산지는 중앙아메리카로서 콜럼부스가 미대륙을 발견하기 이전에 이미 오래전부터 식량으로 재배하여 왔으며 주정용, 전분용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조엄이 대마도에서 고구마를 보고 이것이 구황작물로 중요할 것으로 여겨 씨고구마를 구하여 부산진으로 들여온 것이 처음이었고 이듬해 조엄이 귀국길에 다시 씨고구마를 구해서 동래지방 및 제주도에 심도록 한 것이 시초였다.

◆ 고구마의 특징

고구마는 알칼리성 식품이며 각종 비타민과 무기질 및 양질의 식이섬유가 함유되어 있어 농약을 사용하지 않아도 재배 가능한 저공해 건강식품임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근래에는 고구마의 항암작용과 황산화 작용 및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의 강화작용등 약리적인 효과가 속속 발표되고 있어 성인병 예방 자연식품으로 크게 각광받고 있다.

◆ 영양학적 특징

1. 항암작용

녹황색 채소, 즉 당근 호박등에 많은 비타민A의 전구체인 베타카로틴이 많이 들어 있다.

2. 식이섬유와 알라핀의 변비해소 작용

양질의 식이섬유는 변비해소에 도움을 주고, 특히 생고구마를 자르면 하얀 유액이 나오는데, 이것은 고구마의 상처를 보호하는 알라핀으로서 변비가 있는 경우 변통을 돕는다.

3. 칼륨(K)의 혈압강하 작용

칼륨은 혈압을 내리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피로를 막는 작용을 한다. 또한 고구마의 삶은 즙속에는 판토텐산(비타민 B복합체)이 있는데, 혈압상승작용을 방지한다.

4. 비타민E(토코페롤)의 노화작용 지연

우리 몸 안에는 인지질이 있는데 이것이 산화되어 되어 괴산화 지질이 생성되는데, 이 물질의 생성을 억제하여 피부나 혈관을 젊게 유지해 성인병 예방에 기여한다.

5. 칼슘(Ca)의 지혈효과

칼슘은 사람의 뼈나 이를 형성하는 중요한 성분이며 상처를 입었을 때 출혈을 방지하고 근육이나 신경의 흥분을 억제하는 역할을 함.

6. 중국 고문헌에 실린 약리작용

고구마를 썰어 말린 것으로 차를 만들어 마시면 갈증을 경감해주고 신경과 지라 및 위장에도 좋다고 하였고 혈당농도를 저하시키며 면역 조직을 강화시킨다고 하였다.

21세기 중부권의 명문사학 **여주대학**

명성황후가 어린 시절을 보내고, 세종대왕의 영릉이 있는 자랑스러운 역사의 고장인 여주!

여주대학은 1993년 7개학과 640명으로 출발, 현재 24학과 6000여명의 재학생과 200여명의 전임 및 겸임교수를 보유한 젊은 대학이다. 짧은 연륜에도 불구하고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 온 여주대학은 홍익인간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인간다운 사랑, 아름다운 봉사, 정의로운 실천을 통해 국가와 민족, 그리고 인류공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간교육을 실현하고 있다.



여주대학은 중견 전문기술인 양성이라는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첫째, 학생들의 학습을 우선 시하는 면학제일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멀티미디어시스템이 완비된 최첨단 실습실에서 현장에 직결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철저한 학사관리와 동아리 활동을 통해 공부와 젊음의 끼를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마련하고 있다. 둘째, 현장실습을 우선 시하는 직업교육을 중시하고 있다. 산업현장의 주문은 날로 새롭게 변화한다. 현장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실무중심의 교육과 전공분야의 자격증 취득, 그리고 전문기술 연마를 통해 전문기술인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셋째, 지역사회 개발의 거점대학이 되고자 지역사회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의 현장을 학

교라는 테두리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의 주문식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10만평 규모의 깨끗하고 아름다운 캠퍼스에 메머드급 멀티미디어시스템이 완비된 3000평 규모의 여암학술정보관, 학생들이 편안히 휴식할 수 있는 휴식공간, 학생들만을 위한 여가시설, 10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내 집같이 편안한 기숙사 등 21세 기형 첨단 종합시설을 갖춘 여주대학은 학생중심의 교육을 추구하고 있으며, 중부권의 명문사학 건설이라는 알찬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내년이면 개교 10주년을 맞이하는 여주대학이 짧은 연륜에도 불구하고 눈부신 발전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우수한 교원 유치와 과감한 시설투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학생들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깨끗하고 아름다운 교사(校舍)와 최첨단의 교육기자재를 완비하였으며, 학생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고자 학사운행을 다변화해 나가고 있다.



대학본관



사랑관앞광장

여주대학 전신순(全信順) 학장은 교직원이 가족 같은 신뢰를 쌓아 가는 '감성경영(High-Touch Management)'이라는 독특한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독창적인 학교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학교, 교직원, 학생이 가족처럼 하나가 되어 학교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

여주대학은 지역과 분리된 학교는 있을 수 없다고 한다. 그래서 여주대학의 모든 사업과 교육프로그램은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직결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인근지역 주민의 평생교육체제를 확립하고 강화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원의 기구를 확대하고 강화했고, 지역 내 사회교육 프로그램 및 행사 지원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지역 주민을 위한 복지사업으로,



2000년에는 여주지역 노인들을 위한 영정 사진촬영, 물리치료, 기본건강검진, 안정 제작 등의 사업을 벌였고, 2001년에는 정보화교육, 노인을 위한 가이드북과 정보지 발간, 독거노인을 위한 말벗서비스 등 ...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여주대학이 중점 추진하는 사업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으로 한국도자의 전통과 혼을 계승하기 위한 향토 도자산업 지원이 있다. 이것은 학교에서 추진하는 향토도자산업 거점 대학, 특성화 대학과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특히 작년 세계도자기 프레엑스포에 이어, 도자기 엑스포의 주행사로서 세계 10개국의 민속작가들이 참여하였던 '세계

민속도자워크샵'과 11개국의 현대도자 작가들이 참가하였던 '국제도자워크샵'등의 주요 행사를 주관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여주대학은 지역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창업보육센터를 설립하여 유망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있다.

21세기 중부권의 명문사학, 세계속의 명문대학 건설이라는 원대한 포부를 지닌 여주대학은 전문기술인 육성이라는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5대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첫째, 직업교육 중심의 명문대학

여주대학은 직업교육 중심의 명문대학을 위하여 중견 전문지도자 교육을 강화하고 학생 생활지도 및 진로지도를 강화하는 전략을 추진한다. 날로 새롭게 변하는 산업현장의 주문에 따른 실무중심의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실습중심의 교육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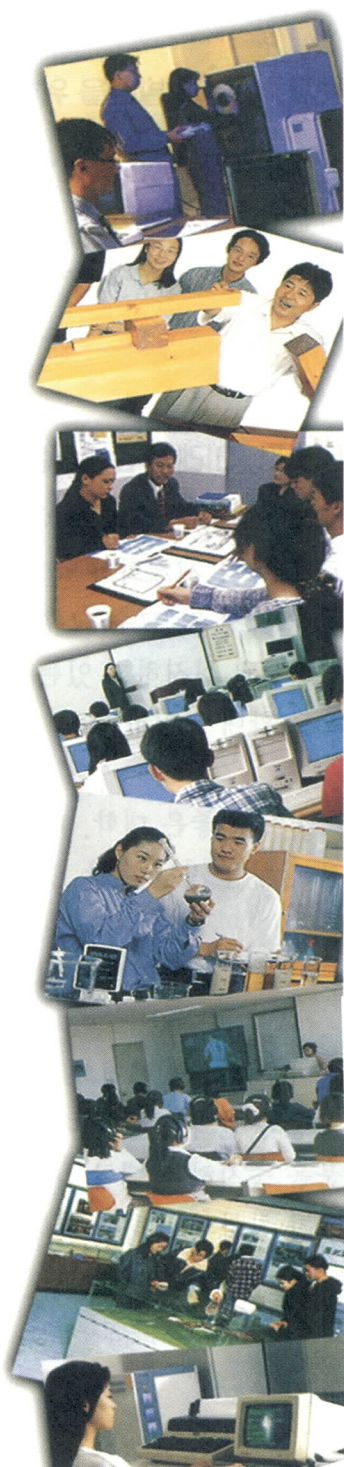
전공분야의 자격증 취득 및 전문 기술연마를 통해 전문기술인을 양성하여, 직업교육을 선도한다. 학생생활 및 진로지도, 졸업생 추수지도, 다양한 연계교육체제 등을 통해 평생 직업교육 체제를 수립한다.

둘째, 교육혁신의 선구적 대학

여주대학은 우수 교원의 확보와 연구 및 교육 능력을 개발하며, 산업체 전문가를 교육과정에 초빙하여 전문직업 교육에 최선을 다하여 강의 평가제, 개방된 교과과정, 다양한 동아리 활동 장려 등을 통해 학생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추구한다. 정보화, 세계화 시대를 앞서 나갈 전문인 양성을 위해 실무 중심의 컴퓨터 교육과 전문 직업인을 위한 외국어 교육을 전교생에게 실시한다. 또한 최첨단의 교육시설을 확보하고 정보인프라를 구축하여 신지식인 교육을 실시한다.

셋째, 지역사회 개발의 거점대학

여주대학은 한반도 중부권의 교육과 연구의 중심 대학으로서 다양한 인성교육을 통해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는 교양인을 양성한다. 첨단 교육시설, 정보화 시설을 지역 산업체와 주민을 위한 개방된 교육 체제로 운영함으로써 지역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다한다.



넷째, 산업체 발전을 위한 중심대학

여주대학은 민족 번영의 중추를 이루는 산업체 발전을 위해 산업기술 개발 및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체제를 확립한다. 산업체 인력의 위탁교육, 재취업 교육 등의 평생교육 체제를 확립하여 산업 발전의 중심대학으로서 소임을 다한다.

다섯째, 미래를 준비하는 세계속의 대학

여주대학은 현재 실시되고 있는 외국어 교육강화, 국제교류부의 조직강화 등으로 교육의 세계화와 국제교류의 활성화를 추진한다. 세계 유수의 꾸준한 교류를 통해 학생 및 교수 교류를 확대 실시하며, 외국대학들과의 교환 학점제를 추진한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오사카 산업대 3학년 무시험 편입이라는 제도를 타 대학으로 확대 도입한다.

젊어서 좋은 대학, 캠퍼스가 깨끗한 대학, 무엇이든 해낼 수 있는 대학, 아름다운 감성을 지닌 대학, 그래서 미래가 보이는 대학!

이것이 여주대학의 이념이다.

여주대학은 행정의 투명성을 통해 교수, 학생이 주인인 대학을 만들 것이다. 사랑과 신뢰가 있는 대학, 현장과 연결된 대학, 현장의 요구를 수렴하는 대학, 학문을 중시하는 대학, 세계 최고의 전문 기술인을 육성하는 대학으로 거듭 태어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驪州養蠶小史



여주군 여주읍 교1리 “언덕말”
여주잠사민속박물관장 **박재명**

여주는 山川이 繡麗하려니와 지형적으로 農事짓기에 알맞는 기후풍토를 갖추고 있어 옛날부터 논농사와 밭농사를 많이 지어온 고장이다.

특히 특용작물로 뽕나무를 심어 누에를 치고 목화과 땅콩 등을 재배하여 농가 소득을 크게 올렸는데 그중에서도 누에농사는 아주 먼 옛날부터 지어왔고 1960년대 들어와서는 여주도 정부의 제 1,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잠업증산 5개년 계획이 적극 추진되었으며 1969년부터는 농어민소득증대 특별사업으로 여주가 농특1. “여주, 이천 잠업주산단지”로 지정되면서 적극 육성되어 (표1참조) 1976년도에는 500여톤의 누에고치를 생산, 경기도에서 제일로 뽕밭규모와 많은 양잠농가를 가진 잠업웅군이 되었다. (표2 참조)

조선조말에도 잠업장려를 한 기록이 있는바

1884년도에 「여주목사가 관내의 봄철농사와 뽕밭 조성실태를 종합한 “여주 목춘등농상정형정책”에 의하면 여주에서는 매년 봄마다 뽕나무, 닥나무등의 나무심기가 연례행사처럼 진행되었다.

1884년 봄 역시 여주에서는 연례행사에 따라 봄철 나무심기에 앞서 각면의 농민들로 하여금 산뽕나무를 따다 집동산이나 논밭머리에 심게 하였다.

이렇게 매년 심은 뽕나무는 8만그루에 이르렀다」고 하였다.

1962년부터 활발한 잠업증산계획이 추진됨으로 잠업규모가 커짐에 따라 여주에는 1964년 1월 10일 여주농고에 양잠과가 설치되었고, 전해인 1963년 9월 13일에는 경기제사공업주식회사 부설로 민간잠업 연구소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경기잠업연구소를 여주읍 하리에 설치, 초대 소장에 한계용박사, 잠종과장에 한창조씨, 시험과장에 고익환씨가 부임되어 누에씨 생산 및 누에품종 개량에 힘써 “경추×연일”과 “경추3×경추4” 품종을 육성하였고 또한 누에인공사료육을 보급하기로 하였다. 1970년 당시 누에씨 생산시설을 모두 갖추고 그해 19,551상자(불월년중 9,482상자, 월년중 10,069상자)의 누에씨를 생산해냈다. (여주군소잠량 14,000상자) 그리고 한잠기계주식회사에서 1971년부터 1975년까지 치잠공동사육장을 여주와 점동면, 능서면에 4동(4,200상자 사육규모)을 설치하고 이어서 1975년 7월 28일 경기제사여주공장을 설치(자동조사기 50대)하였다.

1982년 10월에는 경기실크(직조기 : 광폭자동전직기 80대) 공장이 설치되어 명실공히 잠업웅군답게 잠사관계 모든 생산시설을 갖추었고 행정이나 지도기관에도 전문인력이 많이 배치되어 잠업증산 의욕을 크게 북돋아 경기도에서 선진잠업 모범군으로 발전되어 해마다 중앙의 농림부로부터 잠업포상을 받기도 했다. (표 3참조)

1970년 당시 잠사관계 종사자중 여주군 출신의 중앙 및 도관계 인사 그리고 여주군의 잠업행정지도관의 잠업요원을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중앙 · 농림부잠업과 : 구자록 (대신, 후포리)
박재명 (가남, 오산리)
 - 국립생사검사소 : 이도수 (홍천면)
 - 농촌진흥청잠업시험장 : 박광준 (가남, 오산리)
- ② 도 · 경기도 잠업과 : 박성치, 김창호
 - 경기도잠업검사소 : 이수옥 (점동면)
 - 대한잠사회 경기도지회 : 지회장 - 이용기
상 무 - 이범철
직 원 - 김양성, 손병우, 한재수

- ③ 군
- 여주군청 : 군 수 - 윤석범
 식산과장 -곽정석
 잠업계장 - 이병학
 직 원 - 박용재, 이선우, 심만식
 - 여주군농촌지도소 : 소 장 - 임영순
 기술계장 - 황규홍
 지 도 원 - 조익현, 이유중, 박경린, 유재완
 - 여주농업고등학교 : 교 장 - 홍기표
 교 사 - 김형달, 유병화

- ④ 읍, 면
- 여주읍 잠업담당 : 유만형
 잠업지도원 : 함화영, 민영천
 - 점동면 잠업담당 : 조원중
 잠업지도원 : 이석준, 김원배
 - 가남면 잠업담당 : 임해순
 잠업지도원 : 박용우, 최성규, 김순복, 이대성
 - 능서면 잠업담당 : 표영범
 잠업지도원 : 강성철, 길광호, 임규정, 임필규, 송진호
 - 흥천면 잠업담당 : 권성오
 잠업지도원 : 안준영, 유영규, 이규현, 송원홍
 - 금사면 잠업담당 : 윤인선
 잠업지도원 : 김영춘, 신현홍, 이은원
 - 대신면 잠업담당 : 장기손
 잠업지도원 : 박관호, 구철서, 구본정
 - 북내면 잠업담당 : 김주옥
 잠업지도원 : 서경석, 원종규, 김동평
 - 강천면 잠업담당 : 윤영수
 잠업지도원 : 김규대, 유희영, 김익중

〈표1〉

70년도 잠업현황

경기도

범례

- 양잠호수 22,196 호
- 벼 밭 4,808.5 ha
- 소 잡 51,969 마리
- 고치생산 1,198 M/T
- 생사수출 2,579 천\$
- 잠종생산 5 개소
- 제사공장 2 개소
- 분공장 3 개소

- : 고치공판 100M/T 이하
- : 고치공판 100~300M/T
- : 고치공판 300~600M/T



여주양잠통계 (1957~1976)

〈표2〉

연 도	양잠농가호수		뽕 발 면 적		누에고치생산량	
	경기도(호)	여주군(호)	경기도(ha)	여주군(ha)	경기도(톤)	여주군(톤)
1957	14,531	1,470	2,059	176	262	21
1958	11,727	1,223	1,919	179	237	21
1959	10,364	932	1,614	185	212	23
1960	8,829	1,128	1,719	215	212	25
1961	9,551	1,169	1,751	259	249	30
1962	11,493	1,637	1,912	202	359	42
1963	13,475	1,935	2,730	329	389	46
1964	13,364	2,080	2,750	454	458	57
1965	15,750	2,231	4,064	620	571	73
1966	18,539	2,581	5,361	1,081	665	96
1967	19,373	2,804	4,777	1,022	837	146
1968	20,897	3,214	6,139	1,299	1,302	280
1969	20,613	3,699	6,014	1,375	1,395	299
1970	22,196	4,143	4,804	997	1,198	262
1976 (최성기)	19,237	3,461	4,749	783	2,525	492

〈잠업포상 여주군 수상실적〉

〈표 3〉

년 도	업 적	등 급	수 상 자	수 여 자
1964	뽕밭조성사업 잠 업 유 공	2등 개인	여주군 대신면 특설지구 여주군 농촌지도소 잠업지도원 박용재	농림부장관 (부상 30,000원) 농림부 장관
1965	뽕밭조성사업	3등	여주군 가남면 삼송양잠 특설지구	농림부장관 (부상 10,000원)
1966	양잠특설지구 조 성 사 업	2등	여주군 가남면 양잠특설지구	농림부장관 (부상 20,000원)
1968	잠 업 유 공	개인	여주군 가남면 삼송양잠 특설지구 잠업지도원 원용각	농림부장관
1969	잠 업 유 공	개인	여주군 잠업계 박사선	농림부장관
1970	모 범 양 잠 농 가 상	개인	여주군 가남면 삼송리 박구성	농림부장관 (부상 20,000원)

1970년 전후 여주잡업 화보



◆ 여주잡업주산단지 홍보판



◆ 누에씨 깨기(催靑), (한창조 잠종과장 / 좌)



◆ 누에씨 깨기(催靑) 준비, 김원기(中) 여주농고생 / 우)



◆ 누에씨(蠶種)
배부계획도
(여주, 양평, 용인, 이천,
안성, 화성 = 경기동부)

◆ 누에씨 배부(여주)
작전회의
(새벽에 실시)

좌 / 두번째 박성치
세번째 이병학
네번째 조성용



◆ 애누에 배부
누에를 2령까지
사육한 것을
농가에 배부



◀ 누에고치 풀솜까지
1963년 강천면 잠업지도원
심재덕 (현 수원시장)

누에씨고치(種繭) 검사
경기도 잠업검사소 진석진씨



경기제사주식회사(여주공장)
누에고치 고르기(選卵)

여

백

林隱 李敏坤의 生涯



〈약력〉

碧峰 李鍾立

- 경북 선산 출생(백진인)
- 연대 대학원 수료
- 언론사 기자 13년
- 화신인쇄공사 상무이사
- 사단법인 해외민족문제연구소 회원
- 을미의병 및 화서학과 명예회복
대책위원회 회장
- 사단법인 화서학회 운영이사

1. 家 系

2. 行 蹟

3. 文 集 論

4. 學文과 思想

5. 學 統



▶ 英祖때 蕩平策抗拒 上疏 억울한 流配길 燒死 ◀

● 서 문 ●

朝鮮朝의 21代 英祖때 蕩平策을 強力히 批判해 오던 全州人 『林隱 李敏坤』은 侍講院輔德을 지냈던 儒學者였다. 林隱은 竹性과 같은 性品으로 朝廷에서는 忠貞之士로 알려지고 直言之臣으로 世上을 순란치 않게 제대로 목숨을 보존할 수 없이 지탱해온 淸貧한 선비이며, 만년에 官吏로서 餘生을 不遇하게 보내오다 끝내 유배길에 올라 路宿中道 金城의 야밤중에 불을 짚인 사건으로 火刑처럼 일생을 아아한 혹독한 소사를 당하고 간 『敏坤』의 生涯와 자취의 기록을 찾아 林隱集을 중심으로 적고자 한다.

① 林隱의 家系

李敏坤은 肅宗 21년(1695 - 1756) 朝鮮後期 文臣으로 京畿道 漣川郡 君南面 王林里에서 태어났다. 先營은 漣川邑 釜谷里 문지터(다락터 = 현 구사보호지역) 가마본산 밑에 묘가 있다. 敏坤은 字는 厚而. 號는 林隱이며, 世宗 第8子 2女증(昭憲王后 : 淸州府院君 沈溫의 딸) 永膺大君 諱琰(敬孝公)의 9世孫이도, 8代祖 源은 淸風君이며 7代祖 洵은 隋城君, 6大祖 孝念은 廣津副君, 5大祖 應霖은 忠義衛에 封해졌다. 이후 한때는 宗籍에서 떠난후 高祖인 挺然은 濟源道察訪에 曾祖 圭明은 鎭安縣監을 지냈으며 祖父 萬材에 이르러 文科에 入格하여 청반에 올라 瑞光이 잠시 거쳤을 뿐 贈 吏曹參議였던 父 幹紀의 아들

이다.

肅宗 15년(1689) (희빈 張氏의 소생 世子 책봉 반대운동 : 우암 서인파의 파동) 己巳換局을 만나 仕路가 險難하여 漣川으로 隱居하게 되고 그때부터 家勢는 다시 기울어지고 말았다. 따라서 자손까지 이어가지 못하자 조부 萬材는 無后로 동생 萬樞의 아들 幹紀를 入養한다. 이분이 林隱의 아버지이다. 어머니는 綾城 具氏 通德郎 奭에 딸로 肅宗 을해년(1695) 1월 22일 子時 蓮池契盤石坊에서 敏坤을 낳으셨다. 林隱 어린시절에 不遇한 還境에 9세때 父(33)를 여의고 12세에 조부상을 당하여 졸지에 孤兒가 되니 부득이 生祖父 萬樞인 郡守公에 의지해야 했다.

② 林隱의 行蹟

여기 林隱은 타고난 天稟은 聰敏하고 어려서 환경에서 자라난 堅毅質朴한 意志와 生活은 오직 열심히 學問을 닦아 立身揚名 家勢를 振作코자 정열을 쏟아 무릇 凡兒들과는 남달랐다. 林隱은 科舉學問보다 爲己之學에 뜻을 담고 先生은 四子(周, 程, 張, 朱) 小學, 心經, 近思錄 등 性理學에 뜻을 두고 弱冠 이전에 배움을 떨쳤고, 豐壤趙氏 通德郎 良輔의 딸을 妻로 맞이하였으나 상처로 두 번째 配 淸州 鄭氏와 婚姻하여 아들 『淞』과 『澗』 두 형제를 두었다. 長子 淞은 비로소 가도를 갖게 되니 否極泰來의 기운이 솟아 새 삶을 누리게 된 것이다. 이렇게 林隱遺稿에 나타난다. 그가 23세때 大學者 黎湖 朴弼周 先生의 門下에서 性理學을 배우고 禮說의 大家 厚齊 金翰幹 先

生과 洛論의 代表 陶庵 李緯先生과 함께 學問의 論과 政治의 (黨色) 路線을 같이하여 一大 轉機가 되면서 나이 32세에 司馬試에 합격하여 우연히 앞을 보는 기회로 大儒로 성장했다. 그러나 처음부터 宦路에는 뜻을 두지 않고 文學研究에만 專念으로 『古今人道四七理氣諸說辨職』, 『心有善惡辨』, 『五子近思錄辨』 등을 저술하고 學界의 重望을 얻었다. 그리하여 林隱은 學問으로 크게 나아갈 수 있었던 그가 中途에 벼슬길에 나아가게 된 것은 어릴적 실소한 姪桂(判官書)의 泣請 때문이었다. 이러한 계기가 先生의 剛直한 性品에는 걸맞지 않고 仕路에서 失意에 빠지게 되며 學問도 계속 못하게 된 不遇한 갈림길이 되어 안타까움이 서려있다.

1726년 사마시에 합격한 후 40세(1740) 文科(增廣試)에 등재로 비로소 出仕하여 때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타고난 天性에 學問이 高明하고 理論과 文章이 뛰어나 朝廷에서는 越次로 承政院注書에 除授하고 이어서 司憲府持平에 移拜되고 經筵에 나아가 왕에게 義理를 밝히고 言路를 열 것이며 왕 자신이 잘못을 뒤우치고 어진 신하를 登用할 것을 極言까지 하였으며 또한 疏를 올려 『蕩平策』을 假託, 새로운 당파를 세우는 時任政丞 宋寅明과 趙顯命을 彈劾하니 왕의 노여움을 사게되어 削職까지 당하여 많은 政敵을 自招까지 했다.

51세에 다시 保寧縣監이 되고 勸農興學에 힘써 善政을 베풀었으며, 蕩平策을 假託한 왕과 大臣들의 잘못을 충고하여 蕩平策의 典據인 書經의 洪範九篇을 研究하고 『皇極衍義』를

저술하여 이것을 왕에게 바쳤다. 이것은 前年에 蕩平策 반대로 인해 받은 왕의 처분과 大臣들의 극렬한 論難에 不服하고 論爭을 거는 계기가 되었으니 林隱의 大無畏의 精神과 是非를 가리고 마는 直截한 性品은 하나의 문제에 열중하면 끝까지 初志一貫으로 強力한 執念을 지녔기 때문에 先生의 仕路는 처음부터 險難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당초 敏坤의 家門은 老論이 아니었다. 아래와 같이 살펴보면 祖父 萬材(官止禮曹佐郎)와 父 幹紀(通德郎)는 白沙 李恒福과 東溟 鄭斗卿을 모셨다가 世稱 西南人이라고 비난까지 받았으나 林隱代에 와서 老論인 文谷 金壽恒, 尤庵 宋時烈 제파의 黎湖 朴弼周와 陶庵 李緯에게 배움으로서, 다시 骨老論化되고 이 무렵 老論派들의 蕩平策이 王權의 制止에 의해 少論으로부터 상거 받은 것이 회복할 수 없는 형편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政局에서 선생이 1744년에 맡은 官職은 왕에게 直諫하고 官紀를 관장하는 일로 왕을 위시하여 大臣들을 敏坤으로 하여금 잘못을 彈劾하는 사헌부지평, 집의, 사관원 헌납, 司諫이었으니 그 벼슬이 조용할 일이 없었다. 品階는 비록 높지는 않으나 職權만은 서리말 같은지라 骨老論派의 先鋒將이 되어 집권파의 대신들과 맞서 正論을 세우는 싸움에는 오히려 王命을 抗拒하는 것과 다를바 없는 시대상황의 國是인 蕩平策을 反對하였으니 臥席終身하기는 어렵게 된 것이다.

60세에는 司諫이 되고 그대에 正言 趙時溥가 영상 李天輔를 論劾하다가 왕의 미움을 사

귀양을 가게되니 上官으로서 그냥 있을 수가 없어 世子(世子가 代理聽政을 함)에게 항의하기를 『言路를 막는 것은 실로 亡國의 根本이 됩니다. 또한 相臣은 君上이 納諫하도록 보필함이 무엇보다도 앞서는 職務이거늘, 도리어 자기를 변호하고 言官을 罪를 주게하니 이것은 은연중 朋黨을 衆合하는 뿌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왕께서는 30년 동안이다 朋黨을 파하는데 힘써 왔으나 만일에 와서는 上官들에게만 의존하니 이것은 도리어 하나의 黨을 새로 세우는 것이나 다름이 없으니 이를 구하는 길은 오직 言路를 開放하고 輿論을 살피서 받아들이는데 있을 뿐이니 儲下는 父王께서 조용히 말씀드려 言官을 罪를 준 처분을 거두어 言路를 밝혀 여는 美德을 보이도록 하십시오』라고 했다. 그런데 小朝(世子가 보는 政府)는 받아들이지 않고 왕의 처분에 抗拒했다하여 安州로 귀양보낼 것을 命하자 이 소식이 大朝(王을 가르침)에 알려지자 大怒하여 더 먼 곳 巨濟로 보내라는 嚴命을 내렸다가 왕이 직접 疏狀을 확인한 후 다시 영원히 仕籍에서 削除하라는 命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이 처분은 그해에 1755년 일어난 逆獄이 다스려지면서 나라의 慶事라 하여 赦免되어 다시 侍講院輔德으로 승진까지 했다. 이 무렵에 世子는 英祖와 알력이 극심했던 思悼世子였다. 林隱은 學問이 該博하고 禮說에 精通한 선비로서, 英祖께서 大廟祭享에 酒를 쓰는 것을禁한 것이니 禮에 어긋난다고 항변으로 『太祖享祀不可廢酒論』을 上疏하니 王은 理論上으로는 승복할 수 밖에 없었으나 內心으로는 不

快하게 여겨 역시 왕의 미움만 사고 용납하지 않았다. 또, 다시 萬古是非의 溫床이라고 불리워지는 司憲府執義와 이어서 司諫에 任命되고 林隱은 不義와 妥協할 줄 모르는 直言之臣으로 生命을 不吉하게 短命을 갖는 예감이 엿보이게 된다. 先生이 崔임으로 江都留守 趙英國의 瀆職事件이 발생했다. 그래도 왕의 신임을 받고 있는 權力者인지라 그를 論劾한 正言 尹耆東은 嶺南으로 放遂되고 이 사건을 조사한 李海重은 緘口하고 이것을 참다못한 林隱 敏坤은 王앞에 나아가 趙英國의 瀆職内幕을 낱낱이 밝힌바 王은 그를 두둔하여 덮어두고 한 것은 잘못이라고 直言하니 王羞怒한 후 六鎭(咸鏡道)으로 放遂하라는 嚴命을 내리니 이토록 억울한 일이 또 어디 있겠는가 말이다. 그러나 敏坤은 강권에 굴할 줄 모르는 性品은 승복할 리가 없었다. 그래도 王命에 어찌 할 수 없이 귀양가나 끝내 是非와 正邪를 가리겠다는 義憤에 가득찬 先生은 아들(號 : 老樵 : 實學者)에게 이르기를 『내가 만일 六鎭에 도착한다면 내년 봄에 옛 사람의 謫中上書의 예를 본받아 平素하고자 했던 말을 王에게 述吐할 것이다. 만일에 方伯(觀察使)이 이를 막으려 해도 나는 끝까지 上達되도록 관철할 것이니 너는 그렇게 알고 있으라 ……』는 말을 남겼다. 이 말이 政敵들에게 傳해지지 않을리 없고 그들은 멀리 귀양을 보내면서 마음이 편할리가 없었을 것이다. 流配를 떠날때는 嚴冬雪寒 北嶺으로 떠나니 行脚은 처절하리라 생각하고도 남는 일이었다. 그해 10월 5일 金城縣에 이르자 모질게도 추운 날씨에

눈이 깊이 쌓이고 저울칠 감기에 걸려서도 몸소 지탱하면서 奴僕들에게 내일이면 일찍 뜰 것이니 미리 여장을 갖추고 자도록 이르고 난 후 아들과 같은 방에서 침수에 들었는데 밤중에 역사에 불이나 敍坤은 이 불더미에 쌓여 최후를 마치고 만 것이다. 이 무렵에 훗날 實況을 아들 淞은 다음과 같은 말을 슬회한 말이 다.

『그 날밤 昌道驛에서 하루밤을 새우게 되었다.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지나온 경로를 불러 주시며 記錄할 것을 命하시어 여러장 紀行을 쓰고 난 뒤 잠자리에 들었는데 夜半이 못되어 아버님은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발로 차면서 나를 깨우시면서 빨리 문밖으로 나가라고 소리를 치시는 것이었다. 나는 얼떨결에 뛰쳐 나가니 불길의 이미 처마에 휩 돌았고 연기가 팍 차였고 지척이 분간하기 어려웠다. 나는 엎드려 더듬어 가면서 아버지를 찾았으나 알 수가 없었다. 연기에 질식하여 쓰러졌는데 마침 뛰어 나오던 奴僕의 발길에 부딪쳐서 발견되고 그에게 업혀서 구출되었다. 거의 한시간이 지나서 의식을 찾았을 때 비로서 아버지께서 무사하지 못함을 알았다고 한다. 그때 時角은 6일 亥時였다고 한다. 이날은 날씨가 마저 바람은 땅을 말 듯이 새차게 불었고 밤은 칠혹같이 어두웠는데 敍坤은 불이 난 것을 누구보다 재빨리 알아 차려서 아들을 깨울 정도였는데 자신은 피하지 않은 까닭은 무엇인가? 그의 自身은禍를 피할 길이 없다고 여겨졌기 때 문으로 보여진 것으로 짐어지고 있었다.』

이 慘變이 朝廷에 전해지자 왕은 위양을 물

고 官爵을 다시 회복시키고 특히 都承旨를 贈職 禮曹에 命하여 恤典을 베풀고 影幀 2폭을 하사까지 했다. (官服, 儒服 각 1벌씩) 이렇게 까지 한 것도 王도 林隱이 政勢로 不利하게 되었이 放逐되었음을 잘 알고 해서 마음으로 미안하게 생각한 부분인 것 같다. 그렇지 못하다면 罪人의 죽음에 厚待를 할 리가 없다고 여겨진 진상이다 林隱의 墓所는 처음은 遺命에 따라 漣川에 썼다가 뒤에 鐵原文址里에 이장하여 淑夫人 豐陽趙氏와 命柩했다. 둘째 부인 淸州鄭氏 鑑女와의 소생 後孫이 지금까지 이어 오고 있다. 현재 漣川지역에 後裔들은 郡南面 黃地里(옛 38以北 전곡) (땅골) 李相雨(69)씨를 비롯하여 8세대를 살고 있으며 敍坤의 直系孫 曾孫 『宏』때 (서울 팔각정에 살았다고 전해짐) 약 200여년전 처가곳 (昌寧成氏集村: 驪州 興川 卜大里)으로 移住하고 5代 - 6代孫이 石溪월에 고래살 들녘을 마주하고, 지금 林隱의 10代孫 章烈(77)씨와 11代孫 在寅(53) 농업, 在龍(50: 高麗大 哲學博士), 在珏(48) 농업을 하고 건재해 있다. 한편, 全州李氏 世宗王子 永膺大君派譜에 보면은 8代孫 『甲洙』는 純宗 24년(1819년 - 1919년) 乙未 獨立萬歲 煽動義舉日에 參與하다가 1919년 4월 23일 日本 憲兵隊에 受刑을 당했다고 적고 있다. 그리고 현재 宗孫 章烈(77)씨에 의하면 林隱의 죽음을 안타깝게 여겨온 漣川지방 儒林에서 뜻을 기리기 위하여 『受賢書院』을 세워서 祭享을 받들어 왔으나 高宗때 書院 철폐령이 내리면서 없어졌다고 전한다. 그러나 기록상이나 근

거되는 자료는 전혀 남김이 없다. 여기 여주군 흥천면 복대리 지역에 11세대가 살고 있으며, 章烈씨의 家屋 옆 『林隱齋』(影幀閣)에 影幀이 所藏되어 있다. (官服과 儒服 소장)그들 추모하기 위하여 자손들은 매년 秋享에 임한다고 한다. 先生은 栗谷의 學問과 經論을 평소 箴銘으로 하고 言論을 열고 行事に 임함에도 조금도 소홀함 없이 자신의 安爲를 計較함이 없이 오직 直心衷情대로 세상을 살아온 분이다.

여기서 忠貞之士가 세상을 순탄하게 살다가에는 없고 특히 直言之臣이 제대로 목숨을 보전할 일이 없다. 그러므로 先生의 不遇한 것은 어쩌면 必然的인면이 보이며 후세들에게 주는 敎訓은 强直한 것이 선비정신과 國政刷新을 위한 生涯의 일념으로 살아온 史觀은 앞을 예측하듯 짚어 갔으나 참다못한 비운속에 세월의 여운이 더욱 짙은 恍惚이 느껴지듯 하다.

③ 林隱의 文集篇

林隱集의 著者 李敏坤은 처음부터 科學出身이 아님이 확인된다. 어릴적부터 學問에 뜻을 두고 性理學과 文章學에 一家를 이룬 후 晩年에 벼슬길에 나아간 學者출신 官원이었으므로 당시 官吏중에서도 志節面이 뛰어나고 특히, 骨老論(蕩平策非判勢力)의 喉舌이며 文筆의 代表로써 政治一線과 學界一般등에 크게 활약했던 人物로 遺文의 量과 質에도 18세기 증엽 老論계열에 學說과 文章을 대표 할만한 재질이였다. 그러나 앞에서 生涯를 언급했듯

이 著者 自身の 仕路가 不遇했고 한동안 老論이 屢次에 文集이 刊行되지 못하고 후손 大學者인 아들 淞(號: 老樵)으로 하여금 文集體制를 갖게된 筆寫本으로 編輯되어 8冊 16券이 家傳해 왔으나 家勢의 貧困과 政治的 關係로 오래도록 묻혀 왔었다. 당시 蕩平策을 반대하던 老論의 代表的 人物 金有慶(1669 - 1748)의 遺稿 龍谷集이 지금까지 筆寫本으로만 전해오듯 같은 경우이다. 비록 자손들이 勢窮力盡하기도 했으나 祖上의 遺籍을 生命과 같이 소중히 간직하고 250餘年동안 여러차례 兵火를 겪었으나 끝내 보존에 成功하여 오늘날 刊行을 보게 되었다는 것. 古人이 말한 『立言』의 不休함을 實感하게 한다. 遺論 모두 8冊 16券으로 되어있다. 그 遺篇의 編次에 따라 概略的인 內容을 보면은 第1冊 1券에 詩가 약 180首가 실려있고, 2券에 疏가 6篇이 記錄되고 있다. 林隱은 性理學에 힘을 싣고 思辨的인 理論에 밝고 辯難文에 長하여 상대적 詩文을 일컫지는 않았다. 의외로 山川風物을 吟詠한 점이 많고 剛直한 性品보다 그윽한 內面에는 순결한 情感이 흐름도 읽을 수 있겠으며, 또는 紀行삼아 쓴 試句를 통해서 우리는 林隱의 趣向은 역시 아름다운 자연속에서도 연류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하면 서도 林隱은 學通과 黨色의 畛畛를 벗지 못하고 歷史意識 儒者에 志節등 固執的인 면이 詩情 속에서도 激動하고 있으니 『讀趙重奉先生抗義篇有感』이란 五言詩는 무려 180句나 되는 長篇으로 되어 있어 그 氣息의 執拗함과 激情의 傾倒함이 얼마나 強烈한지 짐작케 한

다. 그러나 英雄도 當因하면 그 心腸이 柔弱해 지듯이 六鎮으로 放逐되는 道中에도 아들 湫에게 준 두수의 詩가 그의 終末을 직감했음인지 평소 傲氣에 차 있어 凜凜하기만 하던 그가 氣概가 꺾이고 자신의 限界를 위우치기나 하듯 자못 柔弱하고 悲切하다.

『去歲遷南客，金朝又北行。平破着世路，離合驗人情。未效匡君益，徒成罪諫名。嚴程猶有興，流水喜新聲』 詩의 句節을 보면은 “지난해 남해로 쫓겨가던 몸이 오늘은 북녘으로 방출되어 가네. 平溫과 險難이 交差되는 세상길에서 만났다 헤어졌다 가진 인정 다 맞보았네. 내 임금의 잘못을 바르키지도 못하고 極諫한 罪名만 쓰고 쫓겨나다니 귀양길이 아무리 살벌하다지만 그래도 詩興을 돋우는게 있어 문득 생기 발라한 물소리를 들으니 아니 기쁜가?”

『興龍豐沛地，泣珥孤臣行。弱草威霜重，嚴風病葉輕。思波滋一物，流放赤生成。陶兀應猶在，受塵淚自橫』 “일찍이 우리 李性이 발상했던 곳을 눈물로 결별하며 孤臣은 떠나간다. 풀잎은 무거운 서릿발에 내려 쇠잔하고 나무 끝에 매달린 잎은 찬바람에 가날프게 떨고 있다. 一物까지도 君王의 은택 아닌 것이 없다고 하니 귀양가는 것 또한 生成의 뜻이 아니겠는가? 醉夢中에도 오히려 精神은 맑아 客身할 곳을 준 君王에게 감사하여 눈물 흘린다. 이러한 情緒生活과는 달리 林隱의 政治선에서의 言論을 秋霜烈日과 같이 전율감을 주었고, 어떤 權威에도 굽힐 줄 몰랐다. 2券에 수록된 6篇의 上疏文은 앞선 내용들을 증명하고 당시

林隱이 처한 정치노선과 당색이 비판적 입장에서 자리했고, 정치적 내막을 思考하는데 史料的 가치를 지닌 것이다. 그 당시에 주요 政剛이 蕩平策이었고, 후세 사람들은 일방적으로 이를 좋은 政策으로만 알고 있었다. 사실은 그렇지도 않았다는 것을 『以持平對辦右議政趙顯命疏』와 『以保寧顯進皇極衍義疏』를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중요한 시대적 의미를 여실히 나타내고 있다. 第2冊 3.4卷에도 疏書가 실려있고 3券에는 侍講院의 司書 弼善 등을 지냈던 때 疏들이어서 앞의 소와 性格이 다르다. 즉, 前 疏가 彈劾과 是正을 촉구했지만 여기는 陣戒를 敎訓의인 글이다. 여기 4卷에는 앞의 陣戒疏外에 특히 文正公 宋時烈과 宋浚吉의 請從享文廟書가 代撰으로 3篇을 실려있어 주목할 만하다. 이렇게 정리로 林隱의 당시 위치가 老論의 喉舌이요, 文筆을 대표했다는 증명도 피고 그 文章의 格調가 高高하고도 滔滔함의 찬란함에 금할 길이 없다. 그래서 과연 英祖가 그 疏를 쓴 사람이 누구냐고 묻기까지 했다고 傳한 말은 헛되지 않음을 알 수가 있다. 第3冊 5,6卷에 師友들에게 보낸 書簡文이 실려있다. 6券은 書札이 실렸는데 縣監으로서 道伯등 上官에게 올린 글은 여러편이 있고 주목할 만한 것은 『興韓敬浦』(翼莫) 글로서 여기 기록은 임은이 우리나라가 三面이 바다로 둘러 쌓여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그 海防의 重要性을 강조하고 島嶼들 중에는 版圖에 들어 있지 않는 섬들이 많으니 이것을 조사하여 諸島를 統管하는 部署를 두도록 하고 軍官을 보내어 海防에 힘쓰도록 건의한 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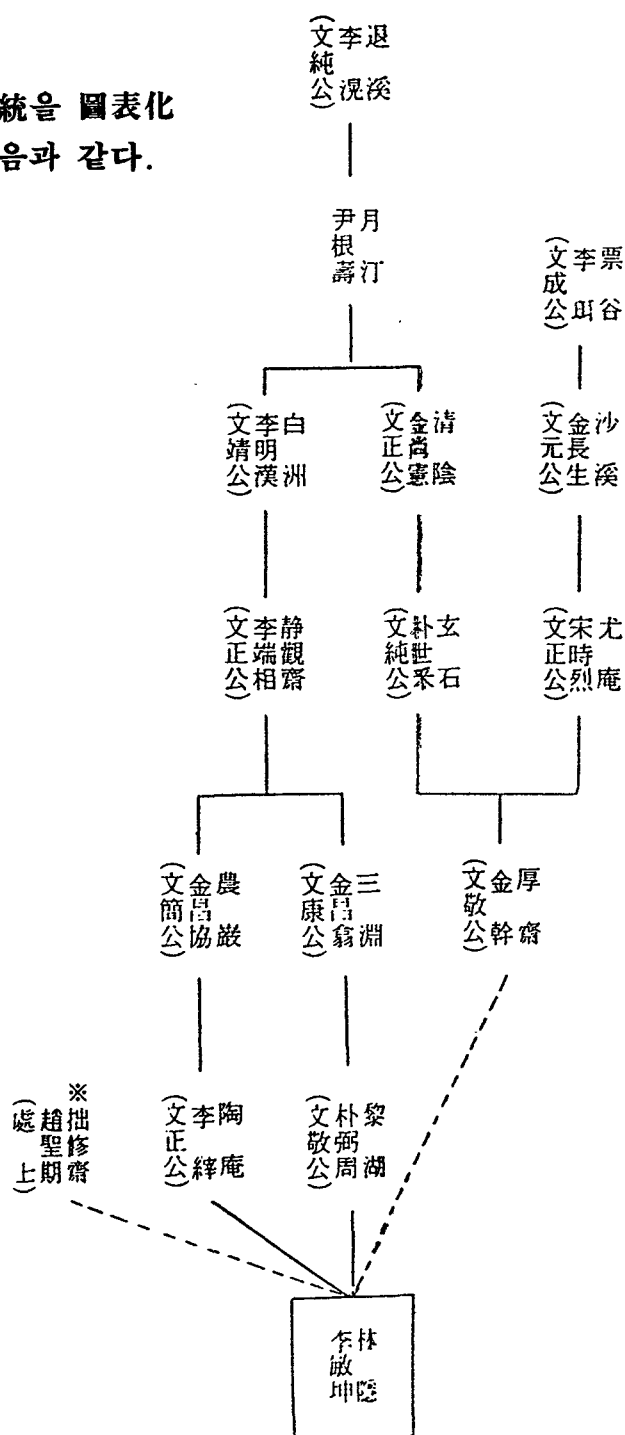
第4冊의 7,8卷은 書, 序, 記, 跋 등의 글이 실렸는데 7卷은 3冊과 같이 書札이 수록되고 (예를 논한 것) 8卷에는 序, 記, 跋, 類의(山川과 風教를 피력함) 글이 수록되었다. 第5冊 9,10卷에는 雜著와 歲銘이 실려있어 學術 史料의인 가치가 가장 많이 있는 부분이다. 9卷에는 수록된 『古今人道四七理氣諸說辨識』 『心有善惡辨』 『孔子不仕調論』 『夫婦說』 『師服設』 등은 性理學과 禮論에 관한 것으로 林隱의 學說研究에 主要文獻이며 10卷에는 주로 門生과 兒輩들에게 준 글이 수록되어 教育思想을 이해하는데 의미가 있다하겠다. 第6冊 11,12卷에는 祭文만이 기록되고 있다. 여기에 林隱의 家系, 學系를 파악할 수 있고, 第7冊의 13,14卷의 哀辭와 行狀에도 林隱의 遭遇와 對人關係의 情分을 짐작할 만하다. 第8冊 15卷에는 역시 전권에 이어서 行狀 遺事등을 전하고, 16卷은 『皇極衍義』의 序와 全文이 실려있어 그의 학설과 사상, 그리고 당시의 정견을 알아 보는데 全文集中가장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다. 이것은 林隱이 學問을 하고 벼슬을 살던 때가 英祖때이며 이때에 특히 정책이 蕩平策이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 蕩平策의 哲學思想的 根盤이 되었던 洪範九疇의 皇極을 衍義했다고 하는 것은 그 시대의 대표적 학술저작으로 인정되는 바로 林隱遺編의 존재가치가 마지막 16卷에 있다 하겠다.

= 學文과 思想 =

學系로 보면 朝鮮中期 이후 儒學者들의 學統

은 주로 黨色과 地緣을 기반으로 形成되어 栗谷과 退溪계열이 黨, 學면에서 모두 分명한 對立을 보였으나 17世紀 중반이후 老論계열에서 農巖 金昌協, 三淵 金昌翁 兄弟와 大學者가 배출로 종전의 黨色이나 學派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게 되고 栗退를 折衷하고 克服하는 發展的 學說을 展開하는 새로운 轉機가 마련되니 18世紀 初에 일어났던 心情論 是非는 즉 湖洛論爭은 그러한 背景에서 形成된다. 林隱直系스승은 文敬公 黎湖 朴弼周(1665-1748)이며 傍系로 文敬公 厚齊 金幹(1646-1732)과 文正公 陶庵 李緯의 門下에 出入했다. 朴黎湖는 金三淵의 弟子이며 李陶庵은 金農巖의 人門이다. 農巖, 三淵, 兄弟는 文正公 靜觀帝 李端相에게 學을 받고(農巖은 靜觀帝의 사위이다) 李西湖는 文靖公 白州 李明漢에게 李白州는 月汀 尹根壽에게 배웠다. 한편 金厚齊는 文純公 玄右 朴世采와 文正公 宋時烈에게 배웠고, 朴玄石은 淸陰 金尚憲에게 宋尤庵은 沙溪 金長生에서 各各 배웠으며 沙溪는 栗谷으로부터 淸陰은 尹月汀(退溪門人)에게 師事하였으며, 政治的 路線으로 보면 栗谷과 尤庵의 月汀 靜觀齊를 거쳐 온 三淵系列에 속하며 拙修齊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林隱의 學統은 圖表化 해보면 다음과 같다.

※ 林隱의 學統을 圖表化
해보면 다음과 같다.



이 계보는 임은 이민공을 중심으로 그린 것이므로 그에게 연결되는 계통만을 밝힌 것이다.

林隱은 文章에 能했으며, 思辨의이고 理論에 밝으며 일찍이 性理學에 뜻을 갖고 26세 젊은 나이에 厚齊 金幹(당시 72세)과 性理學 討論까지 하였다.

(1) 先賢·性理學에 대한 論議

- ① 道에 體用之分論
- ② 情·志·意의 三者의 論議
- ③ 格物致知論
- ④ 節齊太極圖註論議 陰陽未生之說
- ⑤ 退溪의 理氣諸說辨議

(2) 古今人道四七理氣諸說辨議

- ① 退陶栗牛注復辨論 綜評
- ② 林隱『論理氣須在心上說』
- ③ 拙修齊 趙聖期の 心合理氣說

(3) 心有善惡辨 이상은 學問과 學脈의 要略한 부분이다.

◆ 思想은 ………,

이 思想面에는 學問을 따라 사람들은 그의 『皇極衍義』를 代表的인 것으로 알려진다.

① 皇極衍義를 記하게 된 動機, 英祖는 등극하자 그가 世弟에 겪은 黨爭의 慘禍를 終息코저 蕩平策을 내세워 각 黨派로 하여금 잘잘못은 일단 자제하고 和合으로 돌아설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西人들은 分出한 老論과 少論이 연립정권을 세웠다고는 하지만 實權은 少論 손아귀에 들어가 老論의 요구에는 요지부동이었다. 본래 蕩平이란 尚書 洪範九疇의 第皇極에서 나온 말로 王道를 펴는 根本이지, 이미 偏黨으로 갈라서서 오랜 세월동안 옆치락 뒤치락 엮어 내려온 是非의 역사를 不門曲

直하고 一掃해 버리는 武斷의 政策은 아닌 것인데 대하여 그러나 英祖가 내건 蕩平策은 겉보기에는 不偏不黨하게 王道를 펴가는 좋은 방법 같으나, 실제의 政治에서는 歷史의으로 累積된 是非曲直을 再論 못하게 막는 武斷의 一面이 있으나 이에 老論四大臣의 억울한 죽음의 伸冤길을 막아 小論들에게 더 없이 便宜한 政策이라 하며 老論에게는 마치 입에 자갈 물린 재갈 갈아서 불편하기 이를 때 없는 惡法인 것이다. 이렇게 利害相反 관계에서 老論에 속했던 임은이 蕩平策을 좋아 할 일이 없었으니, 王을 비롯하여 執權黨인 小論은 神聖不可侵의 天則처럼 내세우는 蕩平策을 비판하자니 자연 그의 典據인 尚書 洪範九疇의 皇極의 眞意를 밝히지 않을 수 없어 『皇極衍義』라는 글을 써서 英祖에게 上疏한 것이다. …… “이하 생략”

◆ 林隱의 處世道와 『直』 思想

林隱의 學問理論은 農巖, 三淵, 拙修齊 등 折衷派의 영향으로 退栗을 함께 비판하고 『心』을 重히 여겨서 理氣論爭의 疑難을 풀려고 하였다. 그의 學說은 꼭 栗谷계열을 고수하지 않았으며, 그러나 政治路線은 勿論 그의 思想은 어디까지나 老論의 傳統을 고수하였고, 특히 沙溪, 尤庵으로부터 傳授된 直思想은 그의 處世之道로 엄하게 지켜졌었다. 그는 태어나면서 남다르게 剛直한 性格이었었고, 이것은 그를 偉대한 人物로 만들었지만 또한 生涯의 艱難하게 만들기도 했었다. 그 이유는 타고난 性品에다 다시 『直』자를 내걸고 강한

무장으로 살아왔다. 그가 30세에 元朝에 지었다는 四箴의 마지막 應物箴에 이미 『直』字를 箴銘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林隱의 『直』思想은 政治的 主義思想뿐만 아니라 世上을 살아가는데 基本姿勢로 여겨진다. 그는 四箴 마지막에서 다음과 같이 『直』을 表現하고 있다. 『일에 어려운 곳이 있거든 반드시 理로써 헤아릴 것이요. 計較하는 心を 버리고 오직 「直」字로서 對應한다.』

(事有難處, 必揆以理, 勿主計較, 惟一直字) 孔子가 30세에 立志했다고 한다. 志는 삶의 主意를 目標에 指向한다는 뜻으로 林隱이 30세에 세운 指向이 바로 『直』이었고, 이는 그의 一生에 부끄럽지 않게 지켜주었다. 비록 險難한 生涯였지만 또한 『直』思想은 林隱의 中心 哲學이기도 하지만 그의 아들 淞과 姪 澐에게 같이 보낸 書信에도 『直』을 말하고 『直』으로 살 것을 당부하였다.

【하늘이 物을 生함에 오직 直일 뿐이다. 그러하여 孔子도 『人之生也直』이라 했고 朱子는 이를 『生理本直』이라고 풀이했으며, 장차 유명하려 하자 弟子가 가르침을 請하니 『天地之生方物, 聖人之應方事, 惟直而已』라 했다고 한다. 사람이 『直』하지 못하면 그 삶의 理를 잃고 生の 理를 잃으면 그 性을 잃는다. 是非는 陰陽과 같은지라 是非이면 非다. 너희들은 마음을 세움에 있어서 모름지기 하늘이 나에게 준 것이 오직 『直』 뿐임을 알아서 是와 非 사이에서 便宜를 취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訓示가 뚜렷이 나타난다. (四物箴: 論語에서 禁止 四가지일, 예가 아니면 ① 보지를 말고

② 듣지도 말며 ③ 말하지도 말며 ④ 움직이지도 말 것)

◆ 林隱의 生涯와 學問을 맺는말

林隱은 지금까지 家系나 學問과 學脈, 思想을 遺稿集에서 나타나는 데로 보살펴서 著作된 내용을 근거로 정리하면서 그의 生涯를 펴내기란 어려운 일이 있었으나 다행히도 遺集 解題로 인해서 紙面上 요약한 바를 엮은 것으로 되어있다. 끝으로 林隱은 벼슬에 나아가지 않고 一生을 學問에만 전념 했었더라면 그의 生涯는 順坦했을 것이며 學問으로 업적을 남기고 成功한 선비로 마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깝게도 그는 본래 마음에 두지 않았던 黨色으로 보나 性格으로 보나 協和가 될 수 없는 벼슬길에 나감으로서 마침내 억울하고 險難한 벼슬길을 걸다가 최후에 비참한 生涯를 마친 것이다.

林隱이 文科에 오른 것은 이미 40세 나이로 中老의 齡목에 들어섰을 때다. 50세에 비로소 持平이 되고 萬古의 是非叢中에 휩싸인다는 彈劾機關에서 執權黨과 힘겨운 싸움을 해야했다. 만일 벼슬길에서 言官이나 獻官이 아닌 弘文館 또는 藝文館에서 일을 할 수 있었다면 집권당과 協合이 없었더라도 비참한 최후까지는 초래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앞서 政況을 살펴보면은 官吏가 살아가기가 命과 運을 전혀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여기 林隱은 타고난 命은 누구 못지 않게 剛毅하고 明敏하여 그 運은 亨通보다는 否塞한 것이 많았다. 命은 좋으나 運이 나쁜 사람이 그런대로

順坦한 生涯를 마치고 타고난 才實을 어는 정도 발휘하고 갈 수 있는 길은 다름 아닌 學問의 길이다.

林隱은 朝鮮期の 沒落한 王孫의 後裔로 태어나서 어려서 父母를 여의고 童蒙에 힘쓸 시기에 배움의 기회를 잃었으나 워낙 타고난 才質이 絶倫하고 집안에서 苦學과 獨學으로 文字를 익히고 文理를 깨우쳐 오히려 自得處와 스스로 思維하고 體系의인 論理가 선 文章을 일찌감치 구사할 수 있는 能力을 갖추었던 것이다. 林隱이 처음에 學問의 스승을 黎湖 朴弼周 先生을 만나는 것이 20대초에 이미 學識을 배운다기 보다 自己의 學問을 吐露하여 前賢들의 四七論爭과 人性論 問題를 가지고 당대어의 宿儒들과 討論을 가졌으니 이 또한 聰明과 어려서 刻苦努力한 獨學과 獨學의 힘을 득했다 하겠다. 이렇게 하여금 林隱 遺編에서 그나마 세상에 남긴 學術 論文은 皇極衍義를 除外하고는 모두 2,30대에 이루었으니 만일에 그가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고 一生동안 學究에만 專念했었다면 偉大한 論著를 남겼을 것으로 판단된다. 學問과 藝術은 人間의 成熟期인 50을 넘어야 무르익는다고 하는데 林隱은 黨爭의 義憤속에서 皇極衍義를 했을 뿐이며 반면 많은 시간을 政治的 마찰과 피해속에서 南放北竄하는 悲運을 뒤집어써야 했다. 그가 타고난 思辨力, 文章力과 剛疑明敏한 精神力과 直往不屈하는 意志力을 갖추 敏坤은 만일에 時運을 껴뚝었다면, 朝廷에서 大公至正한 政治家였을 것이며 반면 一生을 學問의 길을 닦았더라면 비록 不遇했다해도 타

고난 才質로 보아 偉大한 大家의 學者로 크게 보일 人物로 歷史에 存在했을 것이다. 成長中에 겪은 不幸은 안타깝기만 하다.

※ 이 記錄은 英祖實錄과 林隱의 遺集文을 엮고 全州李氏 族譜, 參考文獻을 參作함.

◎ 李敏坤 影幀儒服에 「林隱公影幀上題」

爾沈不揚하니 老而益驪이라 ~

네가 임신양면 못하니 늙어서 더욱

파리하네

疼疾未慧하야 半世迷道라 ~

자기의 병통을 알수 없어 반평생에 도를 찾아 해매었다

蓮桂簪紵은 猿狙之袍라 ~ 벼슬(진사급제)에 나아갔으나 원승이에게 도포를 입힌 것이로다

爾宇衡茅하니 宜晦而韜라 ~ 네가 너의 집에 돌아왔으니 은거하고 빛을 감출곳이 마땅하도다

木子春生에 每與文會라 ~ 오얏이 봄에 돌아나니 날마다 벗들이 모여드네

土申出金하니 右輔車解라 ~ 무신년 이인자(이인좌)난으로 벼슬길을 떠났도다

주 : ① 史記 ~ 楚人沐換而冠耳

② 陶淵明 歸去來辭 乃瞻衡宇

③ 史記 ~ 桃李不言下自成蹊

④ 論語 : 以文會友

⑤ 六甲五行풀이

無所為而為善乎。是非得
之於天性之卒然乎。無所
為而好善乎。是非得之於人
心之所同乎。彼感此應。一以天
理乎。予筆之無愧。其以公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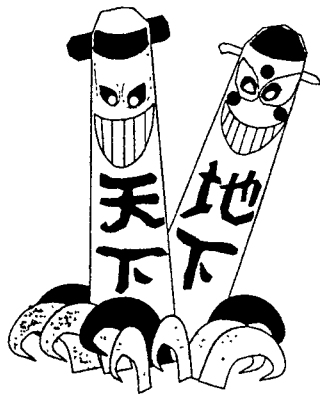
林隱病夫完山後人

李敏坤厚而題

◎ 林隱遺墨解題

- 하는 바가 없이 착함이되니
이것이 천성의 본연에서 얻는것이 아니겠는가
- 하는 바가 없이 착함을 좋아함이며
이것은 사람마음에 같음을 얻음이 아니겠는가
- 서로간에 감응이 되리라는 것은
한결같이 자연의 위치이다.
- 내 글을 써서 부끄럼이 없으니
그것이 공일진이로다. (사사롭지 아니하노라)

유적지 탐방



영릉(英陵)과 世宗大王



영릉(英陵)은 세종대왕과 소헌왕후의 합장릉이다. 세종대왕은 조선조 제4대왕으로 1418년 왕위에 올라 1450년 승하하시니 재위 32년 춘추가 54세였다. 대왕은 우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군으로 한글을 창제하고 측우기, 혼천의, 해시계 등 과학기구를 발명 제작하였으며, 아악을 정립하고 북방의 야인을 정벌하고 4군과 6진을 개설하여 우리나라의 국경선을 압록강, 두만강으로 확정하였으며 대마도(쓰시마)를 정벌하여 국방을 튼튼히 하였다. 학문을 숭상하여 학자를 기르고 활자를 개량하여 월인천강지곡, 용비어천가, 농사직설, 고려사, 삼강행실도, 팔도지리지, 치평요람, 석보상절, 의방유취 등 수많은 책을 발간하였다. 또한 농업을 장려하고 백성을 사랑하여 어진 치덕이 하늘같이 높았다.

원래 영릉은 서울 현릉 서쪽에 있었던 것을 예종우연년(1469년)에 여주로 옮겨왔다. 1975년 세종대왕의 위대한 업적을 길이 숭모하고 그 위업을 오늘에 이어받아 민족문화 창조의 기틀로 삼고자, 영릉 보수 정화사업을 추진하여 1977년 세종전을 새

로 짓고 경역을 성스러이 정화하였다.

영릉은 조선왕조의 능제를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능의 하나이다. 합장릉이기 때문에 혼유석이 두좌가 있고 봉분 둘레에 돌난간을 돌렸으며 동자주에 12지를 문자로 새겨 넣었다. 혼유석 밑받침 돌은 네개이며, 장명등은 팔각으로 되어있다. 석양, 석마, 문인석, 무인석을 배치했고 능 뒤에는 나지막한 능담을 돌렸다. 능 밑에는 정자각을 세워서 제사를 지낼때는 이 정자각에서 지내고 능봉상까지 올라가지 못하게 하였다. 정자각 앞에는 수복방을 건립하여 능을 지키게 했고 장자각 동편에 능비를 세웠다. 능역을 표시한 홍살문이 정자각 앞에서 있고 능역 입구에는 재실이 있다. 조선 왕조의 능은 능길이 습지가 되어야 하는데 이곳도 습지로서 우리나라가 운치있게 숲을 이루고 있는 능산에는 노송이 우거져 있다.

세종대왕의 약전



세종대왕은 조선 제4대왕으로 1418년부터

1450년 54세로 승하하실 때까지 32년간 재위하였다. 휘는 도(禔), 자는 원정(元正)으로 1397년 태종의 세째아들로 태어났으며, 어머니는 원경왕후 민씨, 비(妃)는 심온의 딸 소현왕후이다.

1412년 충녕대군에 봉군되었다가 1418년 왕세자에 책봉되고 이해 8월에 태종의 양위로 즉위하니 나이 22세였다. 세종이 만행인 양녕대군을 두고 왕위에 오르게 된 것은 여러 왕자중에서 가장 총민하고 현명하였으므로 부왕의 뜻을 대신들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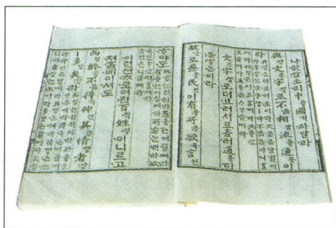
세종대왕은 실로 재위 32년간에 조선왕조 500년간은 물론 신라의 민족통일 이후 역대 군왕가운데 가장 찬란한 업적을 남겼다.

신라의 삼국통일로 민족의 원형을 이루었던 우리 민족은 세종대왕때에 이르러 국토·언어·문화·민족정신을 공통으로 하는 완전한 민족문화를 가지게 된 것이다.

세종대왕의 위업

한글의 창제

세종대왕의 가장 큰 업적은 우리 글인 한글을 창제한 것이다. 세종대왕은 궁중에 정음청을 두고, 집현전 학사들을 지도하여 1443년 훈민정음 28자를 연구 창제하고 3년동안 다듬고 실제로 써본 연후인 1446년에 이를 반포함으로써 우리 민족문화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뜻은 국민들이 자기의 뜻을 글로 펴 내기가 어려웠기 때



문에 우리의 글자를 만들어 국민들로 하여금 일상 생활에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하려는 데에 있었다. 한글은 그 원리나 자형이 독창적이고, 과학적이며, 익히기 쉽고 편리하여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글자로 평가되고 있다. 한글창제의 보다 더 큰 의의는 당시 학문을 무조건 숭상하고 중국을 섬기기에 급급했던 사대주의적인 많은 학자들의 강경한 반대를 무릅쓰고 오로지 나라와 국민의 이익과 먼 앞날을 위하여 온 정성과 슬기를 다해 우리의 글을 만들어 냈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학문의 창달

세종대왕은 특히 학문을 사랑하여 왕립연구기관이 집현전을 확장, 궁중에 설치하여 우수한 젊은 학자들로 하여금 이곳에서 학문을 강론케하고 옛 제도를 연구케 하였으며 각 분야에 걸쳐 많은 서적을 편찬케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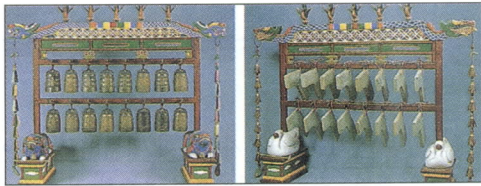
우선 1420년에 경자가, 1434년에 갑인자, 1436년에 병진자등 동활자를 만들어서 인쇄술을 개발하고 친히 지은 월인천강지곡을 비롯하여 용비어천가, 농사직설, 고려사, 삼강행실도, 팔도지리지, 석보상절, 의방유취 등 귀중한 서적들을 간행하였다. 정인지, 신숙주, 성삼문, 이개, 하위지, 박팽년, 최항 등 많은 학자들이 이 사업에 참여했다. 정치와 문물제도의 개선에도 힘써 유능한 인재들을 등용 양성하는 제도를 마



련하고 전제와 세제를 정비하였으며 경제육전을 반포하여 농업을 크게 장려하였다.

죄인을 다스리는데 있어서도 삼심제도를 채택하고 유교의 장려와 더불어 불교의 발달에도 힘쓰는 등 내치에 있어서도 빛나는 업적을 남겼다.

음악의 정리



조선 초기까지의 음악은 고려시대부터 전해오던 속악이나 아니면 당악, 또는 송제악을 따랐기 때문에 서로 혼합되어 무질서한 상태에 있었다. 이러한 음악이 세종대왕때 이르러 비로소 정리되었다. 세종대왕은 음악에 정통하여 스스로 많은 악곡을 짓기도 하였거니와 제사음악을 제정하고 새로운 보법을 창안하는 등 음악의 정비와 그 진작에 크게 힘을 기울였다. 세종대왕때의 음악정리 사업은 아악의 부흥과 향악의 창작으로 크게 나눌수 있다. 대왕은 박연으로 하여금 모든 악기를 조사 연구토록 하여 각종 악기를 새로 만들고 특히 편경과 편종을 새로 제작하였으며, 악곡, 악보등을 종합 정리하고 이를 바로잡아 새로 제정함으로써 아악의 기초를 확립했다. 궁중의 조회에 속악과 함께 처음으로 아악을 병용하도록 했다.

과학의 진흥



세종대왕은 거의 한평생을 과학기술을 연구하고 발명하는데에 전력을 쏟았다. 젊은 과학자들을 격려하여 천문 관측기구인 대간의, 소간의 등을 천체 측정기계인 혼천의 등을 만들어 천체를 관측하게 하였으며 해시계와 물시계를 만들어 시간을 재도록 하였다. 1441년에는 왕이 친히 구리로 측우기를 고안 제작하여 다음해부터 사상 처음으로 서울과 지방에서 강우량을 측정토록 하였으며, 수표를 만들어 하천의 수위를 재게하고, 외국의 역법을 참작하여 역서와 천문도를 제작했다. 팔도지리지를 간행하고 처음으로 실지 측량을 통한 지도의 과학기술의 전성기를 맞게 하였으며 더구나 이러한 천문기계의 제작이 전제와 세제를 개선하는 등의 치적과 함께 한결같이 농업을 진흥하려는데에 그 뜻이 있었다는 점에서 성군으로서의 면모를 엿볼 수 있다.

외치와 국방

세종대왕
은 역대로
표방해왔
던 천명교
린의 정책
을 펴면서
여진과 일
본과의 우
호 관계를
유지하는
외치에 힘



을 기울였다. 번번히 바다를 건너와서 백성을 괴롭
게 하는 왜구를 응징하여 대마도를 소탕하였으며
최윤덕으로 하여금 평안도 지방의 야인을 평정케
하여 1433년에 4군을 설치하고 이듬해에는 김종서
로 하여금 함경도 지방에 6진을 개척케 하여 백성
을 이주시킴으로써 비로소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
로 하는 우리나라의 국경을 확정시키고 국방을 튼
튼히 하였다.

세종대왕 숭모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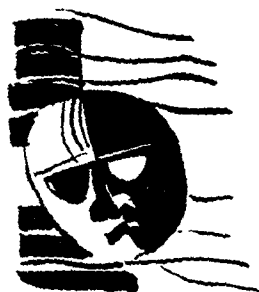


1977년 영릉 정화사업을 끝마치고 정부는 세종대
왕의 위업과 유덕을 기림 위하여 매년 10월9일 한
글날 이 곳에서 세종대왕 숭모제전을 올리다가
1982년 제6회 부터는 세종대왕의 탄신일인 5월
15일에 숭모제전을 봉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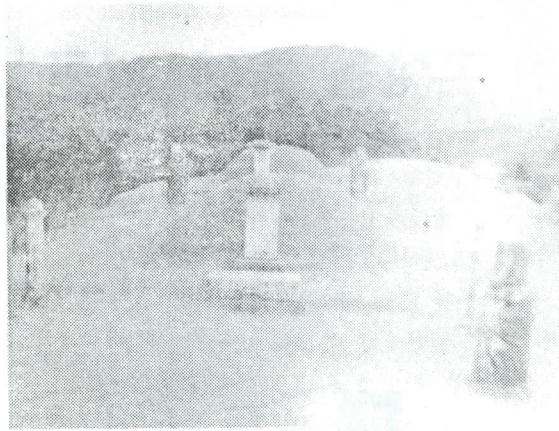
여

백

고장을 빚낸 인물



▶ 元斗杓 先生



〈원두표 선생묘 및 신도비〉

소재지 : 북내면 장암리 산 1의사

지정번호 : 향토유적 제1호

소유자 : 原州元氏 宗中

元斗杓(1593~1661) 先生은 朝鮮 중기의 문신으로 자는 子建, 호는 翁, 본관은 原州, 原溪君 裕男의 아들이며, 「도끼정승」이라고도 불린다. 朴知誠의 문인으로, 1623년 仁祖反正때 공을 세워 靖社功臣 2등이 되고 元平府院君에 봉해졌으며, 仁祖2년(1624) 李适의 亂 후 全州府尹을 거쳐 羅州牧使 전라도관찰사 등을 지내며 民 과 군병 양성에 힘썼다. 仁祖14년(1636) 丙子胡亂때 御營副使로 남한산성을 지켰고, 이후 형조판서 江華 府留守 경상도 관찰사 호조판서를 역임했다. 孝宗2년(1651) 좌찬성, 좌참찬 효종 5년(1654) 병조판서가 되어 大同法 실시에 반대했다. 孝宗7년(1656) 우의정, 顯宗3년(1662) 좌의정에 올라 內醫院과 軍器寺의 都提調를 겸직했다. 시호는 忠翼이다.

▶ 崔時亨 先生 -----

소재지 : 금사면 주록리 산 96-16

지정번호 : 향토유적 제8호

소유자 : 김기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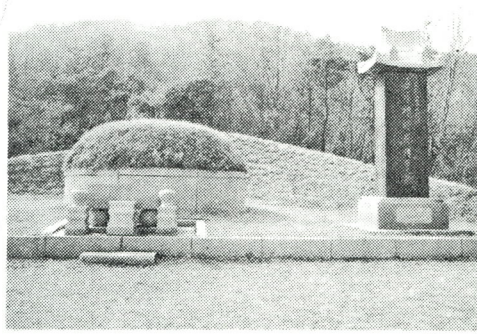
崔時亨(1827-1898) 선생은 조선 말 東學의 제2대 교조로서 초명은 경상, 호는 海月, 본관은 驪州이다. 일찌기 고아가 되어 造紙所에서 일하다가 철종 12년(1861) 동학 입교, 1863년 제1세 교조 수운대사 崔濟愚의 뒤를 이어 제2세 교조가 되었다.

동학이 탄압받던 시기에 관현의 눈을 피해 布教에 힘썼고 「東經大全」

「龍潭遺詞」經典을 완성, 전국에 六任制 조직을 확립하고 전국에 六任所를 설치하는 한편 고종 30년(1893) 이후 敎祖伸 운동에 전력했다.

선생은 당시 교조신원, 부패관리의 처단, 斥倭洋倡義의 기치아래 추진되던 시위운동에 일체의 폭력사용을 금하도록 시달렸다. 그러나 고종 31년(1894) 全 準이 동학혁명운동을 일으키자 동학의 수련으로서 동학군의 再 包 때 北接接主들에게 총궐기를 명령, 10여만의 병력을 인솔하여 南接軍에 합세했다. 동학혁명군이 관군·일본군의 혼성군에게 연패하자, 永同·淸州로 피신했다 1898년 原州에서 宋敬仁에게 피체 서울로 압송되어 6월2일 순도하였다. 6월5일 李鍾勳 등이 光熙門 밖에 가매장된 屍身을 수습 밤길을 달려와 이곳에 장사지냈다. 1907년 고종의 特旨로 신원되었다.

墓의 주위는 호석을 둘렀으며, 묘 앞 중앙에는 대히석 상석·향로석·촛대석을 마련했고, 우측에는 옥개석과 장방형 비좌를 갖춘 대리석 묘비가 서있다. 묘비는 1980년 3월 21일 천도교 해월신사 묘비건립위원회에서 세운 것으로 이선근이 짓고 양재한의 글씨, 김한의 제자로 되어 있다. 비신은 높이 2.12m, 폭 76.5cm, 두께 47cm의 규모이다.



〈최시형 묘〉

여

백

네고장의 전설



▶ 端宗 御水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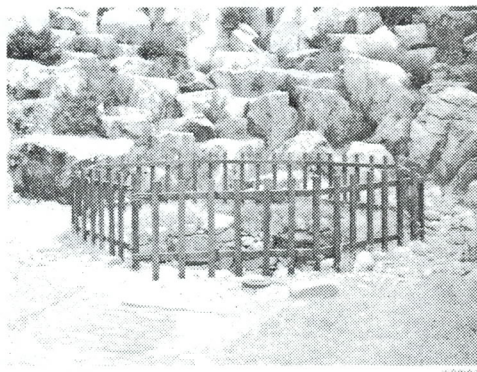
소재지 : 대신면 상구리 11-1

지정번호 : 향토유적 제12호

소유자 : 원종대

규모 : 12.06㎡

朝鮮 재7대 世祖 3년(1457) 나
이 어린 端宗이 숙부인 首陽大君
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魯山君으로
降等, 寧越로 유배될 때 남한강을
따라 금사면 이포리에 도착하여
천서리 婆娑城을 거쳐 상구리의
이 샘물에서 물을 마시고 갔다고
口傳되어 온다. 이때부터 이 샘물
을 御水井이라 불렀다고 한다.



〈단종어수정〉

현재 샘물은 圓形에 가까우며 주변을 2단으로 석축했는데, 사철에 걸쳐 水量
이 항상 많아서 특히 가뭄에도 물이 줄지 않아 식수는 물론 어수정 일대 田畓의
농업용수로도 사용된다. 석축의 틈에서 솟아나는 맑은 샘물은 물맛이 좋고 약
수로도 유명해, 이곳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그치지 않는다.

샘물의 넓이는 약 3.3㎡로서 둘레 10.1m, 폭 2.8~2.11m, 깊이 2.25m
이며, 폭 70cm의 水路가 논두렁으로 연결되어 동리까지 이어져 있다.

고달사지에 얹힌 전설 -----

지금의 함흥지방에 효심이 깊은 고달이라는 착한 사람이 살고 있었다. 체유
라는 노모와 달여라는 아내, 그리고 有達이라는 외동딸과 함께 가난한 생활에

서도 행복하게 지냈다. 고달은 깊은 산속에서 닦은 佛道를 신심이 두터웠고 또한 훌륭한 석공이었다. 그는 고달사 중전을 위한 석공으로 부름을 받고 佛事 일을 돕기 위해 고달사에 오게 되었다.

노모와 사랑하는 처자를 고향에 두고 평소 불심이 두텁던 고달은 막중한 役事를 자기가 맡게 된 것에 더욱 감격하여 훌륭한 작품을 남기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집을 떠났다. 佛寺 일을 하기에 앞서 고달은 모든 잡념을 없애기 위해 100일 동안 맑은 물을 떠놓고 부처님께 정성을 드린 후 작업에 임하여 오직 돌을 쌓고 다듬는 일에만 열중하였다.

한편, 고향에서는 남편없는 세 식구의 생계가 아내 達如에 의해 유지되었으나 날이 갈수록 생활은 쪼들리고 마침내 굶주림에 허덕이게 되었다. 달여는 날마다 동구밖에서 나와 고달이 돌아오기를 눈이 빠지게 기다렸으나 한번 떠난 남편은 아무런 소식조차 없었다. 기다림에 지친 달여는 마침내 어린 딸 有達이를 업고 남편을 찾아 나서게 되었다. 그때는 엄동설한이었는데 입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한 채 지칠대로 지쳤지만 오직 남편을 만나겠다는 일념으로 천리길을 멀다 않고 찾아 떠났던 것이다.

지금의 楊平 땅에까지 도착하였으나 추위와 굶주림에 못이겨 외동딸 유달이를 여기에서 잃고 말았다. 達如는 어린 딸의 죽음에 대한 슬픔과 추위에 지친 몸을 이끌고 천신만고 끝에 高達寺에 도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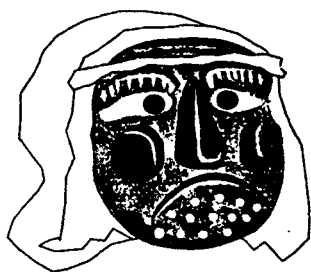
그러나 고달이는 모든 잡념을 잊고 오직 불사에만 몰두하고 있었다. 달여는 남편을 만나게 해주기를 애원했으나 불사를 하고 있는 동안에는 절대 만날수가 없다고 한마디로 거절당하자, 멀고 먼 천리길을 오직 남편을 만나겠다는 일념으로 찾아왔으나 남편 고달을 지척에 두고도 얼굴 한번 보지 못한 채 고향으로 발길을 돌리지 않을 수 없었다.

가슴깊이 파고드는 슬픔과 외로움, 그리고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린 달여는 高達寺에서 강북으로 약 10km쯤 떨어진 지금의 大神面 甫通里 강가에서 남편에 대한 그리움과 한을 품은 채 영원히 눈을 감고 말았다.

고달이는 3년간의 불사를 마치고 노모와 처자를 찾아 고향으로 돌아갔으나 이미 노모는 돌아가신 후고 아내와 딸은 남편을 찾아 1년 전에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처자를 찾기 위해 백방으로 수소문하여 찾아나섰다. 그러나 외동딸인 유달이는 지금의 楊平에서 죽고 아내인 達如는 지금의 大神面 甫通里 객사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고달이는 슬픔과 괴로움 그리고 인생에 대한 회의를 느꼈다. 아내와 딸의 시신을 찾아 따뜻한 곳에 무덤을 만들고 비를 세워준 후 고달은 그 길로 스님이 되었다. 36세에 모 대사의 제자가 되고 98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불도에만 전념, 죽은 아내와 딸의 명복을 빌었다 한다.

지금의 대신면 보통리에는 원통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이 고달이의 아내 달여가 원통하게 죽었다하여 생긴 것이라 한다. 그리고 고달이의 지극한 정성으로 불사를 완성하였다 하여 석공 고달이의 이름을 따서 寺名을 고달사라 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전 통 놀 이



▶ 驪州 農樂에 關한 高찰 ————

(1) 驪州 農樂

옛부터 驪州地方은 南漢江을 끼고 있어 비옥한 전답을 갖고 있는 고장이기에 상대적으로 동네마다 농악이 성행해 많은 민속놀이가 전래되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거북놀이, 줄다리기, 답교놀이, 장채놀이, 두레싸움 등)

산 깊숙이 형성한 작은 부락이나 넓은 평지에 취락을 형성한 큰 마을이나 동이마다 農樂隊가 있어서 각종 놀이마당이 펼쳐질 때마다 이 농악대는 서로의 技藝를 뽑내곤 했다. 이러한 地理的인 조건 때문에 農耕社會인 여주는 각종 민속놀이가 전래된 것은 물론이려니와 이 민속놀이에 빠질 수 없는 농악자체도 자연적으로 성행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지금에 와서 농악의 맥이 끊기고 몇몇 사람의 技藝人만이 남아 외롭게 민족의 전통을 잇고 있는 現實情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성행하던 傳統音樂인 농악이 외세의 문화의 범람으로 인해 부락의 창고 깊숙이서 먼지에 뒤범벅이된 채 찢기고 깨어져 있다는 것은 우리의 정신이 찢기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으며 더욱 이 땅의 靑少年에게 도외시된 채 잊혀져 가고 있다는 것은 마음 아픈 일이다.

이제 그 몇명의 기예인마저 生存時에 定立이 되지 않으면 이 지역의 문화는 일제의 문화말살정책 때보다 더 극심한 상태에 이를 것이다. 완전히 단절되기 이전에 發掘 整理되지 않는 한 우리의 정신문화의 支柱였던 동리농악은 이제 얼마 안있어 완전히 단절된 것이고 거기에 따른 결과는 모든 민속놀이까지 단절된다는 것이다.

(2) 地域別 農樂의 자취

① 驪州 邑

驪州邑은 옛부터 여주군내의 중심지로 모든 민속놀이가 邑內에 모여 연회되

였음인지 상리, 하리 등 많은 부락에 농악대가 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지금엔 거의 그 자취를 찾을 수 없고 다만 읍내의 상리에서만 명맥히 이어가고 있을 뿐이다. 여주읍내의 技藝人으로는 상리에 거주하던 김익공(작고)등과 김종하(작고)옹을 모든 사람이 대표적으로 꼽는다.

김익공옹은 고사반은 물론이려니와 민요에도 능통했으며 김종하등은 상쇠의 가락이 경쾌하고 빨라 읍내의 대표적인 상쇠잡이로 해방 이듬해인 1946년에 여주관내의 내노라하는 잡이들이 모여 결립을 할 때도 상쇠를 맡아서 연희해 당시의 군내의 상쇠로는 가장 쇠가락을 으뜸으로 치는 기예인으로 인정하고 있었고 (여주군 농서면 화평리 거주 천일초(57세)씨의 증언) 그외에 여주읍 하리의 경노당의 주관으로 1980년대에 신진리 거주 상쇠 여한구(73세) 장고 최만영(작고)

하리 거주 김수한(80세)북과신진리 거주 서수편(75세)의 태평소와 징과 세납 각1인을 초청해 결립을 한것이 읍내에서 거주하는 기예인들의 위주로 조직된 결립의 최초의 연회이다.

이 뒤에는 큰 행사에나 연회때 읍내의 기예인이 참가하는 일은 거의 없었으며 농악기로 하리 경노당에 四物과 농기는 보유하고 있으나 지금엔 찢어진 채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이고 상리에서는 농악기는 보유하고 있으나 傳授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같이 여주읍내의 농악도 한 때는 상리, 하리, 홍문리, 신진리 등 동리마다 농악대가 있었으나 지금엔 거의 단절된 상태에 있어 작금에 와서는 청병을 해와 필요시에 결립을 할 정도로 쇠퇴하고 말았다.

② 康川面

여주군 강천면은 江原道와 여주읍의 경계에 있는 곳으로 전에는 남한강을 끼고 있는 梨湖里에서는 큰 줄다리기가 있어 강원도 文幕등지에서까지 請兵을 해왔으며 이러한 관계로 자연적으로 동리농악이 성행할 수 밖에 없었다. 이 강천면의 농악은 나름대로 기예인으로 재질이 있다고 인정받아 강천의 결립패는 강원도의 춘천, 의정부 등지에 결립을 다닐 정도로 유명했으며 당시의 기예인으로서는 상쇠 최상동(작고)옹 상법고 유을리(작고)옹 세납 신응동(작고) 등이 있었으나

지금엔 거의 전수되지 않은 관계로 이제는 경기 가락은 거의 없어진 상태로 사물은 있으나 연회는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③ 加南面

가남면은 이천군의 이천읍에서 장호원읍으로 빠져나가는 길목에 면 所在地인 太平里가 있어 교통로의 요지로 되어 있으며 이곳을 거쳐 충청북도 음성, 중원 등지와 강원도 제천등지까지 연결되어 중요한 상거래의 요지로 이 일대인 정단리, 화평리 안금리등 각부락마다 동리 농악이 여주군내에서 가장 잘 알려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도 군내에소 가장 活潑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곳이다. 이 가남면에는 옛부터 거북놀이, 장치기, 두레싸움 등 같은 민속놀이가 연희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후로 이 가남면에는 지금껏 농악이 가장 強勢를 보이고 있다. 또한 가남면에 거주하는 기예인들도 지금껏 여주군내는 물론 이천 장호원 등지와 심지어 충청도와 서울까지도 請願되어 낭걸립패의 상쇠로 기예를 인정받고 있는 터여서 이 부락의 동리농악이 자연히 성행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가남면의 기예인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현재 활동하고 있는 기예인으로서는 화평리 거주 천일초(57세)와 안금리거주 신성순(65)옹을 제일로 치며 정단리에는 마경국(60세) 이금산(60세) 옹 등이 생존해 계시다. 안금리는 지금도 동리안에서만 사물이 모일 수 있으며 소고까지도 같이 연희할 수 있어 더욱 돋보이고 있으며 천일초씨는 상쇠로 낭걸립을 물론 절 걸립의 상쇠도 했고 해방 이듬해인 1946년에는 20여세의 어린나이에 지원서(작고) 길종하(작고) 옹 등과 함께 여주군내의 제일의 기예인으로 손꼽힌다. 그의 쇠가락은 경쾌하고 활발해 지리하지 않으며 각종 연회에 참가해 타지역에서도 인정받는 이 시대의 기예인이다. 이렇듯이 가남면의 동리 농악이 군내에서 가장 성행할 수 있었다는 것은 기예인이 다수 생존해 있으며 더욱 정단리에서는 일제의 유기그릇 공출때도 징, 팽과리 등을 숨기고 빼앗기지 않아 해방과 함께 바로 동리 농악을 연희할 수 있었다는 데서 맥이 끊기지 않고 연이어져 내려와 지금에도 가장 성행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④ 북내면

북내면은 읍내와 남한강을 사이에 두고 있어 예인의 분포는 심하게 나타나지 않고 거의 합동으로 걸립을 꾸민 것으로 나타났으며 북내면, 자체도 동리마다 풍물을 갖추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거의 단절된 상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지금엔 노령에 있는 이흥기(76세 : 정)옹과 이재규(73세 : 태평소)옹 두분만이 외롭게 전통을 지켜갈 뿐 특이하게 재질이 있는 기예인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두분은 1980년대에 읍내의 하리 노인정의 걸립에도 참가해 그의 재질은 모든이가 인정하고 있으나 그 뒤로는 아직 이렇다할 예인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 안타까울 뿐이다.

⑤ 占東面

점동면은 지리적으로 강원도의 일부와 접하고 있고 또한 남한강과 그의 支流인 淸漢川이 흐르고 있으며 그 청미천의 상류쪽에는 충청북도와 접경을 이루고 원부리는 경기도의 이천군과 접해있는 지역으로 나름대로의 특이한 형태의 민속놀이를 갖고 있는 지역으로 혼암리의 「쌍룡 거줄다리기」와 원부리의 「답교놀이」가 그 대표적인 것이다. 이러한 민속이 이 지역에 소재를 두고 있다는 점은 그 지방에 그 만큼 특출한 예인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러한 점으로 볼 때 지원서(작고)옹은 점동을 대표할 만한 기예인이며 또한 그가 원부리에서 處里로 거주를 옮겨 처리까지도 풍물의 강세를 보였다는 점은 그만큼 옹의 기예는 가히 入神의 경지에 도달했다고 생존시 옹을 面對했던 이들은 회상하고 있다. 지금엔 혼암리의 「쌍룡 거줄다리기」의 풍물대신 상쇠 탁준용(65세)징, 김종학(67세)북, 김은배(67세)등 몇명의 기예인이 겨우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며 그나마 장고의 이춘삼(64세)은 서울로 이주해, 사물의 약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점동고등학교에서 농악기를 보유하고 있어 전수를 시키고자해도 주위의 여건이 허락치 않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⑥ 興川面

흥천면은 지역마다 동리농악이 한 때 매우 성행하던 적도 있었으나 지금엔 거의 단절된 상태이고 다만 상쇠의 신중태(80세)옹만이 유일하게 명성을 떨친 기예인으로 남아있다. 옹은 고령에도 불구하고 몇년전만해도 타군까지 가서 상쇠를 맡아 놀이대를 이끌었으며 더욱 그의 쇠가락은 빠르고 몰아치는 것이 특징인 것으로 나타나 웬만한 잼이들은 그가 상쇠를 맡으면 따라치지 못할 정도였다고 한다 하지만 그 역시 노령에 있어 그나마 그의 가락도 맥이 끊길 위험에 처해 있으며 후계자가 없이 방관상태에 있는 현실정이 못내 아쉽기만 하다.

⑦ 陵西面

능서면의 농악은 군내에서는 비교적 약세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이유로는 능서면과 접해 있는 가남면의 화평리나 정단리 등의 농악이 워낙 강세를 보이는데다가 특출한 기예인이 여주군내에서는 이 가남면에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어 상대적으로 침체상태에 있게 됐다고 말한다. 능서면도 신지리의 샘실에 장채놀이가 마래리에는 거북놀이가 있었으며 지금엔 영릉의 소재지인 왕대리도 한 때는 농악이 성행했으나 주위의 가남의 농악이 워낙 강한데다 걸립이란 자기의 부락만이 아니고 타동네까지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가남면의 걸립으로 인해서 自然淘汰된 것으로 풀이된다. 능서면에서는 특출한 기예인은 나타나지 않고 상법고의 김만갑(작고)이 나온 편이었다고 하지만 그도 가남면의 잼이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

⑧ 大神面

대신면의 농악은 크게 알려지지는 않고 있지만 나름대로 동리마다 사물을 준비하고 모내기나 기타 마을의 큰 행사에는 동리의 농악은 사용하곤 했으나 최근에 이르러서는 거의 명맥을 찾아보기 힘들고 더구나 농기구의 기계화로 인해서

더욱 농악의 침체현상이 나타나 이제는 거의 소멸되다 싶이 되어 있다. 단지 천남리에 거주하는 이정분(73세)옹만이 외롭게 옛날의 흥성했던 농악의 전성기를 기억하며 요즈음의 젊은 세대가 우리 것을 잊어가고 있는 점을 한스러워 할 뿐이다. 대신면에서는 특별한 기예인을 나타나지 않고 다만 이용의 범고 솜씨만이 아직 옛가락이 남아 있는듯 하다.

⑨ 金沙面

금사면은 한 때는 농악이 무척 흥성했던 적도 있었으나 지금엔 거의 쇠가락 치는 기예인조차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옛날 동리 농악의 가장 약했던 곳으로 나타난다.

(3) 驪州 農樂의 育成方案

① 育成方案

이렇게 단절된 상태에 있는 동리 농악은 누군가가 하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만으로는 再演이 불가능하다. 누군가가 하겠지 하는 생각보다는 내가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책임감으로 해나가야 한다. 이고장에서 연희되었던 이 지역의 민속은 그 지역내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정신이다. 이러한 정신을 잃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더할 나위없는 불행이다. 생각하건대 이러한 불행이 닥치기 전에 조치를 하지 않으면 후회막급일 뿐이다. 우선 우리민속의 기본이 되는 동리 농악을 재연시키기 위해서는 다음의 몇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민속놀이가 되고 있는 지역의 교육기관에서 재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들을 선발하고 책임질 수 있는 기예인을 초청해 전수시켜 재연시키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은 우선은 저학년으로 시작해 차례대로 상급학년에 전학 할때까지 지원해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점은 우선 교육기관의 적극적인 동조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점동면에 있는 「쌍룡 거줄다리기」를 전수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풍물이 있어야 한다. 이 풍물은 점동고등학교에 농악기가 있으며 점동면 혼암리에는 이들이 구성되어 있다. 이들을 결합시켜 전수하게 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둘째, 대다수의 인원이 동원돼야 하는 놀이의 풍물은 교육기관에 의뢰한다고 하고 각기 동리마다 30~40세 정도의 청장년들에게 우선적으로 사물만 지도하는 방법이다. 이정도의 연령층이라면 농악이 연희되는 것도 보았고 어느 정도 우리가락을 이해할 수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이들은 옛부터 전해오는 동리 농악은 어느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조건이란 자연적인 조건, 즉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잠정적인 律이나 가락의 익힘이 있고 후천적인 전수에 의해서 익히는 인위적(人爲的)인 조건에 가장 적당한 연령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법을 가장 손쉽고 동리 농악을 전수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또한 이 방법이 제일 손쉽고 가능한 것은 동리마다 기본적인 사물을 소유하고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당장이라도 시작할 수가 있다는 점이다. 전자의 방법은 장기적인 방안이고 후자의 방법은 시급히 기본가락이라도 전수시키는 방법이며 이 두가지의 기본 방안이 이루어지지 않는한 동리 농악의 명맥은 계승된다고 장담할 수 없다.

② 地域別 對備策

가. 加南·陵西地域

가남지역의 농악은 안금리, 화평리, 정단리 등 아직도 기예인들이 다수 생존해 있어 가장 두드러진 활동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이곳에는 두레싸움(화평리 정단리)과 장채놀이(능서면 신지리) 거북놀이(능서면 마래리)등 비교적 인접된 부락에서 여주를 대표할 민속이 성행하던 곳이다. 이러한 관계로 이 지역의 민속놀이와 농악을 한데로 묶어 학교와 기예인들이 서로 협력해 우선 농악의 연습부터 시켜서 재능을 익힌 다음 놀이의 연희과정을 지도하는 방법이 있다. 이런 방법을 취한다면 한팀의 농악대로 세가지의 민속놀이를 이끌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나. 占東地域

이 지역에는 혼암리 줄다리기와 원부리 답교놀이의 민속이 연희되었던 우수한 고장으로 현재는 혼암리 「쌍룡 거줄다리기」의 풍물이 있으며 더욱 점동고등학교 생들의 다수가 이 연희에 참가 농악의 가락에 울동을 익힌 상태로 있으며 이 학교에는 농악기를 보유하고 있어 전수가 가능하다. 또한 혼암리에는 특출한 기예는 아니라 할지라도 사물이 한 고장에 모여 있는 상태이고 보면 어느지역 보다도 빠른 전수를 할 수 있는 여건의 조성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 驪州邑 地域

여주읍이 구내의 지역적인 중심지로서의 기능을 살리는 방법은 민속놀이를 연희하고 농악을 장려하는 길이다. 여주읍은 여주자영 농고에 취주악대(國樂隊)가 있어 전통적인 부분에서는 가장 틀이 잡혀있는 상태로 나타난다. 더욱 최근 (5~6)년 까지만 해도 노인정을 중심으로 걸립이 이뤄워 졌으며 고령이긴 해도 잭이들이 아직 생존해 있어 전수가 가능한 편이다. 또한 읍내에는 농고학생들을 주축으로 답교놀이의 전수를 시도하고 있는 중이어서 그 놀이를 완전히 전수시키기 위해서는 농악이 필요하여 더욱 답교놀이의 가락은 길군악, 타령, 잣은타령으로 나기 때문에 손쉽게 배우기가 가능하다. 이러한 면에서 여주읍은 민속놀이의 전수와 농악의 연희가 가장 빠른 시일내에 전수될 수 있는 지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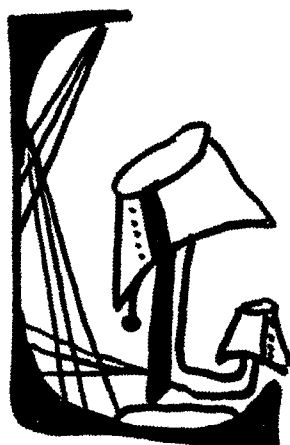
라. 其外 地域

其他地域(康川, 北內, 大神, 金沙)은 국민학교를 택하여 학생들을 지도해 그들이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경우에 차례로 발전시키는 방법을 택하는 길만이 유일하게 농악을 계승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이러한 지역은 지역적으로도 기예인이 많지 않은 상태이고 또한 일일히 한두 사람의 힘으로 동리의 농악을 키우기는 매우 힘든 실정이고 보면 그 지역내의 학교가 중심이 되어 기예인을 초청, 지도를 받게 하는 길만이 유일하게 계승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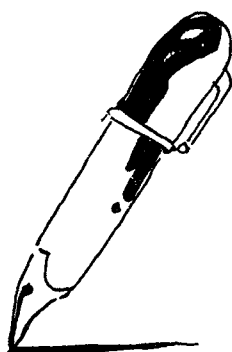
백

향 토 문 예



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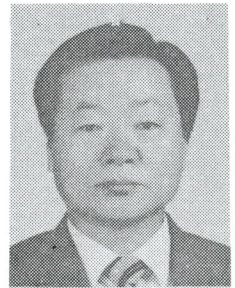
백



서울의 야경은
하늘 별들은
전생의 죄가 많다

누구는 천상에 가
살고 싶다 기도하는데

그들은
지옥에 떨어져
불꽃 바다
수를 놓네



원 용 문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과 졸업
-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 한국시조학회 회장 역임
- 한국시조시인협회 부회장
- 여주문인협회 지부장
- 여주문화원 이사

산다는 것

가다가

산을 만나면 산을 넘고

물을 만나면 물을 건너

비 오면 비를

눈 오면 눈을

느닷없는 태풍에 시달릴 때도

잡초의 근성으로 버티어 온 삶

올때

부귀도, 권력도, 명예도 없었으니

못 가진것도, 가진것 잃는것도

아쉬움이 없다

삶이란

수 없이 많은 고개를 넘는 것

땀을 식혀주는 바람이

갈증을 풀어주는 샘물이

맑은 새 소리가

탐스런 꽃 향기에

그리고 야방궁에서 살면서 잠시

행복해 하다가 꿈을 깨는 것

무엇을 찾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바쁘게 살며 얻은 것은

내 삶의 언저리를 맴돌던 거품 장식들

결국은 허무 앞에 무릎 꿇어

모든 것 버리고 공(空)이 될 때

호 또한 無라는 본질을 만나고

이름 석자마저 허공에 뿌려지면

이것이 곧 산다는 것이다.



김 홍 렬

- 경기 여주 흥천 장암리 출생
- 문장초등, 이포중, 이천고, 고려대농경과졸
- 한국문인협회 회원
- 고려대학교 문인회 회원
- 여주문화원 이사
- 한일은행, 신한은행 근무
- 제11회 허균 문학상 수상
- 저서 : 제1시집-세월의 빈 수레에 실려
제2시집-모닝커피 한 잔에

내 고향 여주

먼먼 옛날 아스라이 그 천년의 여울에 손 담근다.
서기 475년 '골내근'의 하늘에 백학이 너울 너울
술천성을 지켜낸 빛나는 조상들의 함성이 들려오고
'항려' '영의'의 들녘에 봄꽃이 고우니
'여흥' '여주' 500년의 몸 또한 찬란함이어 ...

영월루 비추는 보름달엔 신비가 감돌고
남한강의 찬 물결 마암을 어루만질 때
억겁의 추억을 간직한 신록 고찰의 석종은
백리 물결에 비단처럼 수놓음이라

노을진 학동모연, 양도의 낙안.
한 폭의 그림으로 남아있는 연탄의 뚝단배
팔대장림과 이능청풍 속의 두견의 노래
파사세우에 나래를 적시며 남으로 향하는 백로때

천덕봉에서 바라보는 절편의 들녘
봄빛 짙어지는 천양호반에는 산과 물이 가득하네
청심루 복원해 놓고 지난 역사를 이어갈 때
여강의 뱃놀이 여주의 봄은 만민의 꿈이니라

세종대왕의 정신은 자주, 과학, 문학, 세계정신이니
우리 모두는 한글 받들어 세계의 빛으로 삼자!
북벌의 의지 불태우던 효종대왕과 이완, 송시열, 그 영혼의 땅
풍전등화 같은 조국을 치마폭에 감싸 앉았던 명성황후의 고향
그 기상 천세에 향기 높아라

내 고향 여주는 아버지의 땅!
살기좋은 내 고향 여주는 어머니의 땅!
문화와 예술의 낙원을 이곳에 꽃피워라
오대양 육대주를 누비는 우리 후세
천년의 역사와 미래를 잉태한 들판의 교향곡 속에
아아! 내 고향 여주의 새벽은 밝아오네



양암 조 현

- 건국대학교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졸업
- 국민훈장 목련장 수상
- 시집 '남한강 초적' 발간
- 한국서예문화예술상
- 북청군의 노래 작가 당선
- 1천만명 이산가족 수기공모 장원
- 세계시인협회 지도위원
- 여주대학 강사
- 한국 문인협회 회원

우리의 자랑 도자기

푸른 옥 보다도
더 푸르른 청자
하얀 눈보다도
더 하얀 백자
흙으로 빚었는지
믿어지지 않은 도자기
그려진 섬세한 화폭
우리 조상들의 혼이 담긴 솜씨
오늘날 더욱더 갈고 닦은 기술로
고려자기보다
더 멋지게 만든 청자
이조백자 보다
더 뛰어나게 빚은 백자
우리 고장 여주에서
영광스런 세계도자기엑스포가 열리니
우리의 자랑 도자기 고유문화
찬란하고 빛나게 꽃 피워 보자



강 태 희

- 한국문인협회 회원
- 전 여주초등학교장 역임
- 여주문인협회 수석 부지부장
- 저서 <천사의 얼굴> 외 다수
- 여주문화원 이사

가을 사랑

황홀한 저녁 노을
붉게 타는 낙엽
손수건 날리는
사랑의 눈물

바람에 스치는 가지마다
앞새에 이는 슬픈 사연
수 없이 보내는
저 나무들

낙엽같이 흘러만 사는 광음
두드린다.
누가 사랑의 석별을

어디서 되돌아 가는 숨소리
저 멀리서 바람따라
우는 소리

그리움의 증표
정열의 나래가 우수수
죽도록 사랑한다는 소리

이 가을!

그 누가 슬픈 사색을
낙엽에 적습니다.
그 모두가 가고 있다고



이 일 섭

- 시와 론으로 등단
- 한국문인협회 회원
- 시집-〈내가 부르던 그 이름은〉
〈날아가는 새〉 등 다수
- 현 여주문화원 감사

구수한 노랫가락
어느 곳에 떼어놓고

흘러가는 물소리에
목매어 소리치나

날마다
늘어만가는
청승소리 아닌가

물소리에 어울려
아픔도 잊고 살아

원망도 슬픔도 없이
흘러가는 강물아

위로는
못할지언정
할퀴지나 말 것을



정 기 명

- 한국문인협회 회원
- 한국시조시인협회 회원
- 여주문인협회 부지부장
- 강천중학교 교사

구루다가 멈추고
다시 구르며
유리창에 얹드려
신나게 미끄럼 타더니

둥그런
두 눈을 크게 뜨고
내 방을 드려다 봐요

도란도란
우리 집 이야기
옛들어요



이 문 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여주군협의회 간사위원
- 수원법원 청소년 보호위원
- 바르게살기 여주군지부 여성회장
- 한국문인협회 회원
- 한국아동문학회 이사
- 여주문인협회 감사
- 예총여주지부 이사

허수아버

황금빛 들녘을
묵묵히 순산하려고

폭염의 한 낮
폭우의 어둠 속에서
헐어진 옷 한 벌
가을의 애인

가을걷이 빈 들녘
석양 빛 노을
허씨아저씨
어버님 모습



박 찬 수

- 한국문인협회 회원
- 경기동부신문 객원논설위원
- 여주동중학교 교사

인생은 나그네

삶

누굴 위한 삶 이었던가?
어디론가 끝없이 펼쳐진 거리로
홀로 떠나고 싶다.

밤이슬 젖은 대지 위를
가슴에 적시는
추억의 이슬비 속을
마냥 걷고 싶다

어느날

이름 모를 간이역에 내려
그리움으로 살아온 그날
아름다운 한 송이 꽃으로 피어나
당신의 그림자로 남고 싶다.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을
그 동안 살아온 삶이
이렇게도 슬프고 처량한지
마주보고 웃는 날보다
돌아서서 우는 날이 많았기에
가슴이 시리도록 처량하게 보였는지 모른다

바람이 스쳐가듯
세월은 끊임없이
정체 할 수 없는 시간속에
바람이 불면 낙엽지듯
세월은 당신을 기다려 주지 않는구나
인생은 나그네에 불과한 것을 ...



박 광 태

- 여주출생
- 동국대학교 국문학과 및 동대학원졸
- 여주문화원 부원장
- 세종신문사 운영이사
- 자유문인협회 회원

우리 人生은
하늘에 떠가는
구름
일렁이며 흐르는
강물
形體를 알 수 없는
바람
그것을 알기 어렵고
알면서 버리기 어렵다
떠나야 하는 삶
이제야 생각나는
禪僧의 말
無라 無라!



구 홍 서

- 정진건축사 사무소장
- 여주대 건축과 겸임교수
- 순수문학 수필 등단
- 순수문학농민문학에서
수필부문 우수상 수상

밤새
생사투를 벌이다가
새벽을 맞이 했다
아!
다음생은
달리기가 없는 세상이면
좋겠다.
人生을 고해라고
누군가의 실언을 진리처럼
믿었다가,
낭패를 당했는데
사실은,
쏟은 기쁨의 바다 인줄을
새벽이 되어서야 눈을 뜨고는 ...

우리 모두들
달리는 일을 이제 포기하자구.

人生은 천천히 가도
너무 빨라서
달리기가 끝나면
너무 허무해

입안의 사탕처럼 천천히
굴러 먹어야 해
단 한알 이니까!



김 정 인

· 한국문협 여주지부 회원
· 금강 근무

복사꽃 꽃무리에 취해

살면서
살아오면서
깊어진
무거운
상념들을
오늘은
한웅큼씩
한웅큼씩
흩어내곤
연지 끈지 수 놓은
복사꽃 꽃무리에 취해
어머니의 품을 떠난
긴 여행을 하고 싶다.
세상의 아름다움은
나눔으로
다시사는 세상인 것을
.....



이 신 재

- 1995<문예사조>로 등단
- 한국문협 여주지부 회원
- 안성 서운중학교 교사

사루비아 꽃으로
노을이 타는
산넘어 내 고향
산넘어 내 고향

진달래 흐드러진
봄이 오면
고향동산 그 언덕에
풀피리 불며
배꾸기 노래속에
희망을 심었지.

눈이 시리도록 반짝이던
실개천 조약돌
물장구치던 여름 냇가
지금도 귓전에
아련히 흐르고

무지개 빛 물안개가
아침을 여는 가을.
일렁이는 황금 들녘
풍요로운 일상을
거두어 들고

소복소복 고요히 잠든
하이얀 겨울
어머니의 미소가 넘치는
그리운 고향.



이 경 섭

· 한국문인협회 여주지부 회원

자 화 상

거울속에 보이는
내 모습

참된 모습일까?
거짓된 모습일까?
거울속의 나와의
기나긴 대화

속마음 들어내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구구절절 너무 많은데

거울속에 빛추어진
변해버린 내 모습
거울은 그 진실을
알고 있겠지



주 동 훈

· 한국문협 여주지부 회원
· 금강 근무

산장에는

산장에는

바람도 머물고

구름도 머물고

달빛도 머물고

사람도 머물죠

늘

변하지 않는건

바람과 구름과 달빛뿐이고

사람의 사랑은 알 수 없어요.



최 명 숙

여주문인협회 회원

비행기안에서

하늘에서
나는 새가 되었다.

눈아래 세상은
관심에도 없는

자유롭고
자유로운 새가 되었다.

더 높게
멋지게

창공을 비행하는 나는
이승까지 새가되어
날아가고 싶다.



홍 은 숙

· 한국문인협회 회원
· 교리주유소 운영

우기의 아침

바람 끝에 묻어나던
희색빛 내음
물안개로 젖어오는 아침

가만히 눈을 감으면
빗줄기 밟는소리
겉가에 가득차 오르고
발끝으로 젖어들던
빗물은 방울방울 커져버려
세상은 온통
푸른수초 하늘거리는
물밑 세상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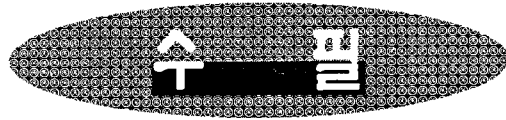
물살에 몸을 맡기고
푸른 수초 사이 떠 다니는
작은 납줄갱이가 되고 싶은 우기의 아침.

난
아직도
꿈을 꾸고 있나봐



함 은 수

- 여주여조 졸
- 한국방송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
- 한국문인협회 여주지부 회원
- 현 대한노인회 여주군지회 근무



장미 한 송이



이 장 호

언젠가 신문에서 설문조사 결과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꽃은 장미”라는 기사를 읽은 기억이 있다. 나 역시 무슨 꽃을 좋아하느냐 물으면 특별히 생각나는 꽃이 없으면 “장미”

라고 대답한다. (그러나 내가 정말로 그렇게 장미를 좋아하는지는 의문이 간다.)

우리 가족은 아파트에서 산다. 아파트라는 주거형태가 여러가지로 편리하다고 하지만 어머님 말씀처럼 “사과케잍 쌓아놓은 것 같은” 획일적인 풍경은 맘에 안 드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도 내 집이라고 분양 받아서 들어올 땐 ‘우리 집’으로 이사간다는 설렘에 잠을 설치기도 하였다. 우리 집은 1층이어서 발코니 앞의 작은 정원은 우리 차지가 되었다.

첫 해엔 가까운 효양산에 약수를 받으러 오가면서 길가의 작은 들꽃이며 코스모스, 채송화, 봉숭아 등을 옮겨 심어 제법 꽃밭처럼 모양을 내기도 하였다.

한가한 가을날 오후엔 우리 동의 새댁들이 아장아장 걸음을 시작한 아기를 데리고 코스모스 옆을 지나고, 초등학교 삼학년쯤 된 여자아이 몇 몇은 봉숭아 잎을 따 손가락에 물을 들이기도 하는 작은 즐거움을 나누기도 하였다.

처음엔 풀도 제대로 자라지 않던 척박한 모래밭이 화원에서 구입한 거름 두어 포대와 밭 흙 한 포대로 객토를 하고 나서는 제법 풀이 무성하여 ‘일꾼을 사서 풀 좀 깎아 줘야겠다’는 농담을 할 정도는 되었다.

이듬해 봄에는 아내가 ‘식목일’에 심겠다며 장미 10뿌리를 사들여 열심히 심었

는데 여름이 되기 전에 6뿌리만 뿌리를 내리고 우리식구가 되었다.

복합비료며 영양제며 열심히 주었더니 첫 해에 몇 송이의 장미를 피워줬다. 작지만 그래도 장미꽃이라고 붉은 자태를 뽐내어 우리 가족의 체면을 세워 주었다. (많은 사람들이 살기 힘들거라 했었는데)

그리고는 바쁘다는 핑계로 장미를 잊고 살았다. 거름주기는 물론이고 신발장 속의 복합비료도 뿌려주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서너 계절을 지나고 말았다.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다용도실에서 선풍기가 나와 바람을 뿜어대는 날, 아내는 시원한 냉국수를 만들었다며 점심을 재촉해댔다. (이렇게 아내와 둘이 앉아 점심을 먹는 것이 얼마 만인지 모르겠다.)

식탁에 앉아 시원한 국수 국물을 들이키는데 물이 반쯤 채워진 유리컵에 담긴 빨간 장미가 눈에 띄었다. 아주 탐스러운 꽃봉오리를 한껏 뽐내며 ……

샀느냐 물으니 아내는 발코니를 가리켰다. 아내의 손을 따라 바라본 발코니에는 아파트의 커다란 유리창을 액자처럼 두르고 탐스러운 빨간 장미가 한아름씩 서너 무더기가 담겨있다. (아하, 이 장미가 저기서 자란 녀석이구나.)

국수를 먹고 정원을 살펴보니 장미가지 가지마다 빨간 포장 끈으로 발코니 장식에 묶여있다. 아내가 한 가지씩 묶어준 것이다.

그리고 보니 가지도 굵어지고 아주 왕성한 생장을 하여 발코니 장식의 하얀색과 장미가지의 녹색과 빨간 꽃봉오리가 어우러져 있는 것을 그 동안 나만 보지 못한 것이다.

바쁘다는 핑계로 또는 자동차로 집 앞을 지나면서도 앞만 보고 달리는 동안에도 장미는 거기에 그렇게 있었지만, 나는 보지 못한 것이다.

나와 아내가 장미를 심은 다음에도 나는 잊고 있었지만, 아내는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가지 하나 하나마다 정성을 쏟아 탐스러운 꽃을 피워낸 것이다.

“어린왕자”의 여우가 내게 속삭인다. ‘마음으로 보아야 잘 보인다. 본질적인 것은 눈에 안보인다 … 네가 네 장미에게 소비한 시간 때문에, 네 장미가 그토록 중요하게 된거야 … 너는 네 장미에 대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이 상 국

“계장일 때와 직원일 때가 달라요.” 아끼는 후배 추천하니 정중한 거절이다. 말인즉 윗사람이 시키면 안 되는 일이라도 해보다 안되면 이유를 달아 거부할 것이 지 처음부터 사사건건 안 된다는 것이다.

· 한국문협 여주지부회원
· 공무원 문예대전 「별」로 우수상
· 현대수필 「욕심과 간섭」 등단

개그맨 전유성의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는 읽은 지 10년이 되었건만 지금도 생생하다.

유랑극단 시절, 공무원에 발을 디딘 연예인이 있었다. 관청은 예나 지금이나 자기의 일이 아니면 아는 체도 알려고도 하지 않으며 자신의 일에만 집착하는 버릇이 있다. 극단에서 하듯 굶은 일마다 앓고 일찍 출근해 청소는 물론, 유리창이 깨어지면 갈아 끼우고, 책상다리가 부러지면 고치고, 서랍이 고장나면 수리하고, 허접스러운 일들을 하다 보니 한 달도 못가 없어서는 안될 존재가 되어, 찻느니 이 사람뿐이다.

젊어서, 따지기 좋아해 원칙에 어긋나거나 정도가 아니면 반기를 들고 입바른 소리만 했으니 누가 좋아할까. 아니나 다를까, 서열 맨 꼴찌로 진급한다.

다스리는 입장이 되어 줄병시절을 반추하며 바쁜 직원 내근을 시키고 힘든 외근 자청해 산이고 들이고 뛰어다니며, 게으른 사람들의 몫까지 대신한다. 뛰다 보니 요직으로 옮겨지고, 밤낮 가리지 않고 일하다 지치면 한직으로 바뀐다. 한직에선 못다 본 책을 한꺼번에 서너 권씩 읽어야 하고, 컴퓨터를 두드리며 모자라는 부분을 충전해야 한다.

고참이 되면 윗사람과의 대화로 끈을 잇는지, 편함에 길들여졌는지 집중력을 잃는 사람은 안타깝다.

장교할 일 따로 있고 졸병 할 일 따로 있다고 하지만, 시골 초등학교 교장을 찾았더니, 교장실로 안내하고 커피를 내어 주는데 늙은 남자 교감선생이다. 얼마 후 근황을 물으니 교장이 되었다며, 간사한 사람이라고 사족을 붙이는데, 사족 붙이는 쪽이 더 졸렬해 보이니 어인 심사일까.

요직에 앉아 진급하고 싶지만, 인간사 쉽게 되지 않는 법. 한직에서도 찾다 보면 눈에 띄고, 요직에서도 요령만 부리면 눈밖에 난다. 일찍 출근하는 사람이 지각하면 적발되고, 놀다가도 높은 분눈에 맞추면 부각되는 것은 일시적 행불행이다.

카인의 돌에 맞아 죽은 아벨, 아버지 승전의대가로 번제물이 된 입다의 딸, 죽음의 아내 - 선한 자의 죽음이 수수께끼로 혼란스럽다. 인간사 권선징악으로 귀결되는 것도 아니고, 인생이란 결과가 있어야 완성되는 것도 아니다. 사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일 뿐.

수필가 윤재천 교수의 70회 생신 축하에서 어느 명사의 “선생은 인생을 꽉 채우며 사신 분”이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는데, 생활이나 업적을 보면 지당한 말씀이다. 본 받기를 원하지만, 내 인생 이미 절반 이상이 낭비되었으니 어찌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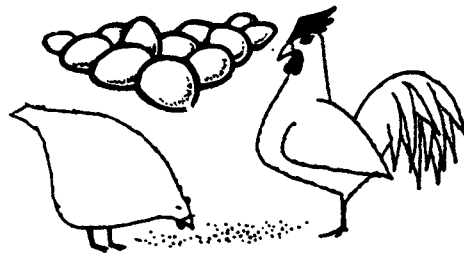
선배가 이끈다. 강한 성격에 인상마저 험해 직원들이 거리를 두는 것도 모르고, 잘못에는 눈물이 나도록 나무라니, “적을 만들면 안돼요. 직원들 감싸주어요.” 사무관이 될 순서이니 주의를 기울이라는 말로 듣고 참고 견뎌 진급하고 나서 생각하니 인생사는 방법이다.

◎열심히 해도 뒤쳐지고, 요령만 부려도 진급을 한다. 뒤집어 보면 자기 일은 칼같이 잘해도 대인관계를 등한히 한 잘못이고, 요령으로 진급을 했다지만 과오 없었으니 대인관계로 점수를 따 진급한 것이라 생각해야 옳을 것이다.

극진히 모시건만 출세의 다리가 되어 주지 않아 야속한 어른. 돌이켜 생각하니 그 분 따르다 인생에 전력투구하는 법을 배웠다. 징검다리 안 내어 준다고 보냈는데 이미 돌다리에 서 있는 것을. ◎

여

백



달밤 대운동회



강 태 희

어느 농촌에 작은 초등학교입니다. 전교생이 겨우 70명 밖에 안되는 아주 작은 학교지만 교육 시설이나 환경은 도시 어느 학교에 비할바가 없지 좋은 학교입니다.

그래서인지 공부나 특별활동도 전국적으로 이름난 학교입니다.

지난번 전국 수학경시대회에서 당당히 1등을 한 학교입니다.

어디 그 뿐인가요. 컴퓨터 경진대회에서도 전국에서 1등, 3등을 한 학교이니깐요.

공부만 잘하는 학교가 아니고 체육에서도 손꼽는 학교로 전국 초등부 농구대회에서도 1등을 한 학교입니다.

이 학교는 가을 대운동회도 전국에서 특별하답니다.

추석날 달밤에 대운동회를 하니 말입니다. 왜 하필이면 추석날 달밤에 대운동회를 하는지 궁금하지요.

농촌에서는 가을 추수가 시작되면 눈코 뜰새없이 누구나 바쁘기 때문에 모두 일손 놓는 추석날 보름달이 휘황찬란한 밝은 달밤에 대운동회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학부모님들도 어리둥절하고 어린이들도 불안했지만 실제로 추석날 대낮 같이 밝은 달밤에 대운동회를 해보니까 얼마나 멋지고 좋은지 모두들 대찬성이었습니다.

학부모들이 한가한 추석날 달 밝은 달빛이라서 모두 참가할 수 있고 학교를 졸업한 졸업생들까지 고향에 왔다가 모교에 모여 들어 운동장에 발 들여 놓을 틈도 없었습니다.

- 교단문학, 아동문예, 아동문학 동화당선
- 그리스천문학 시 당선
- 한국아동문학회, 한국문인협회 국제펜클럽 회원
- 한국아동문학대상, 한국아동문학 작가상
- 여주문화원 이사
- 저서 : 동화『천사의 얼굴』와 다수
동요집『일곱색 무지개』등

또한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추석날 둥근 보름달이 개미도 기어가는 것이 보일 정도로 대낮같이 밝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날씨도 춥고 덥지도 않아 대운동회 하기에 참으로 좋았습니다.

대운동회 개회식에서 교장선생님 말씀이 더욱 감명적이었습니다.

“학부모님 여러분! 추석을 잘 보내셨나요. 본교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추석날 달밤 대운동회를 하게 된 것은 어린이회에 결정한 새로운 생각입니다. 어린이는 이 나라 앞날의 주인이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주체가 되어 진행되니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장선생님의 말씀이 끝나자 어린이회장의 구령에 따라 전교생이 하나같이 이동하여 청백 응원자리로 들어 갔습니다.

마침내 첫 순서가 시작되었습니다.

1학년 100m 달리기인데 모두 12명으로 3명씩 4조로 나누어 조별로 3명이 달리니 1등, 2등, 3등 등수만 가리는데 전교생이 모두 이런식으로 1, 2, 3등을 가리니 특별한 대운동회가 안닌가요.

민속놀이 역시 1학년에서 6학년까지 여섯 장소로 나누어 학년에 알맞는 민속놀이를 시작하는데 1학년은 장대 위에 높이 매달린 바구니에 청백 2명이 나와 팔주머니, 콩주머니 넣기로 청백의 승부를 가리는 높이 던지기 경기였습니다.

2학년은 5m전방에 화살통을 놓고 역시 청백 2명이 화살 꽃기로 청백 승부를 가리는 명중 맞추기 경기입니다.

3학년도 줄넘기를 청백으로 나누어 하는데 처음엔 한 사람 들어가기, 두 사람, 세 사람 들어 가기로 청백의 승부를 가리는 묘한 경기였습니다.

4학년은 닭싸움으로서 청백이 승부를 가리는 밀어내기 경기였습니다.

5학년은 제기차기로서 청백의 승부를 가리는 많이 차기 경기로서 마음대로는 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6학년은 씨름으로 판결을 하는 힘의 대결로 청백의 승부를 가리는 아주 인기 높은 경기였습니다.

달밤 대운동회에서 역시 볼만한 것은 탈춤 놀이였습니다.

전교생이 모두 이상한 탈을 쓰고 양손에 흰수건을 하나씩 들고서 음악에 맞춰 신나는 탈춤을 너울너울 추는 모습은 학부모님들의 우렁찬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달님도 귀여운 어린이들의 재롱이 만족한 듯 싱글벙글 웃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달밤 대운동회 1부가 지나 가고 간식 먹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추석날 아침에 차례를 지내고 싸가지고 온 햇쌀떡과 맛있는 과일을 퍼놓고 집집마

다 오손 도손 둘러앉아 밝은 달빛 아래 맛있게 먹는 모습으로 참으로 정다웠습니다.

순이 어머니는 딸이 기특해서 머리를 쓰다듬으며,

“참, 우리 순이 잘 뛰어라. 1등야!”

얼굴엔 환한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옆집 철수 할머니도 샘이 나는지,

“우리 철수도 1등이애!”

엄지가라을 높이 들고 큰 소리쳤습니다.

등근 달남도 순이랑 철수가 귀여워서 함박웃음을 웃고 있습니다.

간식시간이 금새 지나고 달밤 대운동회 2부 순서가 시작 되었습니다.

어머니들의 경기는 바늘에 실 꿰이는 아주 어려운 경기였습니다.

하지만 이 경기를 보면서 등잔불, 전기불도 없던 옛날에는 달밤에 바느질을 했다는 것이 실감났습니다.

아버지들의 경기는 쌀가마니 등에 메고 운동장 도는 경기로서 농촌 사람들의 힘이 모두 장사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전교생의 힘을 한 곳에 모으는 줄다리기 경기는 학부모님들의 응원소리에 달렸습니다.

전교생이라야 고작 70명으로 청백 35명씩 두 팀으로 나누어 줄을 당기는데 북소리가 한 번 나면 시작되고, 두 번 나면 끝이 나는데 학부모님들의 응원 소리가 강하면 끌어 당기고 약하면 끌려가는데 결국 응원 소리가 강한 청군이 이겼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가지 재미있는 경기가 많았지만 그래도 청백 이어 달리기가 추석날 달밤 대운동회의 제일 으뜸이었습니다.

1학년에서부터 6학년까지 모두 12명의 청백 선수가 운동장 반바퀴를 이어달리는데 청백의 응원 함성은 과연 하늘을 진동하여 달남도 깜짝깜짝 놀라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엔 청군이 앞서 달리다가 다시 백군이 앞서 달리고 이렇게 앞치락 뒤치락 하더니만 결국 백군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추석날 달밤 대운동회가 막을 내리자 전교생이 정리체조를 하였고 이어서 1등, 2등, 3등 상을 교장선생님이 주셨는데 결국 전교생 모두 상을 타는 전국에서 아주 특별한 추석날 달밤 대운동회였습니다.

2001년도 문화원 주요사업

사 업 명	기 간
1. 축제사업	
· 세종대왕숭모제전	5월
· 명성황후숭모제전	11월 17일
· 세종문화 큰잔치	10월
2. 향토고유문화 보존사업	
· 정월대보름 한마당 놀이	2월 7일
· 조기울 낙화놀이	2월 6일
· 취대 시연	11월 17일
· 혼암리 쌍용거줄다리기	10월 10일
3. 지역사회 교육사업	
· 문화유적답사	5월
· 교양강좌 및 문화인의 밤	4월
· 청소년 문화학교	7월
4. 도서발간사업	
· 여주사료집(Ⅱ)	연 중
· 여주문화(9.10호)	상반기, 하반기
· 학생백일장 입선작 모음집	10월
· 세종대왕의 열	5월
5. 기 타	
· 경기도 학생백일장 대회	10월 8일
· 아마추어 연극제	9월
· 청소년 민속예술제	10월
· 경기도문화원 임직원연수	4월
· 풍물굿	5월 26일
· 남한강사람들전	5월 15일 ~ 19일
· 빛모아사진전	5월 9일 ~ 14일
· 김덕기 초대전	8월 10일 ~ 19일
· 여주도예인협의회전	8월 20일 ~ 9월 5일
· 여주문인협회 시화전	9월 6일 ~ 13일
· 수석인연합회전	9월 14일 ~ 19일
· 은모래사진전	9월 20일 ~ 26일
· 한글반포기념 학술세미나	9월 25일
· 풍경보기전	9월 27일 ~ 10월 4일
· 한국미술협회 여주지부전	10월 일 ~ 15일
· 미려전	10월 16일 ~ 28일
· 여성국극 '명성황후' 공연	10월 8일, 11월 16, 17일

2002년도 문화원 주요사업

사 업 명	기 간
1. 축제사업	
· 세종대왕승모제전	5월
· 경기도 학생백일장 대회	8월 ~ 10월
· 명성황후 승모제전	10월 9일
2. 향토고유문화 보존사업	11월 17일
· 정월대보름 한마당 놀이	
· 조기울 낙화놀이	2월
· 취타대 시연	2월
· 혼암리 쌍용거줄다리기	11월 17일
3. 지역사회 교육사업	2월
· 문화유적답사	
· 교양강좌 및 문화인의 밤	5월
· 청소년 문화학교	4월
4. 도서발간사업	7월
· 여주문화재 대관	
· 여주사료집Ⅲ(조선왕조실록)	하반기
· 여주사료집Ⅳ(고려사, 삼국사기, 사마방목)	상반기
	하반기
· 여주문화 (11, 12호)	상반기, 하반기
· 학생백일장 입선작 모음집	10월
5. 기 타	
· 홍영식 기념제(초대 우정국 총판)	연 중
· 전시 및 공연	9월
· 청소년 민속예술제	10월

여주문화

제10호

- 인 쇄 : 2001년12월25일
- 발 행 : 2001년12월30일
- 발행인 : 한 만 규
- 발행처 : 여 주 문 화 원
(031) 883-3450

이 책은 여주군의 지원으로 발간되었습니다.

